금주의 법구–〈잡아함경〉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덧없는 생각을 끊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안락하리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1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9월 12일)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불교기후행동 출범 後 세미나·실천법석 증가

기획 특집
기후재앙 시대, 불교는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인식확산·대안모색 위한 법석
코로나 주제 학술대회 발제서
기후위기 극복대안 모색 눈길
거리캠페인·기후학교 운영도

천태종 (사)생명존중환경포럼
10월31일 세미나 열고 첫 행보

국제사회 곳곳에서 기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최근, 불교계에서도 환경보호를 넘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일고 있다. 지난 6월 15일 불교기후행동이 공식 발족한 것을 시작으로, 올 10월경 불교계 학술단체와 사찰,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기후위기를 공론화해 불교적 대안을 찾기 위한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올 10월 급증한 여러 학술대회와 세미나, 각 단체들이 진행 중인 실천법석들이 대표적이다.

변화의 기폭제는 6월 15일 불교기후행동의 출범으로 분석된다. 국제기구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한국불교계 지부 형태로 발족해 현재 전국 70여개 단체가 포함돼 있다. 불교기후행동은 △기후위기비상선언의 전국확산 △기후위기에 관심있는 불자들의 결집·조직화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지원활동 △불교의 불살생 계율과 생명존중사상에 따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등을 선언하며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서울 본부와 광주전남·울산· 전북지부를 기반으로 '기후학교' 운영을 통한 인식교육에 나섰고 각 지역에서 활동가들이 캠페인을 통해 인식확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9월 22일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인 기후행동 선언'이 공식 발표됐다. 환경부와 불교 등 5대 종교인들은 '대화마당'을 통해 각 종교별 환경교육 현황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방안을 공유하는 등 향후 기후위기와 관련해 종교계의 적극적인 관심을 선포했다.

이 같은 활동들이 인식확산을 위한 실천적 형태라면, 이론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장은 학술대회 및 세미나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가 10월 15일 개최한 제10회 학술대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교의 대응과 변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1주제로 이병인 부산대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교수가 '포로나시대 불교환경의 현황과 대응'을 발제해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이병인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기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인 수치와 기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등을 토대로 불교의 역할에 대한 제언을 내놔 주목된다. 이 교수는 환경에 대한 불교적 가르침이 무궁무진함에도, 현실적인 적응과 실천의 부족으로 사회적·시대적 사업으로 지속·확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데 이어,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 시대에 맞는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불교환경선언' 발표 및 '불교화경지침서' 제작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10월 6일 오대산 문화포럼의 사전행사 일환으로 녹색미래를 향한 인류의 길을 주제로 좌담회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좌담회는 주지 정념 스님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한앙기 평창군수, 조정래 작가와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등이 연사로 참석해 기후위기라는 전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천태종(총무원장 문덕)도 최근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공식화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활동이 저조했던 '소백산지킴이운동본부(백산환경포럼)'의 명칭을 '(사)생명존중 환경포럼(이사장 무원)'으로 변경했으며, 그 첫 행보로 'STOP 1.5℃'를 주제로 한 지구기후위기 세미나를 10월 31일 오후 1시 대전광수사에서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임부회장의 사회로,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구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주제로 발제한다.

〈관련기획 A3〉



제주 4·3사건 희생자 넋 기립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종단 대표자 스님들이 10월 20일 제주 4·3공원서 억울하게 희생된 고혼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재를 봉행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원행 스님이 영단에 헌화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조계종 홍보팀

조계종 내년 예산 10% 감액 '긴축재정'

19일 교구본사 주지회의서 보고
일반 269억·특별 643억원 편성
종단의 목적 불사에만 예산 투입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여파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내년도 예산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2021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0%가량 감액돼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의장 원행)는 10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불기2565(2021)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69억 6200여 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6억 2000여 만원이 줄었다. 이는 세입부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중앙·특별·법인분담금 10%·직영분담금 5%·직할분담금 7.78%가 감액되고, 각종 희사금이 줄며 나타난 결과다. 이에 따라 종단 홍보를 비롯한 불교문화·미술·음악 진흥, 포교단체지원 등 지원사업들의 예산과 기관 운영·관리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특별회계 예산도 축소됐다.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643억 4800여 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5억 8500여 만원(-15.26%)이 축소·편성됐다. 예산은 줄었지만, △인도 분황사 건립(51억원) △계룡대 홍제사 건립(30억원) △불교요양원 설계(3억원) 등 종단 목적불사에는 예산을 예정대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예산 편성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원행 스님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찰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구본사에서 요청한대로 사찰등급 조정을 1년 유예했다"면서 "이 같은 세입 여건을 고려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 중앙종무기관의 각 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통해 올해 예산에 대비 약 10% 감액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종단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목적불사가 구체화 되는 중요한 시기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종단의 목적불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들을 특별회계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종사·명덕 법계 품서식 연다

10월 29일 조계사서… 특별전형 합격자 대상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무관)는 10월 29일 서울 조계사 앞마당에서 '종사·명덕 법계' 및 '대덕·혜덕 법계' 품서식을 봉행한다.

'종사·명덕 법계 품서식'은 이날 오전 11시에 특별전형에 합격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열리며, '대덕·혜덕 법계 품서식'은 오후1시에 교육원에 실시한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법계 품서식에서 지급되는 종단통일 가사 제작비는 종단에서 지급하며, 법계를 품서 받는 스님은 가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품서식 당일에는 가사(종덕·현덕/중덕·정덕)와 장삼, 인감이 날인된 자필 유언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자필 유언장의 경우 2020년도 승려정기분한신고에서 제출한 스님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품서식 시작 30분 전까지 도착해야 한다. 법계품서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법계 품서가 유예된다.

신성민 기자



만행결사 특집 B면 섹션 B1~8

2020 온라인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명상웹컨퍼런스

끌어안음

팬데믹 시대,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수행의 진수를 만나는 시간
온라인으로 만나는 세계 불교의 교학과 수행

컨퍼런스 참가신청
바로가기 QR코드

한국불교 수행 11월 5일
현봉 스님 조계총림 방장
금강 스님 해남 미황사 주지
명법 스님 은유와마음연구소 대표

위빠사나 수행(남방불교) 11월 6일
파욱사야도 미얀마 파욱센터 큰스님
일묵 스님 제따와나선원 선원장

서구 마음챙김 수행과 뇌과학 11월 7일
릭 핸슨 Rick Hanson 신경심리학자 & 명상지도자
타라 브랙 Tara Brach 세계적 심리학자 & 불교명상가

티베트 불교 수행 11월 8일
여는 인사 달라이라마 Dalai Lama
욘게이 밍규르 린포체 Yongey Mingyur Rinpoche
청전 스님 달라이 라마의 한국인 첫 제자
소남 스님 한국티베트불교사원 광성사 주지
남카 스님 티베트하우스코리아 원장

본방송 2020. 11. 5(목) — 11. 8(일)
재방송 2020. 11. 12(목) — 11. 15(일)
*본방송 참가 시 재방송 시청 가능

참가비 >
1일권 30,000원
4일권 100,000원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참조 www.bexpo.kr
11월 4일(수) 18시 신청마감

문의 >
Tel 02-2231-2013
E-mail bexpo@daum.net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주관 불교신문 불광미디어 BulkwangMedia 기획·운영 MIND DESIGN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Association of Korean Buddhist Orders 문화재청 Hansol 한솔PNS

“강원·선원 교육에 조계종 미래 있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아사리 추계학술대회 개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계 각국 불교의 승가교육 현황을 살피고 한국 승가교육이 나아갈 길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은 10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각 국의 승가교육 및 승가상 정립’을 주제로 교육아사리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교육아사리 스님들이 중국·일본·대만·티베트·미얀마·스리랑카 등 세계 각국 불교의 승가교육을 분석하고 한국 승가교육과 비교하는 소논문들을 발표했다.

‘미얀마 승가교육 현황’을 발표한 동국대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 교수 자목 스님은 미얀마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빠알리어를 기본으로 한 교학과 위빠사나 수행의 대중화에 있음을 전제하며 “미얀마 승가교육은 시험, 자격제도는 있으나 정형화된 교육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스님에 따르면 승가교육은 오로지 불교만 공부하고, 3단계 자격시험이 있다. 기본 과정을 마치고 합격하면 법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자목 스님은 “수행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교학을 배우는 것은 미얀마 승가교육에서 본받을 만하다”고 설명했다.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국제불교영어학과 교수 경문 스님은 ‘스리랑카 승가교육의 현황과 그 고찰’을 발표했다. 스님에 따르면 현재 스리랑카 승가교육은 전통강원에 해당하는 ‘삐리웨나’가 있으며, 켈라니야 대학교 등 일반대학서도 승가교육이 이뤄진다. 현재 스리랑카 승가교육의 중심은 전통교육의 ‘삐라웨나’가 아닌 일반대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게 경문 스님의 설명이다.



조계종 교육원은 10월 23일 ‘각 국의 승가교육 및 승가상 정립’을 주제로 교육아사리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스리랑카·티베트·미얀마 등
세계 각국 승가 교육 분석해
한국 승가 교육 현실과 비교
효율적 승가 교육 방향 고찰
김방룡 “講·禪 겸수 모색을”

경문 스님은 “2000년이 넘는 스리랑카 승가교육의 역사는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의 길을 모색하며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면서 “19세기 이후 서양 근대의 실증적·객관적 학문 체계와 방법론을 기존 승가교육 시스템에 도입했고, 이는 스리랑카 승가교육의 중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오늘날 스리랑카 승가가 현대사회와 소통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량을 키우는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한국불교의 현실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경문 스님은 “한국은 다문화, 세계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 승가교육은 조선시대의 불교인식에 멈춰있다”고 지적하며 “세계불교의 흐름에서 변방에 밀려나지 않고 지지 받을 수 있는 한국불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전에 근거하고 현대적 가치가 반영된 효율적 승가교육으로의 방향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방룡 충남대 철학과 교수(한국선학회장)는 ‘조계종 승가교육의 불변(不變)과 변(變)’ 발제를 통해 “불변의 가치가 변화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조계종의 종지종풍을 분명히 하고, 그에 걸맞는 현대적 승가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전통성과 정체성을 해체하는 것이 현대적이고 세계적이라는 생각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전통 승가교육기관인 ‘강원’과 ‘선원’의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중앙승가대와 동국대의 현대식 대학교육을 통해 전통 승가교육이 갖고 있는 시대·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되, 강원과 선원의 본래 취지에 맞게 기능하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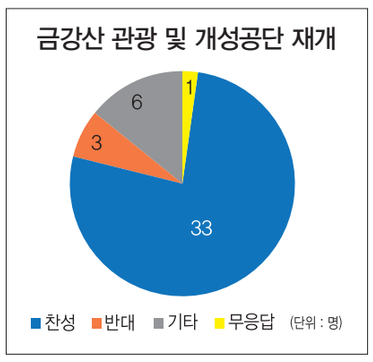
이어 “강원교육은 한문 풀이가 아닌 사상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안목을 지니게 해야 한다. 선원에서는 살아있는 활구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면서 “강원과 선원의 별립이 아닌 강학과 선 수행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강원과 선원을 살려야 조계종의 미래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교역직 97% “남북불교교류 필요”

민추본, 교역직 스님 설문조사
금강산 관광 재개 찬성 압도적
통일에 관심 높지만 실천 부족
“기금 위해 수익 사업 필요해”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수준이며 통일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남북불교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매우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통일교육 경험이 부족하고 방북 경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종단 차원의 통일인식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 같은 결과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 이하 민추본)가 10월 19일 공개한 ‘조계종 교역직 스님 대상 통일의식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설문대상은 44명에 불과하지만 응답자인 스님 모두가 종단에서 종무행정 및 관련 소임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해소될 경우 이 같은 인식에 기반해 종단 대북교류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설문에서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남북불교교류에 대한 인식 항목이다. 응답자인 44명의 스님 가운데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찬성한 스님이 33명으로 확인됐다. 부분찬성 등 기타를 선택한 스님이 6명, 반대가 3명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교역직 스님은 남북 간 대표적인 교류협력사업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확인됐다. 스님들은 남북불교교류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가 35명,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가 8명으로 집계돼 100%에 가까운 43명이 이에 대한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선택한 스님은 단 1명이었다.

남북불교 교류를 위해 종단에서 우선적으로 진행해야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반수인 22명이 ‘불교계 대북사업 기구 및 단체 활성화’를 꼽았다. 현재 조계종의 대북 관련 기구는 민추본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민추본의 활성화를 요구하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스님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 반해, 실질적으로 통일 관련 교육을 받거나 북한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적은 수치로 나타난 점도 주목된다.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스님이 41명,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가 43명으로 집계됐지만 정작 스님들 중 평화 및 통일교육 경험이 있는 스님은 25명에 불과했다.

민추본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가 종단 소임자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샘플링조사로 진행됐음에도, 통일에 대한 인식 및 남북불교교류와 통일교육 등 전반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어 유의미하다고 본다”며 “특히 그동안 민추본이 남북정세 등 단편적인 현상을 분석하는 교육이 많았다는 점에서, 설문 결과를 염두해 앞으로는 인식교육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추본은 이번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더 많은 수의 불자를 대상으로 통일 인식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승려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승려복지회, 16일 완료 보고
의료비 등 현황 파악 한눈에
복지기초자료도 전산화 완료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 예정

조계종 종단 스님들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지 지원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승려복지 통합관리프로그램’이 구축됐다. 이에 따라 승려복지행정 관리역량 강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금곡)는 10월 16일 총무원 2층 회의실에서 ‘승려복지 통합관리프로그램’의 완료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자료입력을 시작했다.

‘승려복지 통합관리 프로그램’은 의료비·요양비·국민연금·건강보험·건강검진·예방접종비 지원 등 스님들의 복지지원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구축됐으며, 지난 7월에 도입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현황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동안 설문조사 등으로 확보한 스님들의 복지 기초자료도 전산화해 복지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됐다.

‘승려복지 통합관리프로그램’은 올해 연말까지 자료 입력과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승려복지회는 내년 중으로 지난 10년간 승려복지 지원자료를 입력하고, 교구본사 승려복지 담당자에게도 통합관리 프로그램의 정보를 네트워크로 제공해 효율적 승려복지 행정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승려복지회장 금곡 스님은 “승려복지 통합관리 프로그램은 승려복지에 대한 종단의 확고한 의지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종단은 스님들의 수행과 포교, 안정적인 노후 수행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승려복지제도는 스님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스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화쟁위 ‘하이 화쟁’ 발간

종립학교 종교수업 교재 활용

조계종 종립학교 학생들이 ‘화쟁’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 안내서가 발간됐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호성)는 최근 “청소년용 화쟁안내서 ‘하이, 화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이, 화쟁’은 조계종교법사단과 화쟁위원회가 공동제작한 책으로, 지난해 7월 첫 간담회 이후 3차례의 워크숍을 비롯한 1여 년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

‘하이, 화쟁’은 종립학교 종교수업 용도로 제작한 교재다. 10월 말부터 종립학교 5개 학교(동대부여중, 동대부여고, 광동고, 의정부광동고, 동대부영석고)에서 시범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1년부터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이, 화쟁’은 한 학기 수업분량으로 제작됐다. △PART1. 갈등 개념 알기 △PART2. 갈등 해결 방법 △PART3. 갈등 조정 실습 등 총 15강좌의 단원으로 구성됐다.

화쟁위원회는 “미래세대에 화쟁의 정신이 이어지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육성되는 데 ‘하이, 화쟁’이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며 “이를 시작으로 ‘하이, 화쟁’이 향후 청소년 화쟁 가이드북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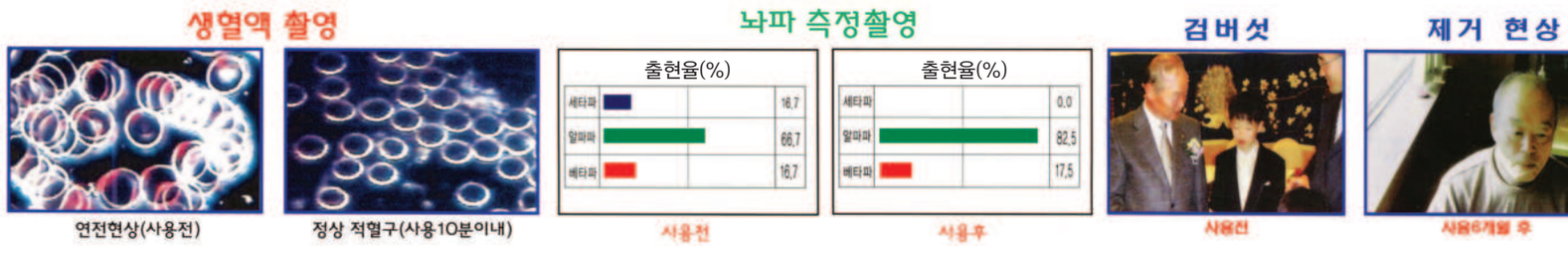
송지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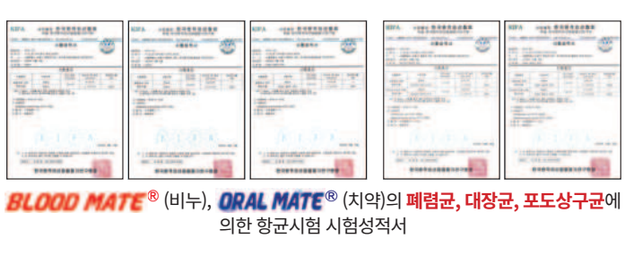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혈액을 맑게하여 혈액순환을 정상화시켜주고 혈액,세포,뇌파를 건강하게하는 게르마늄허브비누
포도상구균 99.9% · 폐렴균 99.9% · 대장균 99.9% 정균감소기능으로 아토피, 무좀, 검버섯, 뾰루지,
여드름,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 발뒤꿈치 각질개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정상적혈구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목·어깨·허리 통증과 무릎관절, 다리에 쥐나는 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나다.
※ 41년 3월생 개발자 본인은 관절 불편을 느껴보지 못했고, 안경없이 신문을 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35,000원2개 = 7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4개 = 60,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9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기후재앙 시대, 불교는

개인 실천 넘어선 정책 변화 필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과 대안

관심 · 이해서 실천 의지 생겨
일회용품 자제 등 노력도 중요
개인 넘어선 사회여론 주도해
근본적인 정책 변화 이어져야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생태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은 지난 9월 22일 불교 등 6대 종교가 참여한 '종교인 기후행동' 선언 모습.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태사회를 위한 개개인의 삶의 변화와 인식 전환, 나아가 국가와 사회 차원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일상 속에서 변화를 실천하는 대중은 그 자체로 정책 변화의 기폭제가 된다.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불자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적극적인 실천과 대정부 활동

코로나19 사태 이후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일부 대중들을 중심으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자제하고, 패트병 분리배출 시엔 비닐을 제거해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조금씩 확산되는 추세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절약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거나 콘센트를 제거하는 등의 여러 방법도 인터넷상으로 공유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작은 불편을 감수하기 위한 작은 움직임들이다.

안타깝지만 이제는 이 같은 개인적인 실천행은 기후위기를 감소시키는 데 그리 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미 기후위기는 그만큼 심각해졌고 시급한 당면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핵심은 정부 정책의 변화다. 기업을 대상으로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친환경 에너지 기반 사업으로 전환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규제와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실천하는 개인은 기후위기 극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회적 대전환을 이끌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바로 '시민의식'이기 때문이다. 일회용품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개인의 실천 자체가 기후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이와 같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대중이야말로 정부에 정책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설명이다. 기후위기를 인식한 대중들의 실천을 이끌고 그 실천을 여론으로 모아내 정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이유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변화는 점진적이기보다 대대적인 전환이어야 하기에 사회적 인식 확산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 때문에 '탄소사회'에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불교기후행동이 최우선으로 고민하는 대목 역시, 무관심한 불자들은 관심과 실천으로 이끌고, 실천하는 개인은 한걸음 더 나아가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불교기후행동은 10월 22일 서울 낙산묘각사(관음종 총본산, 주지 홍파)에서 워크샵을 열고 불교계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확산 및 실천방안 확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캠페인 참여 통한 적극성 고취

불교기후행동이 지난 6월 15일 발족한 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지역사회 내 인식전환 캠페인이다. 매주 목요일을 '불교기후행동의 날'로 정하고 단체별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를 위한 피켓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환경운동가 툰베리가 시작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에서 착안한 것으로, 매주 금요일 학교 대신 국회로 가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킨다는 취지다. 불교환경연대는 광화문 광장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시간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으며, 불교기후행동 소속 천태종 사단법인 나누며하나되기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 이밖에도 울산과 광주, 전주(전북)지역에서 불교기후행동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한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애초 캠페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사실 참여율은 저조한 수준이라는 게 실무자들의 평가다.

개인 SNS를 활용한 캠페인 동참도 추천할 만하다.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방안을 서약하는 글귀를 들고 사진을 찍은 후 게재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은 최근 유튜브 채널 '오마이붓다'를 통해 지구와 자연을 생각하는 명상절 108배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을 보고 지구와 자연을 생각하는 명상절을 체험한 후 이를 인증하는 방식의 '절 챌린지'로 눈길을 끈다.

기후위기 극복 최고 실천행, 채식

얼핏 기후위기와 채식은 무관하게 인식되지만, 사실 채식이야말로 지구를 살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선택이다. 육식 위주의 식문화를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증가할수록 축산업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석 한국채식문화원 공동대표는 "채식은 최상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의 선택으로 시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기 온실가스를 줄여 빠른 냉각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고 대표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비상사태는 인류의 과도한 살생에서 빚어진 나쁜 응보(악업)의 산물이자, 이로 인해 지구의 자기치유력을 감소시킨 데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대표는 "불교계는 이미 채식문화에 익숙하고 생명존중과 인드라망 사상 등 가르침 자체로 채식에 대한 이해가 높다"며 "일상 속 실천의지만 있다면 효과적인 변화를 이끌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불교계를 중심으로 한 채식운동 확산을 기대했다.

28개 녹색사찰 협약… 녹색 · 공유센터 운영 등

녹색사찰서 배우는 Tip

녹색사찰은 불교 생태주의 사상과 전통에 따라 운영되거나, 혹은 운영하기로 약속한 사찰을 지칭한다. 현재 28개 사찰이 불교환경연대와 협약을 통해 녹색사찰로 운영되고 있다. 기본 실천안은 크게 일상생활에서의 환경 실천과 지구를 살리는 녹색리더 양성(신도 대상 환경인식교육), 사찰 내 환경 캠페인 전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생태감수성 높이기 활동, 녹색 · 공유센터 운영 등이다.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고양 금륜사**(주지 효욱)의 경우 전국비구니회장 본각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을 당시 불교환경연대와 협약을 맺은 제1호 녹색사찰로, 이미 협약 전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협약 이후에는 법회 후 떡을 담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용기 지참을 의무화했으며, 미처 챙기지 못한 신도들에게는 사찰용기를 빌려주는 대신 벌금으로 '장학기금'을 보시하도록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등 보다 적극적인 실천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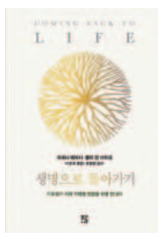
사찰음식으로 유명한 정관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장성 천진암**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눈길을 끈다. 잔반을 남기지 않는 빈그릇운동은 물론, 요리에 사용할 수 없는 야채의 꽁지 부분을 모아 채수를 만들거나 숭늉 대신 마시기도 한다.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곡물가루 등과 섞어 발효시킨 후 퇴비로 사용한다. 법회나 행사시 사용하는 꽃장식도 쓰레기가 나오는 꽃꽂이 대신 야생화를 흙에 심어 장식한 뒤, 법회나 행사 후에는 사찰 주변에 옮겨 심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천진암의 녹색사찰 캠페인.

울산 백련사(주지 천도)는 환경활동가 양성도량이다. 신도들을 대상으로 환경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법문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등 환경도량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신도교육을 통해 배출한 환경활동가들은 지역 곳곳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대중들의 인식 변화 및 실천을 이끄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구미 화엄탑사(주지 희운)는 에너지 절약의 대표주자다. 前 주지 명법 스님이 주석하던 2019년 자연 냉난방 및 온습도 조절을 위해 창문을 창호지로 변경했으며, 구미시 최초로 사찰 건물 동쪽과 남쪽 외벽에 넝쿨식물을 심어 '그린커튼'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도 등으로 눈길을 끈다. 송지희 기자

불자들을 위한 기후대책 필독서


조애나 메이시의 '생명으로 돌아가기' 모과나무

'기후위기 시대 거대한 전환을 위한 안내서'라는 부제목으로 최근 출판된 번역서로, 불교환경연대 유정길 운영위원장이 감수를 맡았다. 조애나 메이시가 제안하는 '재연결 작업'은 우리가 존재의 근본인 생명으로 돌아가기 위한 이론과 실습을 담아낸 치유의 작업이다.

특히 사람들이 세상과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이끌고 자율적으로 대전환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거대 자본의 지배로 빼앗긴 삶을 되찾는 데 목적을 둔다. 책은 '재연결 작업'의 일환으로 개인이, 또는 소모임과 워크숍을 통한 실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길잡이가 돼 준다.


데이비드 로이의 '과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때 불교가 할 수 있는 것' 불광미디어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 불교적 깨달음을 꽃피우는 최고의 방법임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생태보살로 거듭나기 위한 화두를 던지는 책이다.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실천의 이유를 찾아낼 수 있도록 이끈다. '기후변화에 관한 불교선언'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불교원리 16가지' '간단하고 실천적인 조치' 등을 부록으로 게재했다. 민정희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사무총장이 번역했다.


제레미 리프킨의 '육식의 종말' 시공사

행동주의 철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 인류에게 던지는 경고다. 육식 중심의 문화가 환경과 생태계를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가감 없이 드러낸다. 고대로부터 현재의 문명사회와 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 육식으로 인한 폐해를 담아냈다.

나아가 육식문화에서 채식문화로의 전환이 전지구적, 인류학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해인사 희랑대사상’ 보물서 국보로 승격



실제 고승을 재현한 유일한 조사상인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보물 제999호 · 사진)’이 국보 제333호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고려시대 고승의 실제 모습을 조각한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을 국보로 지정한다”고 10월 21일 밝혔다.

국보 제333호로 승격된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이하 건칠희랑대사좌상)’은 신라 말~고려 초까지 활동한 고승인 희랑대사(希朗大師, 생몰연대 미상)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다. 고려 태조 왕건의 스승인 희랑대사는 화엄학에 조예가 깊은 학승이었으며, 해인사 희랑대에 머물며 정진했다고 전해진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도움을 줬고, 왕건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해인사 중창에 필요한 토지를 하사하기도 했다.

‘건칠희랑대사좌상’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초상조각(祖師像 · 僧像)으로서, 고려 10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사한 시기 중국과 일본에서는 고승의 모습을 조각한 조사상을 많이 제작했지만, 한국에는 유례가 거의 전하지 않으며 ‘건칠희랑대사좌상’이 실제 생존했던 고승의 모습을 재현한 유일한 조각품으로 전래되고 있다.

‘건칠희랑대사좌상’은 조선 시대 문헌기록을 통해 해인사의 해행당, 진상전, 조사전, 보장전을 거치며 수백 년 동안 해인사에 봉안됐던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이덕무(1741~1793)의 〈가야산기(伽倻山記)〉 등 조선 후기 학자들의 방문기록이 남아 있어 전래경위에 대해 신빙성을 더해준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보로 지정한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을 비롯해 15세기 한의학 서적 ‘간이벽온방(언해)’ 등 총 5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도심 시민사찰 흥천사, ‘전법회관’ 문열다

흥천사 불교복합문화공간
10월 17일 전법회관 개관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개관식 테이프 커팅식 모습.

금곡 스님 “무산 스님 유지 계승”
연면적 3305㎡, 지하1층 지상3층
무량수전 아미타불 점안 법회도
남녀노소 편리한 신행 활동지원



흥천사 대방과 극락보전 등 주요전각에서 바라본 복합문화공간인 전법회관 전경.

조선조 개국 이후 창건 된 첫 왕실 원찰인 흥천사에 최신 메머드급 시설을 갖춘 전법회관이 새롭게 문을 열어 도심속 시민을 위한 불교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 돈암동 삼각산 흥천사(회주 금곡)는 10월17일 전법회관을 개관하며 아울러 무량수전 아미타불 · 지장보살 점안법회도 봉행했다. 조선의 왕실 사찰로서 위용을 떨치던 흥천사는 일제강점기와 근현대를 거치며 대처승의 불법 점유로 사세가 급감하는 등 폐사 위기에 직면했다가 2011년 10월 21일 조계종 품으로 돌아오면서 중창불사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건립된 흥천사 전법회관은 연면적 3305㎡(1000평)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어졌으며, 2016년 7월 건축설계에 들어간 뒤 4년 4개월 동안 총 126억4100여 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사찰은 지역 주민들과 하나되는 공간이 돼야 된다’는 불사 원칙으로 건립된 흥천사 전법회관은 신도 및 내방객들의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건물 구성을 살펴보면, 231㎡(70평) 규모인 지하 1층에는 지장전이 들어서 있다. 이 공간은 부모나 일가친척 등의 제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부모나 가족 친지의 제사를 집안에서 모시기 어려운 불자나 일반인들을 위해 사찰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했다. 1289㎡(390평) 규모인 지상 1층에는 사찰 종무소와 공양실(300명 수용) 겸 다실이 위치해 있다. 위로 올라가면 1057㎡(320평)의 지상 2층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는 409㎡(124평) 규모의 무량수전이 자리한다. 특히 무량수전은 법당을 가르는 기둥 없이 넓게 확 트인 구조로 동시에 1천명 이상 규모의 법회는 물론 문화공연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내부에는 몸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한 입식 의자 배치와 함께 명절 때 합동차례를 진행할 수 있는 영단도 갖췄다.

또한 무량수전 옆 공간에는 297㎡(90평) 규모의 북 카페를 비롯해 85㎡(26평) 규모의 어린이 청소년 전용 법당과 별도의 보육 공간도 마련하는 등 남녀노소 모두 신행 활동을 편안히 할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한 것도 눈길을 끈다.

맨 꼭대기에는 병으로 고통받는 불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약사전이 세워졌다. 89㎡(27평) 규모의 지상 3층은 전통 한옥 양식으로 조성됐으며,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처럼 흥천사는 이번 전법회관 불사 회향과 함께 요사채 건립이 마무리되면, 지난 2012년부터 10여년간 이어져 온 흥천사 1차 중창 불사(전체의 70%)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한편 이날 기념 법회에서는 주지 정관스님의 전법회관 불사 경과 보고에 이어 흥천사 불사도감 금곡 스님이 이번 불사에 공로가 큰 설계 회사인 김용미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와 시공사인 이무희 (주)성익건설 대표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패와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금곡 스님은 지난 10년간의 불사 과정을 설명하며 “은사이신 신흥사 조실 무산스님께서는 생전에 주민들과 이웃을 먼저 살펴라. 그분들이 부처님이라고 강조하셨다”며 “그 유지를 받들어 스님과 불자들만을 위해 도량을 넓히고 가꾸는 불사가 돼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세워 중창불사와 함께 경로잔치, 불우이웃돕기 및 장학금 지원, 무료 커피 및 생수 나눔, 경내 통행로 개방 등 지역민과 하나 되기 위한 다양한 자비실천행도 펼쳐 왔다”고 회고했다.

이어 금곡 스님은 “그동안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도량’ ‘지역과 함께 하는 도량’ ‘자연과 함께하는 문화도량’ ‘종교를 초월해 함께하고 싶은 차별없는 도량’ ‘언제나 와서 쉴 수 있는 힐링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력을 피력했다.

이날 주요 내빈으로는 손창동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류재환 전국병원불자연합회장, 명호근 어울림코리아 회장, 이채원 前 불교방송 사장, 김봉석 법률사무소 금상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경주 황용사지서 금동제 유물 대량 출토

불교문화재硏 발굴 성과 공개
금동귀면 등 20여 점 발굴돼
“황용사 위상 알게 해줄 유물”



불교문화재연구소가 경주 황용사에서 발굴한 금동제 유물 20여 점. 투조 금동귀면, 금동 사자상 등 다양하다.

경주 동대봉산에 위치한 황용사의 당시 위상을 알게 해줄 금동유물들이 대량 출토됐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는 10월 22일 경주 황용사에서 ‘황용사지 발굴조사 성과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주 황용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이며, 경주 보문단지에서 감포 방면으로 넘어가는 동대봉산(옛 은점산) 절골에 위치하고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경주 황용사지에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 시굴 ·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중심사역 서쪽구간에 대한 조사로 투조 금동귀면과 더불어 금동보당 당간 · 기단, 금동불상 대의편, 금동사자상, 금동연봉, 금동촉대 받침 등 금동제 유물 20여 점이 다량 출토됐다.

특히, 지난 조사 이후 2점이 추가로 확인된 투조 금동귀면은 기존 금동귀면과 비슷하지만 크기나 수염, 귀모양 등이 조금씩 다른것이 특징이다.

금동보당 당간과 기단부는 지금까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적이 없다. 이번 황용사지서 처음 확인되었는데,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토된 가장 큰 보당이다. 현재 리움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고려시대 보당과 비교하면 리움미술관 소장품이 73.8㎝인것에 비해 황용사 출토 금동보당은 잔존해 있는 당간부와 지주부만 110㎝로 대형이며, 시기도 황용사 당간이 앞선다.

이 같은 유물들은 창건 당시 황용사의 격이 경주 지역 내 주요 사찰과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높았던 것을 보여준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몸과 마음 쉬어가는 휴식주간 열린다

마인드디자인, 11월 5~15일 서울릴랙스위크 개최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서울릴랙스위크가 11월 5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과 서울 전역에서 펼쳐진다. 사회적 기업 마인드디자인은 2020서울국제불교박람회 기간 중 서울릴랙스위크를 개최, 명상이나 힐링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시내 90여 개 업체와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멘탈 케어’의 장을 펼친다고 밝혔다.

지난 해 첫 선을 보인 서울릴랙스위크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서울 내 치유 공간을 한 장의 지도로 엮어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그동안 명상 등의 정신문화에 관심이 있어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알지 못했던 명상 입문자들에게는 공간적, 문화적 지평을 넓혀주었다는 평이다.

올해 서울릴랙스위크에는 명상, 요가, 템플스테이, 한옥스테이, 채식, 공방, 공간 등 확장된 주제에 걸맞는 단체 90여 곳이 참여한다.

서울릴랙스위크의 오프라인 가이드맵은 서울 주요 거점 및 상점에 비치되며, 참가 업체와 프로그램은 명상 커뮤니티 플랫폼 마인드그라운드(www.mindground.co.kr)와 제휴해 소개된다. 서울릴랙스위크와 연관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내면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각종 상품을 제안하는 마인드풀마켓(www.mindfulmarket.kr)도 눈길을 끈다. 마인드디자인이 만든 마인드풀마켓은 인터넷을 통해 명상 소품을 소개하고 결제하도록 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이번 서울릴랙스위크 개최와 함께 런칭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주관단체인 마인드디자인은 박람회 기간 온라인 명상 웹컨퍼런스 ‘끌어안음’도 개최한다. 11월 5~8일 나흘간 열리는 ‘끌어안음’에서는 달라이라마, 타라 브랙, 현봉스님 등 세계적 명상지도자들이 온라인 강연에 나선다.

노덕현 기자



10월, 11월 #소규모출발 #4명부터 #5명부터 #8명부터

1박 2일
기차타고 떠나는
템플스테이

● 전남권 세계의 자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대흥사 템플스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스님, 계십니다 송광사(순천) 템플스테이
절로~ 절로~ 무등산 정기 받으러 가자 증심사 템플스테이

● 전북권 나는 쉬고 싶다 I want to Rest 금산사 템플스테이
사람 그리고 자연과의 동화 내소사 템플스테이
선운사 가을 숲속에서 休 선운사 템플스테이

● 경상권 지리산 자락 하동의 무릉도원 쌍계사(하동) 템플스테이
내 마음의 생각을 봅니다, 직지in心 직지사 템플스테이

※코스별 세부 일정은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공통포함사항 : 왕복 열차비, 연계차량비, 관광지 입장료, 템플스테이 체험비, 가이드비, 온누리상품권

문의 1544-7755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www.korailtravel.com) 또는 앱

기장 장안사, '불교 문화재' 환지본처

국가 귀속 출토 문화재 548점 소유권 반환받아

2013년부터 4차에 548점 출토돼 문화재청 소유, 장안사 문제제기 발굴 문화재 소유권 중요한 선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장안사 주지 무관 스님은 10월 20일 해동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굴한 문화재의 소유권을 재지정 받고 돌려받음을 밝혔다. 사진은 장안사 출토 문화재.

기장 장안사가 경내에서 출토된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장안사 주지 무관 스님은 10월 20일 장안사 해동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3년부터 출토된 발굴문화재의 소유권을 재지정 받고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불교계는 그동안 문화재가 경내에서 발굴되어도 관리 능력 소홀 등의 이유로 국가가 문화재를 귀속해 소유권을 돌려받는 경우가 전무했다. 장안사 문화재 소유권 반환으로 문화재 관련 불교계의 소유권 지정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주지 무관 스님은 "불교 문화재는 단순히 역사를 담는 의미인 문화재를 넘어서 '성보(聖堡)의 가치'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번 소유권 반환은 그 가치를 담는 중요한 첫 시작이다"고 역설했다.

장안사 문화재 발굴은 2013년 7월 복원정비 및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시굴조사 과정에서 76점의 문화재가 확인되며 시작됐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차 발굴조사가 진행됐으며, 251점의 유물이 발견됐다. 당시 장안사 창건 시기인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유구(遺構)가 출토되는 성과를 냈다. 이어 2016년 12월부터 2차 발굴조사가 시작돼 2017년 3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91점의 유물이 발굴됐다. 또 2020년 4월부터 7월 6일까지 3차 발굴조사가 진행됐다. 장안사에서 발굴된 문화재는 명문 암막새와 명문 백자 등 제작연대를 보여주는 토기류와 스님들의 수행 및 옛 생활을 보여주는 백자 접시, 분청 도자기 등이다.

장안사의 이번 문화재 소유권 반환은 주지 무관 스님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무관 스님은 주지 취임 후 조계종 문화부와 논의, 출토 국가귀속유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제기했고 문화재청에 발굴조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7월 20일 장안사는 소유권 판정 신청을 문화재청에 접수했고, 문화재청은 9월 29일 장안사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장안사에 출토유물을 반환한다고 보고했다.

무관 스님은 "3차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출토유물 130점도 추가로 모두 반환받기로 했다"며 "반환된 유물은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보존하고 학술연구에 기여토록 하겠다. 불자들의 신심 고취에도 활용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세계문화유산 인근 채굴사업 논란 확산

통도사 10월 18일 반대운동 영축환경위 위촉


통도사는 10월 18일 주지실에서 영축환경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채굴 사업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을 천명했다.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인근서 채석·채굴 사업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한 지역 개발사업이 주관하는 채굴사업이 통도사 서운암과 자장암 뒤편 산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양산 통도사(주지 현문)가 반대운동에 나선다.

양산 통도사는 10월 18일 주지실에서 영축환경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채굴사업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을 천명했다.

영축환경위원회 위원장은 통도사 사회국장 성오 스님이 임명됐으며 호법국장 천주 스님, 밀양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 통도사 재적승 세봉 스님, 이병인 교수(부산대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함세영 교수(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홍석환 교수(부산대 조경학과), 최송현 교수(부산대 조경학과), 구자상 부산환경운동연합 대표, 김점복 양산국유림관리소 소장, 강채원 시민환경운동가, 심규명 변호사 등 12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이번 영축환경위 위원 위촉식에서 주지 현문 스님은 1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의 자연과 수행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도사 인근 채굴사업은 A개발사업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채석사업 신청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준비 중에 있다.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는 정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며 통도사 인근 채석단지 사업 지정신청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통도사 인근 채굴사업 예정지인 상북면은 통도사 창건설화에 등장하는 오룡골 인근이다. 통도사는 "세계문화유산 통도사는 세계가 인정하는 산지승원으로서 1370여 년 동안 청정한 수행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무형의 가치 있는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찰"이라며 "이러한 산지승원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는 영축산의 자연과 통도사의 수행환경을 보존하고자 2013년 1월 발족됐다. 같은 해 2월, 위촉식을 갖고 당시 환경 이슈였던 밀양얼음골케이블카 건설과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어 6월에는 밀양 송전탑 건립반대 현장을 지원하고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환경 보존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개산대재, "호국성지로 지속 발돋움"

범어사 10월 18일 개산 1342주년 개산대재 봉행


부산 범어사가 10월 18일 대웅전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개산 1342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10월 18일 대웅전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개산 1342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개산대재는 육법공양과 삼귀의 및 헌화, 헌다, 인사말 등 간소하게 진행됐다.

주지 경선 스님은 국보로 승격된 삼국유사를 설명하며 "범어사의 창건과 의상대사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삼국유사가 국보로 지정된 것은 시절인연이 도래한 경사스런 일"이라며 "성보를 보존하고 가치를 드러내는 일은 과거의 지혜를 전승하는 대작불사이자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년의 세월동안 꺼지지 않는 법등을 이어 온 범어사다. 개산의 참뜻을 알고 불자들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수관 범어사 신도회장은 "범어사는 험난한 한국사에서 불교와 민족을 지킨 호국도량이다. 오늘날 한국은 코로나 19로 인한 고통과 이념 갈등 및 이기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상대사의 개산 의미를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극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이번 범어사 개산대재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대중들 참여가 제한됐다. 대중들은 마스크를 끼고 발열점검과 손소독을 한 후 행사장에 입장했다.

한편, 범어사는 개산대재 후 제120회 보살계 수계산림을 보제루에서 봉행했다. 매년 봄에 진행되는 보살계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연기, 계의 소중함을 알리는 법회로 회향됐다. 보살계 삼화상은 전계대화상 경선 스님, 갈마아사리 정여 스님, 교수아사리 보문 스님이며 존증아사리는 대오 스님, 석경 스님, 원타 스님, 의정 스님, 공마 스님이 맡아 계를 내렸다. 경선 스님은 "행복하게 불심으로 살아라는 것이 보살계 정신이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종자가 불성"이라고 설법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광주 증심사 취백루 보수공사 회향

광주 증심사(주지 중현)가 10월 17일 전통문화관인 취백루 보수공사 회향을 갖고 광주의 새로운 문화명소로 거듭나기를 기원했다.

건물 노후화와 난방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취백루는 3개월의 보수공사를 마치고 새 단장을 했다. 공사는 1층 종무소의 현대화로 진행됐다. 여기에 회의실을 비롯해 신도들의 문화공간이었던 2층은 바닥 난방과 주변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창문으로 교체하고, 현대식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 품격과 현대적 조화가 더해져 눈길을 끈다.

개관 테이프 커팅식에 이은 기념식에서 주지 중현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취백루는 전통과 문화를 함께하는 공간이다. 지금까지 했던 불교대학, 템플스테이 체험을 더 잘할 것이며, 여기에 광주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도들의 문화적인 공간인 신행생활 뿐만 아니라 미술치료,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회주 진화 스님도 현판 글씨를 써주신 학정 선생과의 일화를 설명하며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담겨있다. 이 시설을 잘 써야 그러한 보람이 있다"라고 격려했다.

행사에는 회주 진화 스님, 중현 스님,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대중이 참여했다.



한편 취백루는 고려시대에 존재했으나, 1607년 정유재란 때 소실된 것을 광해군 원년인 1609년에 중창하면서 정문 2층 누각으로 복원됐다. 이후 1951년 한국전쟁 때 전소됐으나, 1998년에 재차 복원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찰음식 드시고 코로나19 퇴치를"

정암사, 10월 22일 대구의료원에 사찰음식 도시락 전달



정암사 불자 대중들이 10월 22일 대구의료원에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위치한 정암사(주지 대현)가 10월 22일 대구의료원(병원장 유완식) 라파엘 웰빙선터에서 사찰음식 도시락 400개를 전달했다.

이날 정암사서 마련한 도시락은 17년간 지역 봉사활동을 하는 주지 대현 스님이 코로나19 퇴치에 힘쓰고 있는 대구의료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안하며 마련됐다. 총무 진묘 스님과 신도회 배태순 씨 등 봉사자 10여 명이 사찰음식으로 도시락을 준비했다.

정암사 주지 정암 스님은 "코로나19 사태동안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한끼 식사라도 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찰음식으로 도시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구의료원 유완식 병원장은 "스님들을 비롯한 불자들이 전해 준 음식에서 따스한 마음이 느껴진다. 의료진들을 대표해 감사하며, 코로나19 퇴치와 환자 보살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도 10월 19일 부산의료원을 방문해 사찰음식 도시락을 전달했다. 도시락은 600인분으로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을 비롯해 신도 100여 명이 준비한 것이다. 홍법사 사찰요리 도시락은 매년 개산대재를 맞아 진행하던 사찰요리 축제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취소하고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회향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포산승가원, 블랙야크에 승가공양 받아

제주 약천사 무료시설인 영천시 효자로에 위치한 포산승가원(원장 덕조)은 10월 16일 블랙야크(BLACK YAK) 강태선 대표로부터 동절기, 스님들에게 필요한 신발과 발열조끼 등을 후원받았다.

이날 블랙야크에서 마련한 승가공양 물품은 스님들을 위해 특별 제작한 신발과 워크웨어 S-발열조끼 등 300여 만원에 해당되는 물품들로 겨울철을 맞는 스님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꼭 필요한 물품들이다.



포산승가원장 덕조 스님은 2018년 8월에 준공된 승가원의 소개와 평소 승가복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약천사 신도회 명예회장인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특별히 승가원에 입주한 노스님들을 위해 많은 성원해 주심을. 수행과 정진에 더욱 매진해 그 고마움을 회향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은 "평소 승가복지에 관심이 있어 오늘 작은 정성에도 포산승가원에 주석하고 계신 스님들께서는 분에 넘치게 환대해 주시니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모든 일에 성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064)738-5000

손문철 대구지사장

표충사, 제554회 사명대사 추계 향사

호국성지 표충사가 사명대사 추계향사를 봉행하며 코로나19 소멸,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표충사(주지 진각)는 10월 21일 경내 성보박물관 앞 특설무대에서 '제554회 호국대성 사명대사 추계향사를 개최했다.

향사에는 통도사 전 주지 원산 스님, 표충사 전 주지 청운 스님,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 울산 월봉사 주지 보화 스님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동참했다.

추계향사는 △개회사 △명종5타 △삼귀의례 및 반야심경 △헌향 △헌다 △종사영반 △헌화 △추모사 △주지스님 인사말 △공지사항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진각 스님은 "재약산 붉은 단풍이 마치 호국대성 사명대사의 뜨거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듯하다"며 "어느 때 보다 어려운 현재 사명대사의 호국정신과 불교의 대자비심을 기리는 제554회 추계향사를 봉행하게 됐다"고 인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모은중경언해' 문화재 지정 고불식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이 올해 전북유형문화재 270호로 지정된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의 고불식을 봉행했다. 10월 18일 금선암 극락보전에서 봉행된 고불식은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을 비롯해 여래향사 성찬 스님, 완주 대각사 혜공 스님, 제천 대각사 주지 백운 스님, 여래향사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안준아 금선암 신도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오종근 전북불교네트워크 대표, 김용상 자비공덕회 집행위원장과 불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고불식에 앞서 여래향사 성찬 스님의 금선암 본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의 판각시기와 문화재 지정사유, 판본 유래 등 특징과 중요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은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본의 경판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며 " 금선암에서 매년 10월 정대불사와 효행문화제를 개최해 효행상을 제정하는 등 효행실천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불 논단

자살 이제 그만 STOP!



선업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지난해 13799명 자살로 사망해
자살 증가 추세… OECD서 1위

자살은 단순한 개인 문제 아냐
자살자 1명에 6~7명 영향 받아
유족들 우울 · 불안 증세 시달려

종교계 단체들 자살예방에 동참
불교, 유족 템플스테이 등 진행
자살 유가족 배려에 더욱 힘써야

2020년 통계청의 '2019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만3천799명이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에 비해 자살사망자가 129명이 증가하였고, 자살사망률도 26.6명에서 26.9명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은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순위이고 40대와 50대에서는 사망원인 2순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자살예방협회에 의하면, 자살사망자의 발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살 이후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개인이 이 세상에 살다가 스스로 죽어서 없어지는 일이라고 간단히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살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람은 스스로 태어나 혼자 살다가 홀로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는 1명의 자살사망 발생으로 인해 6~7명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는데, 2019년 자살사망자로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한해 발생되는 유족의 수는 최소 8만 명을 상회하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자살유가족이 겪는 고통을 토인비는 죽음이 가하는 고통은 양날의 검과 같은데 죽은 사람보다는 살아남은 사람에게 더 날카로운 날이 돌아간다고 묘사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살 유가족은 가족의 갑작스러운 자살로 인한 충격과 더불어 폭발적인 감정 상태를 가지게 된다. 이들은 애도의 감정을 표현하기 힘들어 하고 강한 죄책감, 분노, 수치감, 무력감을 가지게 되며 부정적인 편견 때문에 자살 사실을 가까운 이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스스로 소외되게 된다. 그 결과 적절한 애도 과정을 경험할 수가 없어서 우울, 불안, 자살시도 등과 같은 정신건강과 관련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살유가족은 일반인보다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약 6~7배 정도 높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매년 발간하고 있는 '정신건강사업안내서'에 자살유족에 대한 서비스를 명시하고 있으며, 유족 심리부검 사례 발굴 및 면담 진행, 대외 협력 및 유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도 포함하여 기술하고 있다. 또한 자살예방사업 업무실적에서도 자살유족의 상담 관련 실적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더불어, 지자체의 관심에 따라 다양한 자살유족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자살유족모임인 '자살유족 작은 희망나눔으로 무르익다(약칭 자작나무)'를 2008년부터 설립 ·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유족의 건강한 애도를 위해 애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종교계도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인 '라이프호프'에서는 자살유가족을 위한 상담서비스와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2020 세계 자살유가족의 날'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곳들이 여러 곳이다.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는 '내 손으로 얘기함(얘기해요. 기억해요. 함께해요)을 전해요' 해시태그 이벤트를 하고 있으며 라이프호프에서는 11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세계 자살유가족의 날 문화행사를 홍보하고 있다.

불교계도 올해 자살유가족을 위한 템플스테이와 명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자살유가족을 위한 월례모임과 명상치유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불교계의 움직임도 느린 듯 큰 걸음이 되길 바란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명상 · 기도가 주는 변화

우리는 대체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을 하고, 직장인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고, 자영업자는 사업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의 비결은 특별한 데 있지 않습니다. 지장보살처럼 상대의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일처리를 못해서 답답할 때 불만불평을 하지 말고 그의 모자란 부분을 메워주십시오. 상대의 약점을 메워주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면 자기 능력도 신장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은 뇌파를 움직입니다. 우리가 여행지에서 신선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도 새로운 환경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대할 때마다 고맙게 반갑게 여기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사람은 늘 생생하고 행복하고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열정적인 삶은 의식을 깨우고 몸도 깨웁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적극적인 생각과 열정적인 삶은 건강과 번영, 행복을 부릅니다.



그림 · 최주현

화분에 심은 꽃나무를 하루종일 그늘에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햇빛을 쪼여주면 더 싱싱하게 자랍니다. 밝은 햇빛은 식물에게 초록색을 주고 그 꽃에게 갖가지 색깔을 주며, 그 열매에 고운 빛과 달콤한 맛을 줍니다.

이처럼 마음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빛이 본래 내재되어 있는데, 모를 뿐입니다. 우리에게 내재된 빛을 꺼내 쓰는 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손으로 쓰는 등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일심으로 할 때 무한한 빛이 솟아납니다.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나는 밝고, 명랑하고, 건강하다. 나에게는 모든 장애가 없다. 나의 생명의 원천인 마음속에 솟아나는 것은 찬란한 기쁨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굳은 신념이 생기고 열정을 낳게 됩니다. 기도로 생긴 열정은 마치 전등을 밝히고, 동력을 만들어내는 발전소처럼 인간의 원초적인 힘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음이 바뀌면 몸이 변화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신념이 생길 때 룰리베린 황체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 혈관 속에 흘러들어 와 인체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또한 뇌에서는 페타엔돌핀, 멜라토닌, 디멜틸 트립타민(DMT)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정확하게 8Hz의 파동으로 심장을 진동시키고, 뇌에서도 8Hz의 파동이 일어나서 마음은 계속 환희롭고, 몸 전체의 기능이 활발해져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명상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늘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불교, 기후위기 적극 대응하자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의 시대다. 급증하는 탄소 배출량의 영향으로 매해 상승하는 기온은 이상기후로 이어져 북극의 빙하를 녹이고 전세계적인 자연재해를 야기했으며, 이로 인한 아프리카, 시리아 등지의 수많은 민족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기후난민으로 전락했다.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변화는 더디다. 코로나19 사태 역시 기후위기의 대표적 사례이자 재앙의 시작일 뿐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 또한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시급한 인류과제 앞에서 생명존중과 인드라망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의 역할이 그리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의외다. 불교기후행동이 발족하고 일부 활동가를 중심으로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대다수 불자들은 여전히 무관심 속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때다.

불교는 실천의 종교다. 기후위기 속 고통받는 지구와 지구에 깃든 생명붙이들, 그리고 더 어려워진 소외이웃들을 위해 불자들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개인의 실천은 기본이다. 실천행을 딛고 나아가 여론을 결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대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가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쓴 채 지구를 병들게 할 지, 아니면 생태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어 생명과 인류의 소중한 터전을 지키는 데 앞장설 지가 우리 불교계에 달렸다는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으로 돌아가 나와 자연이 둘이 아님을 아는 불자들이, 사회적 인식전환을 주도하고 정부정책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

승가 통일 교육 빠른 도입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지만 통일교육 경험이 부족하고 방북 경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종단 차원의 통일인식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요구된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10월 19일 공개한 '조계종 교역직 스님 대상 통일의식 설문조사'는 44명의 종단 소임 스님들이 응답한 조사로 비록 설문대상이 작지만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양한 설문조사 중 눈에 띄는 것은 대부분의 스님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지만, 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스님은 25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번 설문조사를 보면 남북불교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스님들 중 대부분이 남북간 신뢰 회복 및 평화분위기 조성 기여를 들었다. 북한 불교문화재 관련 교류나 불법 전파 및 포교 등은 상당히 낮은 응답이 나왔다. 이는 남북불교교류가 국가 통일 사업의 일환임을 불교계 내부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동안 조계종은 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통해 남북불교교류를 이끌어 왔다. 남과 북이 경쟁국면인 가운데서도 꾸준히 교류를 위한 준비와 의식 개선 등에 앞장서 왔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불교 내적으로는 지속적인 통일교육에 관한 필요성이 높아보인다.

통일사업은 인내의 과정이라고 일컬어진다. 남북평화를 위한 끝없는 길이다. 이런 길에서 인식개선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통일교육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이 빠르게 이뤄질 때 승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불교교류가 장기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관음전불사 및 불상구입자금 후원 안내



만월 (2mm 크리스탈 13만개로 조성된 석가모니불)
- 주지 행만스님 작 -

귀의삼보하옵고!
해외,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30년 동안 모셔온 불상이 4,000여점이 되었습니다.
소승이 모셔온 불상은 간다라 불상 및 마투라불상은 기원전으로부터 송나라, 명나라에서 청대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기원을 잘 볼 수 있도록 관음전 삼보전시관을 불사하기로 석가세존전에 언약하였습니다.
이중 티벳 불상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네팔, 일본, 태국 등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원사 관음전 삼보 전시관은 국내 유일한 티벳 불상 전시관이 될 예정이며 아직 성취관에 전시되지 못한 희소성이 많은 티벳 불상 600여점이 빛을 못보고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희소성을 간직한 티벳의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을 불사하여 불상의 기원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불, 보살님과 살아온 60여년의 세월, 38세에 불원사를 창건하다가 쓰레기더미에 있는 온도계 수은에 찔려 왼팔을 잃고 하루 한끼의 공양만으로 1000일 수행정진하다 뇌졸중을 쓰러지고 지금은 경동맥 협착증으로 훼손된 불상복원과 오색 크리스탈 개금, 창작개금 으로 한팔 잃은 스님으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젠 불, 보살님 크리스탈 개금으로 사군자, 십장생, 일월도를 새겨 놓고 있습니다.

소승의 목표는 동남아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에 전시하는데 있으며 임종 그날까지 단 한분의 불상을 수집하는데 일념을 다하고 임종 시 무일푼으로 세상과 하직 하겠습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은 초지일관 수행을 통하여 동남아 각국 불, 보살님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소승이 불사를 하지 않으면 불원사에 계신 불, 보살님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기에 관음전 삼보전시관 후원을 불자님께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기원전, 진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국시대의 희귀불상 수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로서 전국 불자님들의 동참과 호소합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에 불, 보살님을 정좌케 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관음전 불사 후원 및 고 불상 불, 보살님을 모실 수 있는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사오니 소승은 마음을 빌어 청 하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동기간에 우애하며 부부간에 화합하고 자손에게 사랑받고 육신은 병마, 액운 없이 건강장수를 기원드립니다.
불, 보살님의 가피로서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宣悳 행만 합장

◈ 본 사찰은 약사여래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원력을 행하시고 계시는 원력도량입니다. ◈

※ 후원 접수처 : (054)249 -1023 휴대폰 : 010-4504-0174 ※ 새마을금고 : 9003-2169-3217-0 예금주 신재훈

포항 불원사 성취관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bulwonsa) 성불하십시오.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354번길 7-7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21~10/2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적명을 말하다 (선사들이 들려주는 수좌 적명의 삶)	유철주	사유수	6	우리말로 읽는 부처님 말씀 능엄경	각성스님 / 용하스님	비움과소통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코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7	데즈카 오사무의 붓다 : 깨달음 이야기	데즈카오사무 / 정상교	바다
3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 / 현천스님		선요가	8	티베트 사자의 서 (개정완역)	빠드마쌈바와 / 중암스님	불광출판사
4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9	명상수행의 바다 (맛지마니까야 엔솔로지)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5	회집본 무량수경 : 유쾌하고 풍성한 정토세상	도암스님	맑은소리맑은나라	10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

책세상

힘겨운 오늘 위로하는 깊은 반조

〈返照〉



오늘의 발끝을 내려다본다

주석 스님 지음/ 담앤북스 펴냄

1만4천원

'들여다봄'의 위로 · 공감 에세이

대중과 호흡하면서 느낀 이야기

잡지와 신문 밴드 글 모아 출간

"지금의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해"



저자 주석 스님.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코로나가 삶을 위협해도, 억수 같은 비가 모든 것을 집어삼켜도, 살아 있는 한 우리는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사랑을 하고 또 꿈을 꿉니다."

부산 대운사 주지 주석 스님이 첫 산문집 〈오늘의 발끝을 내려다본다〉를 출간했다. 책은 스님이 그동안 불광, 국제신문, 불교신문 등 잡지와 신문에 기고한 글과 밴드에 올린 글 등을 묶은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오늘을 이야기하고 그 힘겨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를 이야기한다. 세상을 바라보고 대중과 소통했던 순간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글들은 생활 속에서 접한 직접적인 경험담뿐만 아니라 벽에 걸린 그림이나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성찰하는 반조의 순간도 섬세하고 진솔하게 그리고 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과 인연', '내 마음'을 주제로 한 이야기, 수행하고 신도들과 함께 공부하는 출가자로서의 일상도 이야기한다.

주석 스님은 종교가 일상과 괴리된 것이 아니며 음악, 문학, 예술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전시와 콘서트 등 다양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 '쿠무다'를 운영하고 있다. 책은 저자가 종교와 일상의 경계를 허물고 수행자와 한 인간으로서 대중과 호흡하면서 느낀 사람살이, 세상살이, 그 속에서 깨닫게 된 지혜와 이해, 그리고 자신과 대중에게 보내는 따뜻한 위로와 공감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돌담을 쌓는 석공을 보고 '조화로운 세상'을 생각하고, 선물로 받은 음악 파일에서 '고정관념'을 깨닫게 됐던 스님은 글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중 모두에게 필요한 위로를 전한다.

그런 스님의 위로는 자신의 일상과 인연들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는 '들여다봄'에서 왔다.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모두가 겪는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깨달은 이야기들이기에 독자는 책을 읽는 순간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글을 '들여다봄'이라고 정의했다. 스님의 '들여다봄'은 지혜가 되고, 그것이 모두의 일상을 다시 비추는, 반조(返照)로서의 책이 된 것이다.

책은 가로 12cm, 세로 19cm 크기로 손에 가볍게 잡힌다. 편하게 쉴 때 틈틈이 읽을 수 있길 바라는 스님의 의도다. 책은 총 3개의 제목으로 구성됐다. '내 마음 담은 너의 표정', '내 마음의 잔물결', '오늘은 햇살 한 잔 어때요?'이다. 3개의 제목은 내용적인 분류보다는 글이 실린 매체별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어느 페이지든 읽고 싶은 부분을 선택해 편하게 읽으면 된다. '내 마음 담은 너의 표정'은 〈불광〉, 〈해인〉 등 불교잡지와 밴드에 올린 글들을 묶었다. '내 마음의 잔물결'은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등에 기고한 글이다. 그래서 종교색은 최대한 배제했다. '오늘은 햇살 한 잔 어때요?'는 불교신문에 실었던 글을 모았다. 출가자로서의 수행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드러난다. 책 사이에는 시처럼 짧은 글이 삽입되어 있다. 밴드 회원들과 소통하며 짧게 나눴던 글이다. 책을 구성하는 기고 원고와 절묘하게 어울려 이야기의 여운을 더한다. 특히 책 표지 프로필 아래 QR코드를 찍으면 스님의 목소리로 책의 내용을 직접 들을 수 있다. 매주 한 작품 씩 스님이 직접 녹음한 음성으로 업로드 될 예정이다.

주석 스님은 "과거는 흘러가는 것이고 미래는 오지 않은 것이다. 과거의 고통과 미래를 걱정하며 다가오지 않은 시간들을 걱정하지 않고 오롯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공유하고 싶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처럼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다"고 말했다.

스님은 '오늘의 발끝을 내려다본다'를 제목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의 발끝'이란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한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지금 이 순간으로 돌이켜 자신이 서있는 곳을 바라보라는 당부이다.

주석 스님은 "도반스님과 책은 절대 내지 말자는 약속을 할 정도로 출판을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시절 인연으로 이렇게 책이 나왔고 세상과 만나게 됐다"며 "미래는 이렇게 알 수 없으니 지금 이 순간 제대로 웃자"고 했다.

주석 스님은 1988년 법주사 수정암에서 승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현재 스님은 BBS 불교방송에서 '주석 스님의 마음대로(大路) 라디오'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으며 대운사 주지, 문화예술법인 쿠무다 이사장을 맡고 있다. 스님은 문화 포교의 파격적인 포교법을 제시하며 새로운 포교를 선도하고 있다. 스님이 운영하는 문화예술법인 쿠무다는 음악, 미술을 포함해 모든 예술 분야를 포용하고 불교라는 종교를 넘어서 불교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의 모범을 보여준다. 새롭게 건립하고 있는 쿠무다 명상문화센터(가칭)는 예술인을 위한 공연장, 명상센터, 북카페, 방송국, 바다법당 등 말 그대로 모든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장소다.

詩로 읊은 10 · 27의 슬픔



군화에 짓밟힌 법당

혜성 스님 / 동쪽나라 펴냄 / 1만원

"아무리 빌어도 자꾸 왜 이러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 내가 죽을께요. 정말 맞아 죽고 싶지는 않아요. / 아무리 아프다고 소리 질러도 소용이 없다. 참고 참고 견디다 못해 또 죽을 힘을 다해 비명의 소리를 질러본다."

'10 · 27 법난'은 한국 현대불교사에서 슬픈 사건 중의 하나이다.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슬픈 역사를 엄숙하게 생각해보는 시집 한 권이 출간됐다. 당시 피해 당사자였던 혜성 스님의 〈군화에 짓밟힌 법당〉이다.

10 · 27 법난은 1980년에 신군부 세력이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군인을 동원하여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 5천여 곳을 수색하고, 조계종의 스님 및 불교 관련자 150여 명을 강제 연행하여 고문, 취조한 사건이다. 법난이 일어났던 당시 모든 국내 언론은 신군부가 발표한 내용을 사실로 보도했고, 이에 따라 법난 피해자들은 신체적인 고통에 더하여 정신적인 고통까지 입게 되었다. 당시 서울 삼각산 도선사의 주지였던 혜성 스님은 당시 가장 큰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다. 스님은 계엄군에 연행되어 폭압적인 조사를 받았으며, 출감 후 입적할 때까지 고문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1989년 11월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건이 국가에 책임을 있음을 인정했고, 2018년 4월 1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불교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혜성 스님은 법난 이후 틈틈이 작은 공책에 자신의 소회를 적었다. '일기'라고도 할 수 있고, '시'라고도 할 수 있는 67편의 글은 1997년 청담문도회 주관으로 간행된 〈진불장 이혜성 스님 회갑 기념 불교 문집-이 마음에 광명을〉에 실렸다.

이번 책은 1997년 간행 문집에 실렸던 글과 당시 취재 기자, 불교전문 사회학자, 문학인이 쓴 글들을 묶은 것으로, 10 · 27 법난 당시 혜성 스님을 비롯한 피해자에게 가해졌던 끔찍한 가혹행위와 그것을 감내하는 피해자의 생생한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이해하고 용서하고자 하는 감동적인 시들도 볼 수 있다. 더하여 혜성 스님의 일생을 정리한 글, 10 · 27 법난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글과 이번 시집에 나타나 있는 스님의 육성을 문학적인 입장에서 분석한 글들을 부록으로 실었다. 이번 책은 '시집'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됐지만 문학적인 가치로서만이 아니라, 한 인간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남긴 생생한 육성과 법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0 · 27 법난의 역사적 교훈과 의미 그리고 아픔과 통곡이 보다 많은 대중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혜성 스님 詩 60여 편

기자 · 문학인 등의 글도 실어

가혹행위 감내한 생생한 육성

혜성 스님은 1937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다. 대전공업고등학교, 실달승가학원을 거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세에 청담 대종사의 제자로 출가한 뒤 혜성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이후 스승을 따라 한국 불교의 정화불사에 헌신하였으며, 1964년 도선사 주지로 취임해 도선사를 한국불교 최대 사찰 중 하나로 일구는 한편, 조계종의 주요 직책을 맡아 한국불교의 진흥에 크게 기여했다. 중앙승가대 학장으로 부지 5만평을 학보하고 당해 대학을 4년제 대학 학력인정 각종학교로 인가받았으며, 청담중고등학교와 혜명복지원을 설립하고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신당어린이집 원장을 맡았다. 1980년 10 · 27 법난으로 한 달 동안 고문과 취조를 당했으며, 강제로 도선사 주지 직과 함께 승려 자격을 잃었다. 후에 승려 자격을 회복했으나 당시의 고문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 2018년 7월 25일 도선사 염화실에서 원적에 들었다. **박재완 기자**



QR코드를 찍으면 저자의 목소리로 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
사람살이
나누는

다정한 문장들

이 글은 제 나름의 '들여다봄'입니다.
부족하지만 세상으로 한 걸음 다가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만물의 이치를 하나둘 배워가려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진 것입니다.

_머리말 중에서

주석 스님의 첫 에세이

오늘의 발끝을 내려다본다

주석 지음 | 220쪽 | 양장 제본 | 14,000원

| 주석 스님은

부산 대운사 주지 및 문화예술법인 쿠무다(KUmuda)의 이사장이다.
BBS「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BTN「세상만사 우리들의 토크쇼」를 진행했으며,
현재 BBS「주석 스님의 마음대로 라디오」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방송과 기고 활동 외에도 쿠무다 밴드를 통해 일상의 소중함과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담앤북스 문의 02)765-1251 가까운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日, 11세기 불화 '상품상생도' 발견

세계문화유산 뵤도인 법당 조사과정서

현존 最古 '구품내영도' 보유
수리시 분해된 附材 조사 중
X선 · 적외선 촬영 등 과정에서
육안으론 안 보이던 불화 확인

박영빈 객원기자

세계문화유산이자 일본 불교정원의 대표격으로 알려진 천년고찰 뵤도인(平等院)에서 잊혀졌던 불화가 발견됐다. 지난 10월 12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교토신문' 등은 이 놀라운 발견을 특별 보도했다.

교토부 우지(宇治)시에 소재한 뵤도인은 1052년, 당시 일본 최고의 세도가였던 후지와라 가문의 별장을 개조해 세워진 사찰이다. 창건 당시의 규모에서 대폭 축소되었으나, 아미타불을 모신 봉황당(鳳凰堂)은 〈관무량수경〉에서 설하는 극락세계를 그대로 재현한 '정토식 정원' 으로 1994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창건 당시 봉황당의 벽면에는 일본에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구품내영도(九品來迎圖)' 가 그려져 있었다. 구품내영도는 아미타불이 염불수행을 한 이들을 극락에서 맞이하는 모습을 9가지로 설명하는 그림이다.

그러나 봉황당의 구품내영도는 17세기에 이루어진 중수과정에서 원래의 자리에서 철거되어 별도로 보관되어 왔다. 1950년대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수리와 학술조사에서 3쌍 6매 나무벽에 그려진 내영도들이 창건 당시의 불화로 명확한 시기가 밝혀지면서 일제히 국보로 지정됐다. 이후 수리 중에 분해된 고재와 부재들은 별도로 뵤도인 박물관에서 보관해 왔다.

지난 2018년 보존처리를 위해 보관 중이던 부재들을 조사하던 중 새로운 그림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듬해부터 부재들의 표면에 대한 X선과 적외선 촬영 등을 통한 전체조사가 진행, 최종적으로 보관 중이던 부재에 '상품상생도(上品上生圖)' 가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높이 4.7m, 폭 1.6m의 부재는 본래 봉황당의 정면 중앙에 있었던 문으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문의 중앙부분에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보살들과 극락세계의 누각들을 묘사한 그림과 산수화가 일부 발견됐다.


그림이 발견된 중앙문 부재앞에서 상품상생도를 설명하는 카미이 몬쇼 주지스님.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조사를 담당한 도쿄문화재연구소 측은 "본래 중앙문의 좌우 벽에 상품중생도와 상품하생도가 그려져 있었기에 상품상생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존재했던 부분"이라고 전했다.

12일 뵤도인 경내 박물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미술사학자 카스야 마코토 교수는 "무수한 불보살이 화면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구도로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존하는 상품상생도가 12세기의 작품이기에, 이번 발견은 가장 이른 시기의 작례로 중요하며 당장 국보로 지정돼도 이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견을 접한 전문가들도 "뵤도인의 건축구조가 극락세계를 지상에 재현한 것으로 유명한데, 그 실내까지 극채색의 불화로 완벽하게 극락정토를 장엄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뵤도인의 주지 카미이 몬쇼 스님은 "구품내영도는 말법의 세상에서 구제를 바라는 사람들의 기원이 담긴 그림이다. 종교화로서도 대담하고 독창적인 구도로, 이러한 명작이 다시금 발견되어 매우 놀랍고 또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상품상생도의 발견을 계기로 다른 구품내영도에 관한 조사결과와 사진, 그림 등도 뵤도인 박물관에서 특별 공개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 종교문서 발간 검열 '논란'

정부 검토 없는 발간 금지
불교 등 종교 탄압 강화돼


검열이 시작된 이후 모든 불교 서적이 서점에서 사라졌다. 사진출처=비터윈터

중국의 종교 자유와 인권을 다루는 전문 온라인 매거진 '비터윈터' 는 10월 19일 중국정부의 새로운 종교 탄압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검열을 받지 않은 모든 종교 자료의 출판, 복사, 배송을 금지했다.

지난 9월 14일 허난성의 중심지인 뤄양시의 교육환경보호국은 미승인 종교 자료의 발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 인쇄소에 대한 긴급 시찰에 나섰다. 시찰을 받은 한 인쇄소 사장은 "정부는 금지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쇄소 창고를 점검하고 모든 기록을 면밀히 조사했다. 심지어 바닥에 버려진 종이까지 전부 살펴봤다. 미승인 자료가 발견되면 벌금형, 최악의 경우 폐업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사장은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에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적혀있지만 실상은 공산당의 허가가 필요하다. 시내 한 인쇄소가 미승인 종교 서적 인쇄를 이유로 문을 닫았으며 일부 직원이 체포됐다"며 인쇄, 출판 업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출판이 아닌 단순 복사 업계에도 동일한 금지령이 내려졌다. 뤄양의 한 복사제본 전문점의 직원은 "엄격한 검열 때문에 종교서적은 복사할 수 없다. 종교 자료를 복사하러 오는 사람은 누구든 신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문서가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불분명하다면 사본을 보관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편물과 택배물도 검열 대상에 포함되었다. 내용물에 종교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 '관제물' 이라는 딱지가 붙은 채 배송된다. 뤄양의 한 택배회사 직원은 "정부가 우편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정부 승인도서만 우편 발송이 허용되며 미승인 자료는 모두 발송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앞서 7월에는 장시성 푸저우시가 관내 모든 사찰의 해외 불교 서적 보관 및 판매를 금지했다. 이 방침은 '외세 침투 방지' 라는 명분으로 취해졌다. 모 사찰 관계자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공산당에 반할 것을 우려해 정부가 종교를 통제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목조 동자상서 복장 유물 대거 발견

세계문화유산 엔랴쿠지서
12세기作 금동불도 확인돼
'전례 없는 발견' 관심 고조


가마쿠라 시대에 조성된 호법동자상(우), 동자상 내부에서 발견된 금동부동명왕입상(좌).
사진출처=교토신문

일본 천태종의 총본산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히에이산(比叡山) 엔랴쿠지(延曆寺)에서 12세기의 금동불이 발견됐다. 지난 10월 16일 일본의 ' NHK 방송' '교토신문' 등의 주요 언론사들은 전례가 없는 발견의 전모를 보도했다.

엔랴쿠지와 오즈시 역사박물관 측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엔랴쿠지가 소장 중인 호법동자입상(護法童子立像)의 내부에서 금동부동명왕상과 복장유물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호법동자상의 복장물로 부동명왕상을 안치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호법동자란 덕이 높은 고승이나 수행정진하는 학인들을 옹호한다고 알려진 호법신이다. 엔랴쿠지에서는 히에이산을 돌며 수행하는 회봉(回峰) 수행자들을 수호하는 신령으로 모셔왔다. 오즈시 역사박물관은 "이번 조사에서 복장물이 발견된 호법동자상은 12세기 가마쿠라 시대에 조성됐으며, 높이 76.5cm의 목조 불상이다. 1970년대까지 엔랴쿠지의 법당에 봉안되어 왔다"고 유래를 전했다. 또 "호법동자는 보통 족자로 봉안되는데 반해 목조로 조성한 예는 드물다"고 밝혔다.

엔랴쿠지는 소장해 오던 호법동자상은 세월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고 학술적인 조사를 위해 지난 2018년 7월부터 해체수리를 진행해 왔다. 이중 동자상의 머리 부분에서 높이 9.5cm의 금동부동명왕상이 발견된 것이다.

이번에 발견된 부동명왕상은 입상으로, 바위를 표현한 목조 좌대를 제외한 화염광배와 전신에 모두 도금됐으나 상호와 일부 신체는 금니로 덧칠이 되어 있다. 또 영락과 같은 장신구와 지물은 별도로 탈부착이 가능하게 조성됐다. 지금까지 호법동자상에 대한 보수나 해체에 대한 기록이 없기에 동자상이 조성된 시대와 동일한 시기의 작품으로 판명됐다.

박물관 측은 "일반적으로 습기로 인한 터짐을 막기 위해 파낸 구멍 속에 복장물을 안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부동명왕상은 동자상의 머리 안에 정확하게 설 수 있도록 안치되어 있어 당초 동자상을 조상하면서 부동명왕상을 안치할 것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불사리를 모신 수정오륜탑과 부동명왕을 찍어낸 판화 등이 복장유물로 발견됐다. 판화는 총 50매의 종이에 각 200구의 부동명왕을 찍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엔랴쿠지측은 "호법동자상의 복장으로 부동명왕을 안치한 예는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나 회봉 수행자들을 흔히 '살아있는 부동명왕' 으로 생각하는 민간신앙과 호법동자가 회봉수행자들의 수호신으로 신앙되는 점에서 연계점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발견된 부동명왕상은 오는 12월 6일까지 다른 복장유물들과 함께 히에이산의 성보박물관에서 특별 공개된다.

박영빈 객원기자

호주 꽝민사원, 지역사회에 대중공양

노숙자 · 유학생 우선 지원


꽝민사원 자원봉사자들.
사진출처 = SBS비엣나미즈

호주 빅토리아주에 위치한 꽝민사원이 생활고에 놓인 노숙자와 유학생들을 위한 대중공양을 지속하고 있어 화제다.

호주 빅토리아주에 소재한 꽝민(光明)사원은 베트남 이주민들이 모이는 불교사원으로, 초창기 호주에 세워진 불교사원 중 한 곳으로 유명하다. 지난 10월 19일 호주의 'SBS비엣나미즈' 보도에 따르면 꽝민사원의 사부대중들이 코로나19의 2차 유행으로 더욱 생활고에 빠진 노숙자들과 유학생들을 위해 대중공양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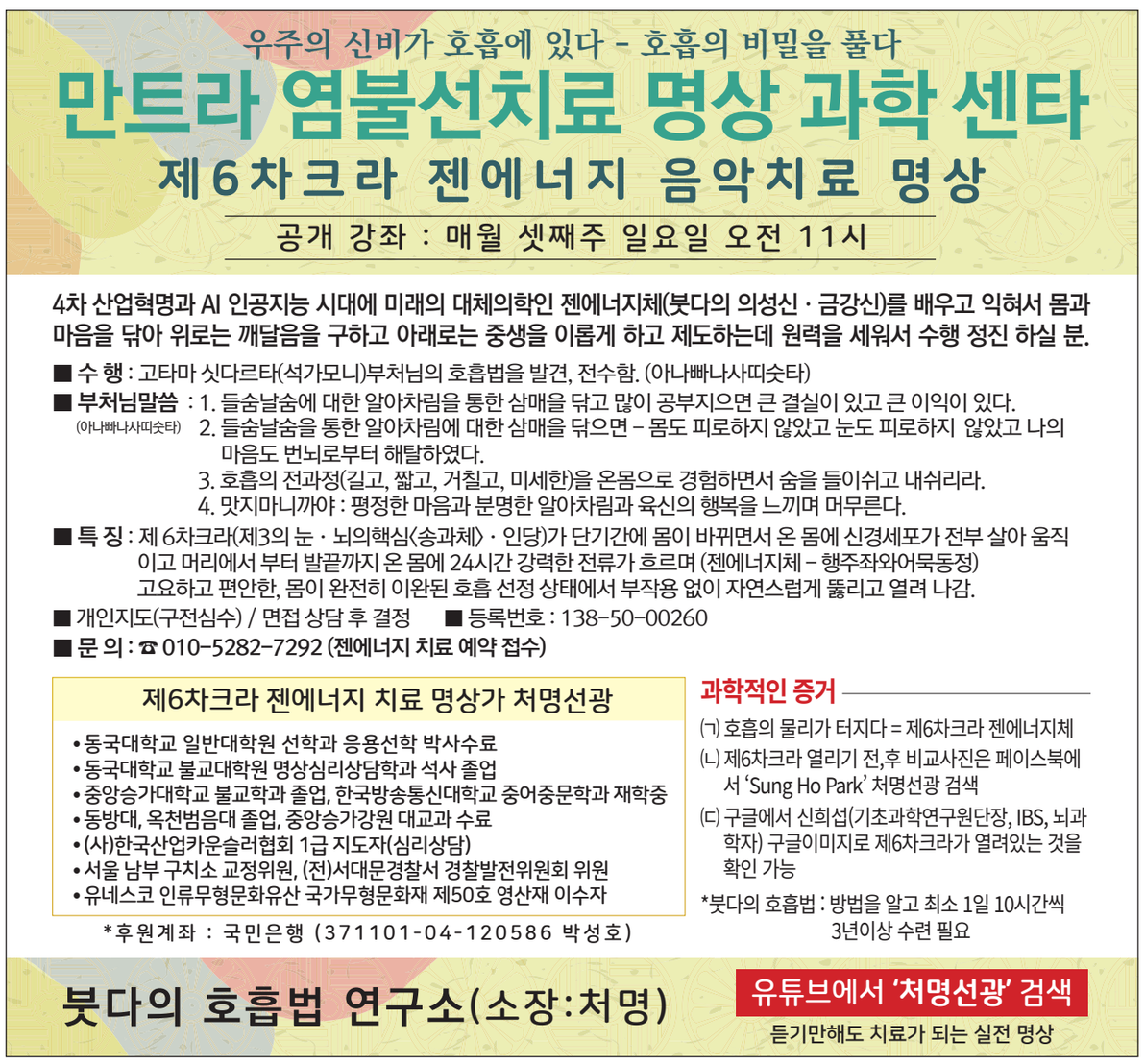
현재까지 3개월간 900회 이상 진행된 대중공양은 베트남음식으로 마련된 비건식 식사로 일주일에 50~80회 이상 진행되고 있다. 모든 음식은 꽝민사원의 자원봉사들이 사찰에서 조리하고 포장하며, 사회적 취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무료제공하고 있다.

꽝민사원 관계자는 "자원봉사자와 수혜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엄격히 준수한다. 지칠 줄 모르는 자원봉사자의 열정이 빅토리아주와 다른 다문화 공동체에도 널리 알려져, 모두 함께하는 연대를 만들어내고, 다른 이들의 선행으로 이어지는 영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꽝민사원의 국제 학생 코디네이터 란안(Lan Anh)은 "대중공양은 코로나 사태가 끝난 뒤에도, 수혜자가 그들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 때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꽝민사원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지친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해, 더 나아간 해결책도 고심중 임을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비로자나불 왜 대웅전에 있을까



이상근의
聖寶流轉

⑳ 전각명과 다른 불보살상

사찰의 중심 전각이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은 대웅전(大雄殿)이다. 한자 그대로 위대한 영웅으로 번역되는 대웅(大雄)은 산스크리트어 '마하비라(Mahāvīra)'를 한역한 것이다.

그런데 구글에서 마하비라를 산스크리트 철자 그대로 쳐 검색해 보면 한참을 넘겨도 석가모니 부처님 얘기는 찾을 수 없다. 8할 넘게 인도 자이나교의 창시자인 바르다마나가 계속해서 검색된다. 부처님과 같은 지방에서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바르다마나가 '먼저' 대웅이라는 칭호를 얻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법화경〉을 비롯한 대승경전에서 대웅이라는 이름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면서 '대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칭(異稱)으로 자리 잡는다.

앞에 말했듯이 사찰의 대웅전(大雄殿)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곳이다. 대개 좌우보처는 문수·보현보살이나 가섭·아난존자인 경우가 많다. 격을 높여 '대웅보전(大雄寶殿)'이라고 할 때는 삼세불을 모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약사여래와 아미타불이 협시를 한다. 하지만 삼세불을 모셔도 굳이 대웅보전이라 하지 않고 대웅전이라고 한 곳이 많다. 이제 그 구별이 무의미할 정도다. 그런데 대웅전이든 대웅보전이든 그 모습이 '정형'을 벗어난 곳이 또 너무 많아 어리둥절하기도 하다.

별도로 제시한 표는 '전형적'인 전각 이름과 주불 그리고 좌우협시불(보살)의 예다. 하지만 거개가 그렇다는 것이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석조여래입상으로 유명한 진천 용화사는 아예 대웅전이라는 이름이 없다. 옛 대웅전 자리로 추정되던 곳에 '박가범전(薄伽梵殿)'이라는 전각이 들어서 있다. '박가범'이라는 이름이 낯설 수 있겠지만, 벌써 짐작한 독자도 있을 것이다. '세존'이라는 단어는 산스크리트어 '바가완(Bhagavan)'의 역어다. 이 단어를 한역하면서 구마라집은 '불(佛)'이라고 음역했고 현장 스님은 '박가범(薄伽梵)'으로 음역했다. 중국이나 대만불교를 접하다 보면 요즘도 간혹 '박가범'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곳이 있다. 우리의 장경각에 해당하는 전각에 '박가교장(薄伽教藏)'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는 곳도 가끔 보인다.

여하튼 대웅전이라는 이름 대신 박가범전이라는 이름이 있는 걸 보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박가범전 뒤편에 여느 절 산신각만한 크기로 여래전(如來殿)이라 이름 붙인 전각이 또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았다. 분명 무슨 사연이 있었으리라.

대웅전에 있는 비로자나불 · 아미타불

대적광전이나 적광전, 비로전, 화엄전 등의 주존인 비로자나불이 대웅전에 모셔진 경우도 있다. 또 아미타전이나 극락전, 무량수전 등의 주존인 아미타불이 대웅전에 모셔진 경우도 있다.

대웅(大雄)이 아니라 대광(大光)인 비로자나불이 자리하고 계신 곳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법주사다. 어찌된 사연인지도 모르고 부처님이 바뀐 곳이 많지만 그래도 이곳은 그 사연이 문헌과 자료에 비교적 튼실하게 남아 있다.

고려 시대부터 나라의 대표 사찰로 승승장구하던 법주사는 조선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 때 왜군의 방화로 잿더미가 된다. 이때 사찰 재건을 주도했던 분이 사명대사인데 여러 전각을 새로 지으며 현재 법주사 대웅보전 자리에 '대웅대광명전'이라는 이름의 전각도 '재건'하게 된다. 원래 '대웅대광명전'이 있었고 이를 다시 세웠다는 말이다. 인조 때에는 벽암 각성 선사가 삼신불상을 조성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삼신불상이라면 대개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노사나불과 석가모니불을 배치한다. 그런데 흥선대원군 시절 현판이 대웅보전으로 교체된다. 조선 후기에 '유

주불 · 협시보살 맞춘 전각명
맞지 않는 사찰들도 존재 해
대부분 임란 후 중수 되면서
전각명과 주불 차이 생겨나

행'에 따라 사찰 주전각의 이름을 대웅보전으로 교체했다는 주장인데 사실 여기에도 사연이 있다. 고종 때 대원군이 경복궁 역사에 필요한 당백전(當百錢)을 만들기 위해 사찰을 대대적으로 훼손한 기록이 보인다. 이때 여러 전각과 불상이 피해를 입었고 남은 전각과 불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현판 교체가 일어났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법주사 대웅보전과 비슷한 유전(流轉)을 갖고 있는 곳이 또 있다. 선운사 대웅보전이다. 이곳 역시 대웅보전이라는 현판이 있지만 안에 모셔진 부처님은 주존이 비로자나불이고 좌우에 각각 약사불과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다. 비로자나불 대좌 밑에서 발견된 묵서명에 의하면 1633년 조선 후기의 대표적 조각승 무염 스님이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선운사 역시 전쟁의 화마를 피해가지 못했다. 1597년 정유재란으로 대부분의 사찰 건물이 불에 탔고 결국 광해군 5년(1613)년 중건됐다. '대웅보전'이라는 이름은 아마 중건과 삼불상을 모신 어느 시기쯤 붙여진 이름일 수 있다. 아니면 1840년 원래 2층이었던 건물이 장마로 인해 무너지면서 1층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붙여진 이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전각의 현판과 부처님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대부분 전쟁 중 화마를 입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전각이 훼손돼 중건되는 과정에서 자리 잡은 것이다.



나주 불회사 대웅전.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셨다. 불상은 고려 시대 후기 또는 조선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각은 조선 정조 때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다.

사찰 전각 이름과 불보살상

전각 이름	주 불	좌우협시
대웅전	석가모니불	문수보살 · 보현보살
대웅보전	석가모니불	약사여래 · 아미타불
영산전(팔상전)	석가모니불	미륵보살 · 제화갈라보살
대적광전(적광전, 화엄전, 비로전, 대광명전)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 석가모니불
무량수전(극락전, 미타전)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 대세지보살
약사전(유리보전)	약사여래	일광보살 · 월광보살
미륵전(영화전)	미륵불	법화림보살 · 대묘상보살
관음전(원통전)	관세음보살	남순동자 · 해상용왕
지장전	지장보살	도명존자 · 무독귀왕

이렇게 놓고 보면 대웅전을 '큰법당'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실제로 선운사 스님들은 현판과 모셔진 부처님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대웅보전을 '큰법당'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

나주 불회사 역시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있으면서 대웅전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다. 안에 있는 비로자나불은 고려 후기나 조선 시대 전기의 불상이고 전각이 새로 지어진 것은 정조 23년(1799)이다. 역시 앞의 사례와 비슷하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양산 신흥사다. 아름다운 벽화 때문에 그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답사 1번지로 꼽히는 이곳에는 대광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이곳 역시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 화마에 휩싸인다. 하지만 대광전만은 온전히 남아 있었다고 한다. 안에 모셔진 불상은 17세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된다. 전각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부처님이 바뀐, 앞의 사례와 반대의 경우다. 특히 내외벽에 그려진 벽화 역시 아미타삼존이어서 그런 추측을 더욱 가능하게 한다.

대웅전이 두 개인 곳 장곡사

대웅전이 두 개인 곳도 있다. 청양의 장곡사다. 흔히 아래쪽에 있는 대웅전을 하대웅전 위쪽에 있는 대웅전을 상대웅전이라고 나눠 부른다.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대웅전이 두 개인 이유를 설명하는 '설' 역시 분분하다. 우선 상대웅전은 천상세계를 나타내고 하대웅전은 사바세계를 나타낸다고 하는 '설'이다. 멋들어지긴 하지만 설득력도 없고 감흥도 떨어진다.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사람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상대웅전은 고려 말 혹은 조선 초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역시 전각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비로자나불이 주불이다. 좌협시는 약사여래불, 우협시는 아미타불이다. 주불로 보면 대적광전이고 협시로 보면 대웅보전이다. 그런데 상대웅전의 약사여래불의 영험이 대단했던 모양이다. 전국에서 약사여래불의 가피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다. 결국 상대웅전 밑에 하대웅전 영역을 따로 만들게 된다. 하대웅전은 조선 중기 때의 건물로 추정된다. 이곳의 주불은 약사여래불이다. 이때도 약사전이라 이름 붙일 만 했지만 역시 대웅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조선 초중반을 넘어서면서 대웅전이라는 명칭은 큰법당 정도로 인식되었다는 걸 반영한다.

아예 전각 이름을 바꾸다

조계종의 25개 교구본사 가운데 대웅(보)전이나 대(적)광전 현판이 없는 곳은 모두 두 곳이다. 그중에 봉선사 '큰법당'은 불경 한글화를 서원한 운허 스님의 원력으로 현판이 바뀐 것이니 대웅전이라는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다. 그런데 대웅전이나 대적광전이 '진짜' 없는 사찰이 있다. 바로 은해사다. 여기에도 전각 이름과 부처님이 일치하지 않아 만들어진 사연을 담고 있다.

원래 은해사도 대웅전이라는 현판이 달린 전각이 있었다. 하지만 안에는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시고 있었다. 전각과 모셔진 부처님이 맞지 않으니 2009년 사찰 창건 1200돌을 기념하는 법회 때 대웅전이라는 현판은 박물관으로 모시고 극락보전이라는 현판을 새로 달았다.

대중이 많은 절집에서 땅 파는 것만큼 어렵게 생각하는 게 어른들이 부르던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 쉬운 결정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름을 바꾸자고 대중공사도 여러 번 했을 터인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아직도' 이름을 바꾸지 않은 전각에 대해 뭐라 할 이유도 없다. 실수나 오해도 켜켜이 쌓이면 역사가 되는 법이다.

〈불광출판사 편집주간〉

국내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저렴한 비용!!
사업부
스틸대웅전 | 스틸한옥
일주문 | 한옥카페 | 문중재실
전시장 | 한옥인테리어 | 농막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

종교상담사 자격 교육
귀장술비법
찾아온 (시간 · 일진)으로 왜 왔는지?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내방자의 사주만 가지고 궁금증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육임보다 쉽고 더 확실한 점술학...
(명리학을 잘 몰라도 됩니다)
제1기 종교상담학과 개설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선착순 30명 접수 ☆ 강사 : 도호스님
3개월완성으로 상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완벽한 과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강특전 해동불교대학원 종교상담과 수료증 수여 (총장 명의)
해동불교대학원 서울 종로구 종로17번길45
문의안내 02)741-0495~6

커뮤니케이션은 '자비심'의 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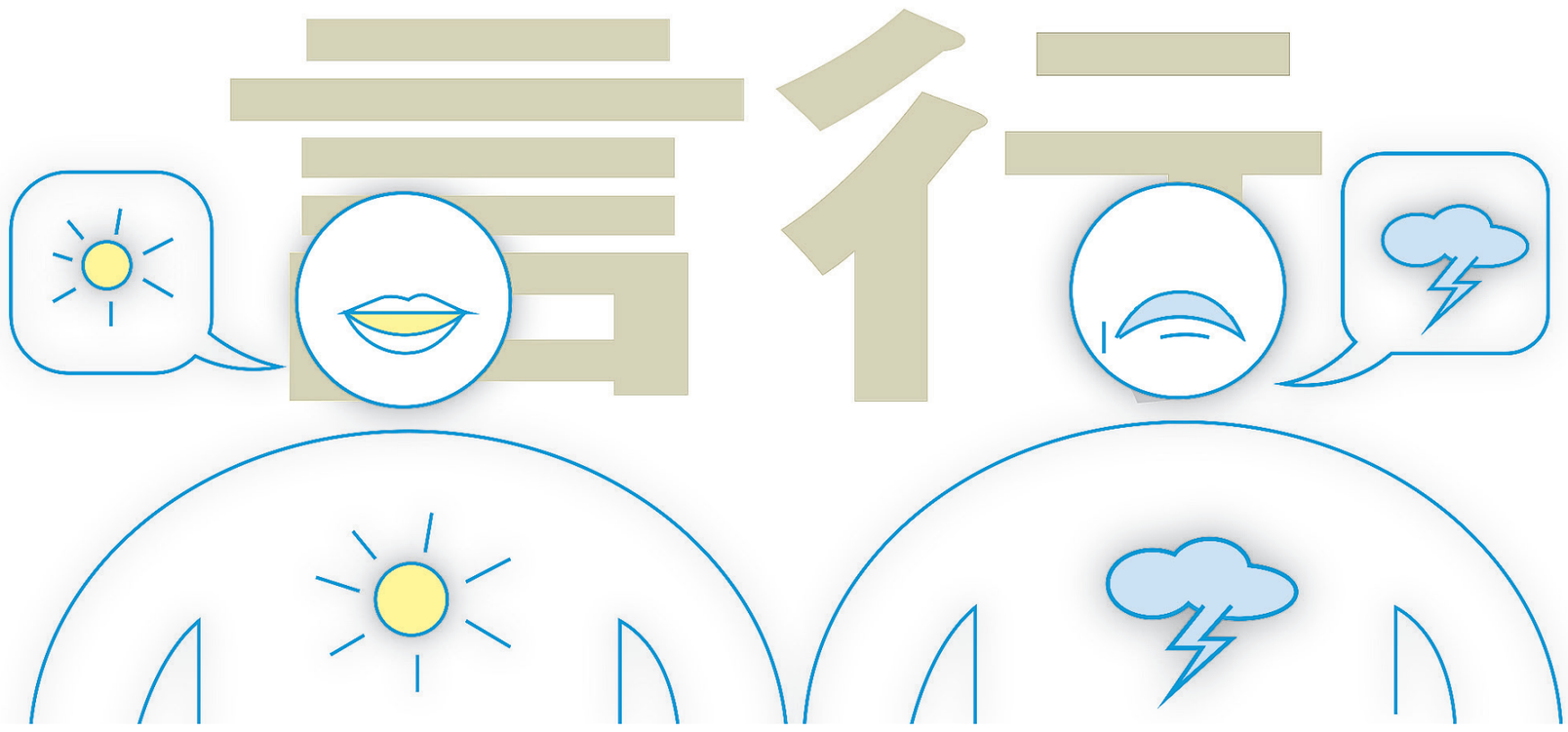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이현정의
불교와 스피치

⑤ 금강경 속 부처님 커뮤니케이션 1

수보리 질문으로 부처님 말씀 시작되다

질문은 상당히 고조된 스피치의 방법이다. 질문은 내용을 잘 파악하고 깊이 숙지하고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혀 알지 못해 당황해 하거나 어리둥절해서는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올 리 만무하다.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는 분과를 나누어 각 분(分)마다 적절한 제목을 붙였다. 이 때 소명태자는 수보리 등장분에서 그를 '선현(善現)' 이라고 표현했다. 선현이라는 단어에서 풍기듯 수보리는 도덕성과 지혜에 있어 훌륭하고 모범적인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수보리는 중생을 위한 자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대신해 질문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되는데, 이로써 〈금강경〉이 열리는 순간이다. 수보리의 대자비심의 발로가 바로 대승의 멋진 모습이다. 굳이 내가 말을 꺼내지 않아도 항상 했던 것처럼, '오늘도 공양하고 수행하면 그만인데, 왜 괜히 질문을 하나?' 라고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소승의 마음이다. 따라서 진정한 대승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름 불러주는 자상함과 칭찬

〈금강경〉은 대승불교의 진수, 에센셜 경전이다. 따라서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하게 압축 정리, 정화된 대표적 대승경전이다. 한 글자 한 글자 심사숙고해서 번역했을 구마라집을 떠올려 본다면, 괜히 끼어 넣을 단어는 한 글자도 없었을 것이다. 고대의 번역의 잣대인 ①신(信:원전에 충실해야 한다) ②달(達: 내용에 통달하여 표현이 뚜렷해야한다) ③아(雅: 번역된 글 자체가 아름답고 우아해야한다. 즉 문장의 문학적 경지를 드러내야 한다)인 이 세 박자가 아름답게 조성된 것으로 평가받는 구마라집이다. 그가 쓸데없는 말을 넣었을 리가 없다. 그런 면에서, 부처님은 수시로 수보리의 이름을 아낌없이 사용한다.

'수보리야, 수보리야, 다시 또 수보리야…, 왜냐하면 수보리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보리야, 여래께서 다 아시고 다 보시나니, 이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느니라. 수보리야…….'

이름을 불러주는 것의 의미는 아주 지대하다. 상대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표현이며 상대와의 친밀감의 표현이며, 상대를 포용해주는 느낌까지 받는다. 곧 상대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며 존재의미를 깨우쳐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본연이 아니다' 라는 불교수행적 의미는 잠깐 제쳐두고 이야기하자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인정과 관심을 온통 쏟고 있다는 신호이자 의미이다. 부처님의 따뜻함이 묻어나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름만큼 아끼지 않는 부분이 부처님의 풍부한 칭찬스피치다. 부처님은 이 금쪽같은 〈금강경〉의 문자들 가운데 칭찬의 문구를 보면, 압축의 대가인 구마라집도 이를 뺄 수는 없었던 것 같다.

'선재선재라 수보리야' 현대의 스피치는 감성의 스피치 시대이다. 사람의 감성을 어루만져주는 스피치를 지향한다. 따라서 밝게 웃고 명랑하게 말하는 이런 에너지 파동을 서로 전달해야 한다. 그것이 불교의 맥과도 상통한다. 과묵하고 무표정을 일관하고 가볍게 웃지 말고 등, 이런 부류의 고정관념이 사회를 정체시키고 불교를 무겁게 만든다. 안타깝게도 불교집안에서는 칭찬이나 상대에 대한 관심표명이 희박한 것 같다. 희로애락을 표현하지 않아야 도인이라는 이상한 공식이 있는 것 같다. 또한 구마라집 답지 않게 왠지 쓸데없을 것만 같은 표현을 자주 쓴 것 중의 또 하나는 부처님의 맞장구다. 이는 꽤 여러 번 나오는데 그만큼 부처님은 상대를 향한 스피치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전을 보면 '그렇다 그렇다. 수보리야'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수보리의 대답에 힘을 주고 있다. 부처님의 자상한 말씀과 사람에 대한 대우에 대한 기록 또한 실로 놀라울 정도이다.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며 부추겨주는 것으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것 만한 것도 없다. 이 짧은 한 마디가 상대방을 크게 격려하고 고무시켜주는 힘이 있다. 우리가 내 주변인과 대화할 때 상대를 북돋워주고 존중해줘야 할 이유는 충분히 많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주변이 혼란스럽고 저마다 힘들어할 때에 더욱더 불교는 친밀성으로 다가가야 한다.

포교와 전법 공덕 강조하는 부처님

경전에서는 전법의 공덕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로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큰 보시이며 공덕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은 아주 많다. 우리가 포교와 전법에 마음을 쏟아 이 자체를 공덕이며 보시로 생각해야할 부분이다. 자기 기도에만 함몰되지 않고, 내 마음 한자리 밝힌다는 것은 곧 주변과 사회, 온 세상을 밝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내 마음을 밝혀 환하게 하면서 포교의 마음, 즉 자비심을 함께 밝히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한다. 포교는 항하의 모래수보다 더 큰 공덕이라고 누차 말씀하시며,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여래가 다 알고 다 본다고까지 했다. 이러한 포교와 전법에 대한 강조는 여러 번 나오되, 각각 다른 비유와 표현으로 강조해 나가고 있다. 포교와 전법의 복덕과 공덕은 최승제일의 보살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다.

> **중생을 대신한 수보리 질문**
> **대중 위한 대승불교의 상징**
> **부처님 자상하게 이름 불러**
> **친밀함 속에 전법포교 강조**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도 부처님의 자비심의 한 면을 볼 수 있다.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지루하지 않게 다른 비유로 바꿔가면서 말하고 있다. 자칫 〈금강경〉은 공의 대표적인 주자로서 '말은 필요 없다' 로 잘못 생각하는 시각도 있었다.

부처님 만의 스피치 특징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여래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제7분)

〈금강경〉 7분의 타이틀은 '무득무설분(無得無說分)으로,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 라고 되어있다.

즉 설(說, 스피치)에 대한 집착을 우려하고 있다. 부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에 맞게 그때 그때 맞는 설법을 해주기 위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을 뿐, 말하지 말라는 아니다.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사구게 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제8분)

명쾌한 문구다. 사구게 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라는 당부와 명령이다. 전법과 포교에 대한 반복된 강조가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오는데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이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체 모든 상을 끊고 타파해야 함을 당부한다.

'모든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색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제10분)

말하기 전에 먼저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함을 일어준다. 아무런 분별심. 상이 없는 것이 깨끗한 마음인데 이러한 마음이어야 제대로 된 스피치라 한 것이다. 입술 끝으로만 단련된 스피치로 청산유수같이 내뱉는 것이 스피치가 아니다. 마음수양이 되어, 깨끗이 청소하고 비워내고 나서 이야기하라는 것이다. 상에 가득 차있어 말하는 것은 오히려 구업을 만드는 격이다. 따라서 마음이 청정해서 스피치를 해야 진짜 장엄정토라 할 수 있다.

'수보리여, 여래는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참된 말을 하는 이며,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이고, 속임 없이 말하는 이며, 사실대로 말하는 이다. 수보리여, 여래가 얻은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제14분)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인 8정도 중 정어(正語)를 강조한다.

'어떻게 남을 위해 설명해줄 것인가? 설명해준다는 관념에 집착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설명해야 한다.' (제32분)

〈금강경〉의 클라이맥스다. 결국 수지 독송도 중요, 이해하는 것도 중요, 남에게 설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설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있다. 상에서 벗어나야 하며, 그것을 전해주고 설할 수 있으면 수승하다고 했다. 이점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상이 없이 전하라. 그러면서 '관' 하라고 한다. 내 스스로 관해야 올바른 표현이 나올 수 있으니 언행일치를 당부하고 있다.

〈불교스피치 전문가〉





시대적 요구서 비롯된 문자선



현견 스님의
중국 선 문화기행 Ⅱ

⑳ 문자선 및 분양선소



그림 · 강병호

문자선은 전대의 선법 기초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으며, 선종이 긴 역사성을 가지게 된 것은 각각의 시대마다 지속적인 창의성과 전법교화나 다양성을 통해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면서, 한가지의 선법수행에 매몰되지 않고, 또한 정체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늘 새로운 변신을 모색한 몸부림의 소산이라고 여긴다. 이 중심에서 송대 문자선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독특한 형식으로 선법을 표현한 문자선은 선종의 근본사상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문자선 역시 선종에서 주장하는 '명심견성'과 일치를 이루며, 특히 심성론 수행론 해탈관에서 여전히 선종의 특색을 보존하고 있다. 동시에 당시의 시대적 추세를 벗어나지 않은 융합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흡수하고 각색한 결과물이다. 송대는 이미 선교일치는 물론 삼교일치가 이미 사회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시류는 시대적인 현상으로 불교계도 역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송대 이학의 사회적 발전과 영향은 유교의 부흥을 노리는 사대부 문인들의 심리적 상태를 더욱더 고무적으로 만들었고, 아울러 유교적 정책이 심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불교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삼교융합의 기치는 시대를 아우르는 당연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불교는 물론이고 선종 또한 생존의 자구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직면했다. 때문에 북송의 문자선은 시대성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북송 시기에 문자선이 흥기하기 시작한 이면에는 여러 가지의 요인이 존재하지만, 주요한 요인으로는 내외적으로 공통적인 분모가 작용했다. 내부적으로는 선법 사상이 계승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필연적인 시대적 변화에 대한 부응으로 '불립문자'에서 '불리문자(不離文字)'라는 변화이다. 즉 공안을 기초로 새롭게 모색되어진 선법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동시에 당시 선사들의 선학에 대한 조예 및 문화적 소양 등도 한몫을 했다. 외부적으로는 국가의 정책적인 것과 맞물리면서, 사대부 문인들의 선법에 대한 관심과 인쇄술의 발달로 인한 언어문자 보급의 추진력 등이다.

문자선을 대표하는 선사로서 분양 선소(汾阳善昭) 설두 중현(雪窦 重显) 원오 극근(圆悟 克勤) 혜홍 각범(慧洪 觉范) 등의 인물이 있다. 문자선은 북송 시기 선종의 기본 형태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이다. 당시 시대를 대표했던 선종 발전의 주류이기도 했다. 문자선은 선종의 취지 견해 정서 경계 전법 풍조 등을 문체의 형식을 빌려서 언어문자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문자선은 다른 말로 '요로선(绕路禅)'이라고 하기도 하며, 대별(代別) 염고(拈古) 송고(頌古) 평창(評唱)으로 중요한 표현형식을 취하면서, 뜻은 선법 사상을 찬술하는 것이다.

분양 선소(汾陽 善昭 · 947~1024)는 임제종의 선사로 공안 및 송고(頌古)를 제창해서 문자로 선의(禪意)를 표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문자선의 시효이다. 그래서 그를 문자선의 창시자로 추앙한다. 당 말 오대에 형성된 선종의 5가 중에서 위앙종은 송대까지 전해지지 못했다. 법안종은 영명 연수 이후 쇄락했다. 따라서 송대의 선종은 임제종, 운문종, 조동종 3파는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하고 있었다. 송 태조로부터 철종(哲宗 · 960~1100)시기에 이르러서 임제종과 운문종은 선학발전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본래 임제종의 중요한 발전 지역은 화북 일대였으며, 송 초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큰 변화는 없었다. 인종(仁宗 · 1023)의 통치 시기를 시작으로 그들의 활동 지역은 남방으로 옮겨 가면서, 강서를 중심으로 선종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하나의 파가 되었다. 특히 분양 선소는 선종에서 자주 인용했던 "설사 한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는다(說似一物不中)"를, "만법을 한마디로 요달한다(了萬法于一言)"로 방향을 선회하였으며, 이점이 바로 선풍을 문자선으로 크게 변화시킨 표식이 된다.

송대에 이르러서 임제종은 흥화 종장(興化 存獎 · 830~888), 남원 혜우(南院 慧隅 · ?~952)를 지나서 풍혈 연소(風穴 延沼 · 896~973), 수산 성염(首山 省念 · 926~993)에 이르러서 날로 쇠퇴해져 갔다. 수산 성염의 제자인 분양 선소는 당시 임제종의 이러한 형세의 국면을 전환해보고자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공안대별(公案大別)과 송고(頌古)를 발의해서 복고주의로써 장차 선을 문자 현담으로 풀어보려고 노력한 최초의 인물이다. 즉 공안대별과 송고는 다른 말로 문자선이라고 칭하기도 하며, 조사들의 선의 경지를 언어문자를 의지해서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당시 사대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선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불립문자에서 불리문자(不離文字)라는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으며, 따라서 문자선은 선수행의 새로운 활로를 제시해 주었다. 이같이 문자선은 송대 선종의 발전사에서 큰 흔적을 남겼으며, 동시에 선종사에서도 길이 남을 문자선이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불립문자 → 不離文字 변화
사대부 문인 선법에 큰관심
인쇄술 발달로 문자의 보급
분양선소가 창시한 '문자선'

분양 선소(汾陽 善昭 · 947~1024)는 산서성 태원 사람으로 속성은 유 씨이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어려서부터 큰 포부가 있었는데 "일체 문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통달 하는 것이다"고 했다고 전해진다.

분양 선소는 명리를 구하지 않고 사대부 및 왕공대신들과의 교류를 거절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가 수산 성염을 모시고 여러 해 동안 참학을 마치고 스승을 떠나서, 먼저 호남성 상강(湘江)의 형산(衡山)을 유역할 때, 담주(潭州) 지주(知州) 장무종(張茂宗)이 4개의 명찰에 주지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하였다. 또 북쪽의 양주에 이르러서 잠시 백마사에 머물게 되었는데, 양주(襄州) 지주(知州) 류창(劉昌)이 듣고 와서 참알을 하면서, 늦게 만나게 된 것을 탄식하면서 명찰의 주지 소임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역시 거절하였다. 그 후에 분주(汾州) 태자원(太子院)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곳은 당시 비교적 황량했다. 그는 여기서 30여 년 동안을 사찰 밖을 나가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의 어록인 〈선소어록(善昭語錄)〉에 보면 〈불출원가(不出院歌)〉가 실려 있다. 특히 당시 적지 않은 고관대작들이 담선(談禪)하는 것을 즐겼는데, 분양 선소 역시 그들의 중시를 받았다. 〈선소어록〉의 서에 보면 정문보(鄭文寶), 양억(楊亿), 이준욱(李遵勗) 등과 교류가 있었으며, 학림학사인 양억(楊亿)은 〈선서어록〉의 서를 짓기도 했다. 이중욱(李遵勗)은 부마로서 불교에 대한 신심이 매우 돈독했던 인물이다. 이러한 정황들은 모두 당시 분양 선소의 명성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반영해주는 사례이다. 반면에 그의 이러한 정황은 당시 임제종에도 상당히 유리한 영향을 주면서 매우 신속하게 전파되어 갔다.

분양 선소는 특히 스승과 학인의 관계를 매우 중시를 했는데, 학인들을 제접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선법은 대략적으로 삼구(三句), 삼결(三訣), 사전어(四轉語), 사게(四喝), 십팔문(十八問), 삼현삼요(三玄三要), 사빈주(四賓主), 사간료(四料簡), 십지동진(十智同眞) 등이다. 이 중에서 삼현삼요, 사빈주, 사간료 등은 이미 임제 의현 등 옛 조사들이 사용했던 적이 있는 것을 계승해서 발휘한 것이다. 분양 선소는 선법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스승과 제자 관계를 특별하게 중시하기도 했다. 이 중에서 십지동진, 십팔문, 삼구는 분양 선소가 창조한 독특한 선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몇 가지를 소개하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는 〈어록〉에서 말하기를 "설법자는 반드시 '십지동진'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에 '십지동진'를 갖추지 못하면, 사정(邪正)을 판별할 줄 모르고, 승속을 나누지 못한다.…"고 했다. '십지동진' 이란? 곧 "①동일직(同一質), ②동대사(同大事), ③총동참(總同參), ④동진지(同真志), ⑤동편보(同遍普), ⑥동구족(同具足), ⑦동득실(同得失), ⑧동생살(同生殺), ⑨동음후(同音吼), ⑩동득입(同得入)"이다. '십팔문'은 분양 선소가 학인들이 선사에게 질문한 말을 18종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선종에서는 '분양십팔문'이라고 칭한다. 즉 1은 청익문(請益問)으로, 학인이 스승에게 직접적으로 지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르침이다. 2는 정해문(呈解問)으로, 학인이 자기의 견해를 현시해서 스승에게 심사해 주기를 청하는 가르침이다. 3은 찰변문(察辨問)으로, 학인이 난해한 문제를 제출해서 스승에게 문제의 경중을 감별해서 평가해주기를 청하는 것이다. 4는 투기문(投機問)으로, 장차 자기의 경계를 사실대로 제출해서 자기가 증득한 것과 스승이 증득한 것이 같은 지 다른 지 물어보는 것이다. 5는 편피문(偏僻問 · 편벽된 물음)으로, 학인의 한 쪽으로 치우친 편견의 견해를 단박에 스승이 힐문해서 스승이 검증하는 것이다. 6은 심행문(心行問) 또한 험주문(驗主問)이라고도 하며, 학인이 비록 득오를 했지만 다시 스승에게 가르침을 묻는 것이다. 7은 탐발문(探拔問)으로, 타인의 견해에 대한 심천(深淺)을 살피는 것이다. 8은 불회문(不會問)으로, 학인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말미암아서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9는 경단문(警担問)으로, 학인이 선법 이외의 학문 및 기타 일들을 가지고 스승을 우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10은 치문(置問)으로, 학인들이 직접적으로 고인들의 문답을 이용해서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다. 11은 고문(故問)으로, 학인들이 경론의 고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다. 12는 차사문(借事問)으로, 학인들이 고사 및 비유를 빌려서 세간의 일반정황으로 종풍의 가르침을 묻는 것이다. 13은 실문(實問)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이익을 청하는 물음이다. 14는 가문(假問)으로, 가설의 어투로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다. 15는 심문(審問)으로, 학인의 상세하지 못한 점을 드러내어서 가르침을 주기를 청하는 것이다. 16은 정문(征問)으로, 힐난하는 태도의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혹은 질문하는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17은 명문(明問)으로, 학인이 이미 명료하게 알았지만, 다시 기타 일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18은 묵문(默問)으로, 학인이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 동작만을 의지해서 물음에 들어가는 것이다. 분양의 '십팔문'은 학인들이 스승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18종류의 문화(問話) 방식을 반영한 것이다.

〈동국대 강사〉



영가 찾는법

연결카페 : 백암역리원
http://cafe.naver.com/baikamsa

영가는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매사에 장애, 신경성, 우울증, 공부가 안되는 학생, 결혼이 안되거나 가정의 풍파, 병명이 안나올 때는 영가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대 상
명리 및 육효초보반, 영가특강반

백암역리원
02)597-1101
2,4호선 사당역 8,9번 출구 먹자거리 골목 안 200m



한국판 콩쥐팥쥐, '큰 거북 이야기' 교훈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⑳ 미얀마 민담을 아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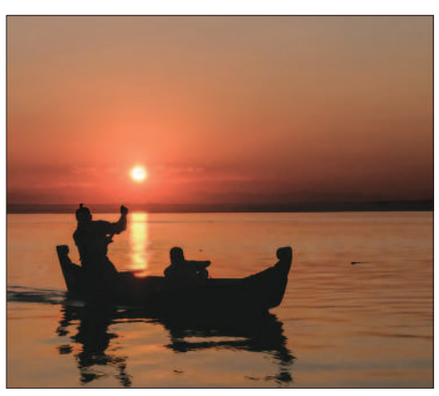
미얀마에는 한국 '콩쥐팥쥐' 이야기와 비슷한 형태의 민담이 전해지는데 '큰 거북이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미얀마인들은 이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새긴다.

올해 초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 시상식을 휩쓸면서 전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했다. 기생충이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을 수 있었던 요소 중의 하나는 '스토리'였다. 또 기생충이 아무리 훌륭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영어로 번역한다면 원작을 살리지 못했을 것이다. 미얀마에서도 기생충이 오스카 수상기념으로 JCGV에서 개봉을 했었다.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기생충의 스토리에 공감을 하고 극찬을 보냈다. 유명한 미얀마 감독과 배우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은 기생충 작품에 대한 찬사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업로드 했다. 뿐만 아니라 영화를 통해 유명해진 '짜파구리(짜파게티라면+너구리라면)'를 만들어 먹고 싶은 미얀마 사람들이 많아져서 유명 미얀마 마트에서는 '기생충 라면세트'로 짜파구리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따로 묶어 팔았었다.

'이야기'는 나라의 국경선, 인종, 문화적 차이를 단 한번에 허물어 버린다. 미얀마에서 한국의 무수한 드라마와 영화는 이미 미얀마 국내 컨텐츠보다 훨씬 많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소비되고 있다.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은 양곤대학교 22명 대표 학생들과의 대화에서도 '한국과도 같은 소프트 파워를 가져야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한국의 컨텐츠는 이미 미얀마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가까운 존재이다. 어느 날, 학교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불렀다. 택시를 타자마자 '전하! 아니 되옵니다!'라며 대성통곡을 하는 한국 배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무 놀라 택시 기사님을 쳐다보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가 사극이라 늘 운전 할 때마다 틀어놓는다고 했다.

국경을 넘어 각 나라의 문화적인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문화적인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는 셈이다. 과거의 '민담'을 살펴보면 현재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일은 아니다. 넷플릭스 플랫폼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과거에도 이야기는 돌고 돌아 각 나라의 맞게 변형되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별주부전'의 근원을 찾아보면 인도의 불전설화(佛典說話)에서 기원한다. 또한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하는 민담의 구조도 있다. '계모형' 구조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에 맞게 변형되어 각 나라의 비슷한 이야기 형식으로 존재한다. 계모형 구조의 전형적인 특징은 계모가 착한 전처의 딸을 괴롭히는 악인의 전형으로 나온다는 점이다. 반대로 전처의 딸은 선인의 전형으로 등장한다. 줄거리의 주된 구조는 계모가 착한 전처의 딸을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전처의 딸은 선한 마음을 갖고 훗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미얀마에도 우리나라의 '콩쥐팥쥐'와 비슷한 '큰 거북이 이야기'가 존재한다.

'큰 거북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지혜롭지 못한 아버지의 판단으로 인해 주인공인 아응애조응의 친어머니가 사망한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로 들어온 계모와 계모의 딸이 전처의 자식인 '아응애조응'을 괴롭혔다. 우연히 해변가에서 만난 거북이를 어머니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거북이를 만나면서 아응애조응은 점점 밝아졌다. 아응애조응의 행복한 모습이 보기 싫었던 계모와 그녀의 딸은 계략을 통해 거북이를 죽인 후 아응애조응을 다시 불행하게 만든다. 아응애조응은 계모와 그녀의 딸이 거북이를 먹고 난 뼈를 모아 땅 속에 심었고 그곳에는 황금나무가 자랐다. 이 황금나무를 본 임금님은 아응애조응의 효심에 감동하여 결혼하였다. 결혼 후 계모와 그녀의 딸은 아응애조응의 왕비 자리를 뺏기 위해 음모를 꾸민 후 그녀를 죽였다. 그 후 왕에게 접근하지만 환생한 아응애조응을 통해 음모가 드러나면서 계모의 딸은 죽게 된다. 그리고 왕은 이 시체를 갈기 갈기 찢어 젓갈을 만든 후 계모에게 보낸 후 먹게 하는 잔인한 벌을 내린다."



미얀마 강가에서 일하고 있는 어부들의 모습.

나라간 차이 허무는 이야기
계모 괴롭힘에 의한 악업을
부처님 가르침 통해 풀어내

삶 속에 습합된 가르침 덕에
일상서 선한 언행 항시 실천



우탄트 UN 전 사무총장의 손자인 우탄민 박사가 SNS에 게재한 한국영화 '기생충' 추천글.

미얀마인들은 계모의 딸은 죽게 되는 것을 보고 "지혜롭지 못하고 재촉하지 말라"는 교훈을 이야기해준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미얀마 사람들은 화내는 것을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어른이라면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 또한 미얀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난 후, 결과에 대해서 재촉하지 않는다. 자신이 부탁한 사람이 들어 줄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한 후 다른 사람을 찾아본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화를 모른 채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거나, 생활을 하게 되면 한국식으로 미얀마 사람들을 부정적인 쪽으로 오해하게 된다.

"아응애조응은 해변에 나와 자신의 신세를 처량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 때 늙은 거북이 하나가 그녀를 향하여 헤엄쳐 왔다. 거북이를 보니 그녀와 똑같이 울고 있었다. 그녀는 거북이가 자신의 어머니의 환생이라 생각하고 꼭 껴안았다. 그 후로 날마다 아응애조응은 해변으로 나와 해질녘까지 거북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 서로 현생에 지은 인연의 고리를 통해 다음 생에 다른 인연 관계로 만나 '재회'하게 된다. 미얀마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나쁜 행동과 말을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한다. 다음 생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 어떤 인연으로 만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싫어하는 감정이 있더라도 오래 마음 속에 담아두지 않으려고 하는 대부분의 미얀마 사람들의 모습에 많이 놀랐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자신이 느끼기에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면 전생의 인연이라고 생각하여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진심을 다해 잘 해준다.

세계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계모형 구조에 미얀마 문화의 근본인 불교적 가르침을 담아 '큰 거북이 이야기'가 탄생되었다. 미얀마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밌는 이야기로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배워 자신의 삶에 실제로 적용한다. 어떤 사람들은 미얀마가 아직 개방 된 지 얼마 안 돼서 "심성이 착하다"고 이야기한다. 미얀마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아직 부유하지 못해 착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선량한 것이다.

연꽃이 더러운 물에서 피어나는 것처럼,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미얀마 사람들처럼 삶 속에 적용하다 보면 우리도 그들처럼 선량한 마음을 연꽃과 같이 피울 것이다. 미얀마에 여행 오거나, 거주하거나, 사업을 할 때 우리와 같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잠시 한 번 곰곰이 부처님 법을 생각하면 그들의 행동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혹여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에게도 아직 가슴 깊숙이 용서하지 못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 생에 귀한 인연을 위해 현생에서는 부정적인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길 바랍니다.

〈양곤대 박사과정〉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마음이 없으면 번뇌도 없다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⑩ 무위진인(無位眞人)

"오직 여러분들의 눈앞에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사람은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으며,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으며, 삼악도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꽃밭에서 노는 것처럼 하며, 아귀도나 축생도에 들어가도 아무런 과보를 받지 않나니 무엇 때문에 그런가? 싫어 꺼리는 법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대들이 만약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한다면 나고 죽는 생사의 바다 속에 떴다 잠겼다 할 것이니라. 번뇌는 마음을 말미암아 있는 것이라 마음이 없으면(無心) 번뇌가 어찌 구속하리오. 애써 분별하여 상(相)을 취하지 않는다면 잠깐 사이에 저절로 도를 얻으리라. 그대들이 엉뚱한 길에서 허둥지둥 헤매며 배우려 한다면 3아승지겁이 지나도록 공부해도 마침내 생사윤회로 돌아가고 말 것이니, 아무 일 없이 총림의 좌선하는 자리에 가부좌하고 앉는 것만 못 할 것이니라."

이 장에 와서도 가만히 무위진인(無位眞人) 이야기를 다시 꺼내 말하고 있다. 지금 눈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사람이 무위진인이다. 꼴이 없고 틀이 없는 사람으로 불성(佛性) 자체를 지칭하는 이른바 '한 물건'이다.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으며 물에 들어가도 빠져 가라앉지 않아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는 것이다. 〈선가귀감〉 첫 구절과 〈금강경오가해서설〉 첫 구절에도 '한 물건이 여기에 있다(有一物於此)' 하고 소개되어 나오는 그것이다. '본래 신령스럽고 밝지만 생겨나지 않으며 없어지지도 않아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하였고 또 '이름도 모양도 없되 고금을 꿰뚫고 하늘과 땅보다 먼저이면서 시작이 없고 하늘과 땅보다 나중이면서도 끝이 없다' 하였다.

이것을 원상(圓相)으로 그려놓고 송(頌)을 지어 원상송(圓相頌)이라 했다.

古佛未生前 옛 부처 나기 전에
凝然一相圓 한 모양이 엉키어 둥글었네
釋迦猶未會 석가도 오히려 몰랐거늘
迦葉豈能傳 가섭이 어찌 능히 전하랴

이 원상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남양 혜충(南陽 慧忠 · ?~775)이었다고 하나 실제로는 마조 도일(馬祖道一 · 709~788)이 먼저 사용했다는 설도 있다. 물론 두 사람이 같은 시대를 살았다. 혜충의 출생연도가 밝혀지지 않아 누가 연장자였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혜충은 육조 혜능의 제자이고 마조는 남악 회양의 아래인 육조 2세이다.

〈경덕전등록〉에 수록된 〈경산도흠전(徑山道欽)〉에 나오는 이야기에는 마조가 경산에게 편지를 써 보냈는데 편지 안에는 글이 없고 원상 하나만 그려져 있었다. 편지를 뜯어본 경산이 원상 안에 점을 하나 찍어 다시 봉하여 마조에게 보냈다. 이 이야기를 혜충국사가 전해 듣고 "경산이 마조에게 속았구나"고 말했다 한다.

〈선문염송설화〉 165칙에는 어떤 학인이 찾아왔을 때 마조가 원상 하나를 그려 놓고 말했다.

"들어와도 때리고 들어오지 않아도 때릴 것이다"

그러자 학인이 원상 안으로 바로 들어왔고 마조는 그를 때렸다. 학인이 말했다.

"스님은 저를 때리시면 안 됩니다"

마조는 주장자에 기대어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원상(○) 곧 동그라미로 표시되는 '한 물건'을 임제는 무위진인과 무의도인(無依道人)으로 표현했다. 이 사람이 지옥이나 아귀 축생 등 3악도에 들어가도 과보가 없다고 하면서 임제는 상(相)을 분별함이 없는 무심(無心)에 돌아갈 것을 재촉한다. 무심하다면 어찌 번뇌에 구속되리오 하고 일갈하고 있다. 이 말의 저변에는 돈오(頓悟)하면 돈수(頓修)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임제의 종지가 깔려있다. 임제뿐만 아니라 선사들의 법문은 직설(直說)이다. 복잡한 곡담(曲談)을 싫어하고 단도직입(單刀直入)적으로 말한다. 임제의 직설은 압축되고 압축되어 언어를 뛰어넘는 '할(喝)'이 되고 말았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수행자는 美에 물들지 않는다



세상 속 경전읽기

⑩ 불염착경(不染着經)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핀 어느 봄날의 일이다. 한 청신녀(淸信女)가 청화 스님께 "진달래가 참 아름답게 피었네요"라고 하니, 스님께서 "네 아름답습니다"고 하셨다. 진달래꽃 풍경에 흠뻑 취한 청신녀가 한마디 말만으로는 감흥 표현에 미진하였던지 "진달래가 너무 아름다워요"를 두세 번 되풀이하였다. 물끄러미 청신녀를 바라보시던 스님께서 "수행자는 아름다움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고 말씀하셨다.

해마다 봄이면 앞뜰에 나리 몇 그루가 새 싹을 틔운다. 나리대가 부쩍 자라 6~7월에 꽃봉오리가 맺히면, 매일 이른 아침에 뜰에 나가 꽃이 피었나 살피게 된다. 꽃봉오리가 맺혔다고 며칠사이에 금방 꽃이 피는 것은 아니니, 이제나저제나 꽃피기를 기다리는 마음에 조바심마저 일어난다. 봉오리 맺히고 한참 지나 꽃봉오리의 초록색이 옅어지고 붉은 색조를 띄고도 며칠을 기다려야 꽃이 피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 아침 기대를 가지고 살피게 된다. 꽃봉오리는 봉오리대로 아름답건만, 피어나는 꽃을 보려는 기다림과 조바심은 해가 바뀌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들 범부는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에 염착[染着 · 물들어 집착함]하여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지내다가 만일 그 빛깔이 무상하여 변하고 바뀌거나 완전히 소멸하게 되면 곧 큰 괴로움을 느낀다. 눈으로 보는 색(色)뿐 아니라, 귀[耳] · 코[鼻] · 혀[舌] · 몸[身] · 뜻[意]의 대상인 소리[聲] · 냄새[香] · 맛[味] · 감촉[觸] · 법(法)에 염착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며 지내다가 그 법이 무상하여 변역(變易)되고 멸진(滅盡)하게 되면 사람들은 큰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

여래는 색(色)과 색의 원인[色集] · 색의 소멸[色滅] · 색의 맛들임[色味] · 색의 근심과 재난[色患] · 색에서 벗어남[色離]을 사실 그대로 안다[如實知]. 사실 그대로 안 뒤에는 색에 대해서 다시는 염착하거나 사랑하고 좋아하여 머물지 않는다. 따라서 그 색이 변역되고 무상하여 멸진하게 되더라도 곧 즐거움에 머무른다. 소리 · 냄새 · 맛 · 감촉 · 법에 대해서도 그 원인과 소멸과 맛들임과 근심과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알고, 사실 그대로 안 뒤에는 다시는 염착하거나 사랑하고 좋아하여 머물지 않는다. 따라서 그 대상이 변역되고 무상하여 멸진하게 되더라도 곧 즐거움에 머무른다.

왜냐 하면 눈[眼]과 색(色)을 인연하여 안식(眼識)이 생기고, 이 세 가지[眼 · 色 · 眼識의 三事]가 화합한 것이 접촉[觸]이며, 접촉을 인연하여 괴롭거나[苦] 즐겁거나[樂]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不苦不樂] 세 가지 느낌[三受]이 있게 된다. 이 세 가지 느낌의 원인[受集]과 느낌의 소멸[受滅] · 느낌에 맛들임[受味] · 느낌의 근심과 재난[受患] · 느낌에서 벗어남[受離]을 사실 그대로 알아 그 색(色)을 인연하여 장애가 생길 때 장애를 완전히 없애고 나면 그것이 '위없이 안온한 열반[無上安隱涅槃]'이다.

귀 · 코 · 혀 · 몸도 마찬가지이며, 뜻[意]과 법(法)을 인연하여 의식(意識)이 생기고 (意 · 法 · 意識의) 삼사(三事)가 화합한 것이 접촉이며, 접촉을 인연하여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있게 된다. 그 느낌의 원인 · 느낌의 소멸 · 느낌에 맛들임 · 느낌의 근심과 재난 · 느낌에서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알고, 사실 그대로 안 뒤에 그 법을 인연하여 장애가 생길 때 그 장애를 완전히 없애고 나면 그것을 위없이 안온한 열반이라고 한다.

이상은 〈잡아함경〉 13권 308번 불염착경(不染着經)의 내용으로, 요약하면 범부중생은 무상하여 변역되고 멸진하는 대상에 염착하여 애락(愛樂)하다가 대상이 멸진하면 큰 고통을 느끼지만, 여래는 무상한 연기법(緣起法)을 알아서 6근과 6진과 6식의 삼사화합으로 인한 촉수(觸受)에 염착하지 않으므로 대상이 멸진하여도 무상안온열반에 머무른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⑯ 깨침의 길 1

붓다의 깨침, 그 실존적 의미

우리나라는 부처님오신날(음4.8)을 비롯하여 출가재일(2.8), 성도재일(12.8), 열반재일(2.15)을 불교의 4대 명절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사찰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부처님오신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념일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언젠가 제법 규모가 큰 교구본사를 방문했다가 올해 성도절을 어떻게 기념했는지 물어봤더니, 절에서는 특별한 행사 없이 평소처럼 보냈다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날인데, 그냥 지나쳤다는 얘기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성도재일(成道齋日)은 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이날은 글자 그대로 도를 이룬 성도(成道), 즉 석가모니의 깨침을 기념하는 날이다. 성도절이 중요한 것은 중생 싯다르타가 도를 이루고 깨달은 사람(覺者), 즉 붓다(佛)가 되었으며 그분의 가르침(敎)이 곧 불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금 엄밀히 말한다면, 불교의 역사는 석가모니의 탄생이 아니라 성도에서 시작된다고 보아야 한다. 성도절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싯다르타가 도를 이룬 그날 보리수 아래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소부경전〉 '우다나' 편에는 그때의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참으로 진지하게 사유하여 일체의 존재가 밝혀졌을 때, 그의 의혹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싯다르타를 괴롭히고 급기야 출가의 길로 들어서게 한 생로병사에 대한 의문이 진지한 사유(思惟)를 통해 해결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중생 싯다르타를 깨달은 붓다로 이끈 원천은 다름 아닌 생각(生覺)에 있었던 것이다. 성도는 잠자고 있던 싯다르타의 삶(生)을 일깨운(覺) 종교적 체험이었다.

철학자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는 생각이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과 조우할 때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 말은 생각은 익숙한 상황이 아니라 낯선 상황과 만날 때 일어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항상 아파트 101동에 주차하던 사람이 그날 저녁 늦게 귀가하는 바람에 102동에 주차했다고 해보자. 그 사람은 다음날 아침 102동이 아니라 101동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평소 101동에 주차했던 습관 때문이다. 그런데 101동으로 가면 차가 보이지 않는 낯선 상황과 만나게 되고 '왜 차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어젯밤 일은 그때 비로소 떠오른다.

싯다르타가 생각을 하게 된 계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사문유관(四門遊觀), 즉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과의 '낯선' 만남을 통해 '삶과 죽음이란 무엇일까?' 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출가를 하고 치열한 수행 끝에 깨침에 이르렀으며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생각은 한 사람의 삶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셈이다.

붓다의 깨침과 사유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왕자 싯다르타의 궁중 생활은 익숙한 상황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일으키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는 대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아버지 정반왕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다. 그러나 성문 밖의 낯선 만남을 통해 그는 주체적인 삶, 즉 사는 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생각대로 사는 일대 전환을 이루었다. 붓다의 출가와 성도에서 우리는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불교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의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은지성 작가의 책 제목처럼 사람은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업(業)의 관성 때문에 그렇다. 중생이란 다름 아닌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욕망에 맞추느라 삶이 늘 정신없이(mindless) 흘러갈 뿐이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내가 진정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의 욕망이 투영되어 지갑을 열게 된다. 그러나 붓다는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mindful) 삶을 산다. 중생에서 붓다로 질적 전환을 이루는 비밀이 '생각'에 있었던 것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마음 조종장치 통제권 쥐면 우울해져

명상書 톺아보기

존 카밧진 등의

'마음챙김으로 우울을 지나는 법'

〈3〉 매순간 깨어있기



처음 맛보는 마음챙김

유명한 여행 작가가 일본의 부잣집에 저녁 초대를 받았다. 많은 손님을 모신 주인은 귀한 복어 요리를 대접하겠다고 했다. 복어 요리를 대접받는 것은 커다란 영광이지만 독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 귀빈으로 초대받은 작가는 기대를 한껏 품고 복어요리를 한 입, 한 입 천천히 음미했다.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맛이었다. 주인이 묻자 손님은 복어의 뛰어난 맛에 감탄했다. 작가는 자신이 먹어본 어떤 요리보다 뛰어났기에 맛을 과장할 필요가 없었다. 그제야 주인은 이 요리가 실은 복어가 아닌 평범한 생선이라고 털어놓았다. 다른 손님은 반대로 복어를 먹었지만 복어인 줄 모르고 먹었다. 작가는 비싸고 귀한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평범한 음식이라도 한 입, 한 입 제대로 음미할 때 훌륭한 요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알아차린다는 것

작가는 '평범한' 생선요리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 그의 특별한 경험은 음식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이 달라진데서 나왔다. 주인은 손님이 음식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과 그에 따른 알아차림의 질이 변화하도록 재치있게 상황을 설정했다. 이 책의 중요한 교훈은 누구나 이 특별한 주의집중을 자신의 경험에 적용시켜 경험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마음챙김은 특별한 종류의 알아차림이다.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누가 물으면 우리 대부분은 이미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어떤 일을 하려면 어쨌거나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는가. 또 만성 불행감에 빠져 있다면 불행한 느낌을 '이미' 알아차리고 있다고 답할 것이다. 적어도 우울의 고통만큼은 '너무 잘' 알아차리고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우울한 기분에 빠지면 좁은 터널 시야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인다. 2장에서 보았듯 이때는 코앞의 문제에 집중한 채 문제 해결과 무관한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때 마음챙김을 하면 삶의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 있다.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끝없는 반추의 덫에서 벗어난다. 나아가 우리를 불행과 우울의 나락에 빠뜨리는 모든 행위에서 벗어난다.

2장 마지막에 말했듯이 마음챙김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판단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현상에 주의를 기울일 때 일어나는 깨어있는 마음이다. 또 마음챙김은 행위 모드에서 존재 모드로 전환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존재 모드로 전환하면 경험이 제공하는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들인 뒤 행동할 수 있다. 마음챙김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판단을 중지하고 미래의 목표를 잠시 접어둔 채,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려운 대상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작동하는 자동조종장치를 의도적으로 끄는 것이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온전히 알아차리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생각이 실체가 아니라 잠시 마음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정신적 사건임을 아는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습관적 사고가 아니라 몸과 감각을 통해 사물과 현상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삶과 더 많이 접촉하는 것이다. 평소 우리가 좁은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깨닫기는 쉽지 않다.

생각은 지나가는 정신적 사건

어떤 것에 '관해' 생각하는 마음은 커다란 힘을 가졌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떠올린 뒤 실행에 옮긴다. 생각 덕에 우리는 소설을 구상하고 쓴다. 그런데 어떤 것에 '관한' 생각을 어떤 것 '자체'로 여길 때 문제가 시작된다. 생각에는 해석과 판단이 들어가게 마련인데 해석과 판단은 어떤 것 '자체'가 아니라 '더 많은 생각'에 불과하다.

우리는 마음에 그린 의자와 우리 집 거실의 의자가 다르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안다. 반면, 애당초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생각의 경우에는 생각과 사실의 차이를 깨닫기가 쉽지 않다. 나의 가치에 관한 생각은 마음에 그린 의자만큼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마음챙김을 통해 마음의 존재모드로 이동하면 생각과 사실의 차이가 분명히 관찰된다. 마음챙김으로 깨어 있으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과 사실의 차이가 분명히 관찰된다. 마음챙김으로 깨어 있으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를 듣고 하늘의 새를 보듯이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관찰할 수 있다.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또한 스스로 일어나 한동안 머물다 저절로 사라지는 정신적 사건에 불과함을 알게 된다.

>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다른 방식으로 주의 기울이기 직관적인 삶속 앎의 방식 필요"

자신의 생각과 맺는 관계를 이렇게 간단히 변화시킬 때 생각의 조종에서 벗어난다. 이제 '나의 불행은 영원해' '나는 사랑받지 못해' 같은 생각을 반드시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끝없이 맞붙어 싸워야 한다. 생각은 변화무쌍한 날씨처럼,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이유로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깨어있는 알아차림으로 보고 받아들이면 생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통찰을 얻는다. 이때 생각은 더 이상 제거해야 하는 폭군이 아니다.

자동 조종장치를 꺼라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는 우리의 삶에 보편적으로 스며들어 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먹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알아차리며 먹는 일은 잘 없다. 하루에 몇 번씩 밥을 먹으면서 무슨 맛인지 모른 채 먹는다. 이야기하며 먹고, 폰 들여다보며 먹는다. 식사 중에도 마음은 해야 할 일에 관한 생각에 빠져 있다.

영양학자들은 이런 식습관 때문에 오늘날 비만이 유행병처럼 번졌다고 말한다. 우리는 몸이 느끼는 포만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행감과 우울에 빠지는 이유도 오랜 습관으로 굳은 마음 패턴이 자기도 모르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오롯이 깨어있지 않으면 습관적인 마음 패턴이 기억에서 걸어 나와 통제권을 쥔다. 이것이 마음의 자동조종장치다. 자동조종장치가 통제권을 쥐면 자기도 모르게 불행감과 우울에 빠진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자동조종 상태로 일상을 살아간다. 그러나보면 종종 처음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이른다. 당신은 차로 퇴근 중에 소포를 부칠 계획이다. 그러려면 평소 운전하던 길과 다른 길로 가야 한다. 이 때 다른 일을 계속 떠올리며 공상과 반추에 빠져 자동조종 상태로 운전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집에 도착했을 때 보내지 않은 뒷좌석의 소포를 발견할지 모른다. 운전 중 당신의 마음은 소포가 아닌 딴 곳에 가 있었다. 그래서 늘 다니던 길로 운전하고 말았다. 습관이 주도권을 쥔 것이다. 또 우유를 사러갔다 한가득 집에 안고 돌아온 장바구니에 우유만 쏙 빠진 적은 없는가? 이미 오래 전 이사간 친구의 집으로 전화를 건 적은?

자동조종 상태는 오래된 습관을 좋아한다. 오랜 습관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림은 오랜 습관이 고개를 드는 순간, 그것을 알아본다. 알아차림을 두면 자녀가 이미 성인이고, 친구가 이사갔으며, 우유를 사러간 사실을 잊은 실수를 초연하게, 자기 사랑으로, 유쾌하게 바라 볼 수 있다. 행위 모드에 있을 때 마음은 일어나는 일에 '관한' 생각에 빠져 지금 실제 일어나는 일을 명료하게 알지 못한다. 한편, 마음이 존재 모드에 있으면 현재 경험에 직접적, 감각적으로 알게 되어 삶과 매 순간 접촉한다. 자신의 경험과 새롭게 직접적으로 접촉할 때 완전히 다른 앎의 방식이 일어난다. 이 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을 그것이 일어나는 중에 전체적으로 직관적으로 아는 방식이다. 비개념적이고 직접적인 앎의 방식이다.

알아차림이 없으면 우리를 불행감과 우울에 빠트리는 반추적 사고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자동적 사고 패턴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울에 빠뜨리는데, 이에 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면 기분이 더 악화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마침내 우울증을 구성하는 각 요소가 서로 강화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 알아차림이 없으면 이 것 외의 다른 가능성을 알아보지 못해 자신의 변화 가능성에도 눈뜨지 못한다.

알아차림이라는 신선한 공기

보통 우리는 이 일, 저일 허둥지둥 쫓아다니며 하루를 보낸다. 그러는 중 이와 다른 식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삶의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조금의 마음챙김으로 깨어날 수 있다. 적어도 한 순간이라도 관성적 행동을 줄일 수 있다. 약간의 마음챙김이면 충분하다.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아도 된다. 섣불리 단정 짓지 않으며 펼쳐지는 삶의 순간순간에 현명한 알아차림을 가져가면 된다. 기분 장애의 해결에 있어 내면의 느낌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시도는 필요치 않다. 사람, 장소, 일 등 외부 세계를 바꾸려는 엄청난 노력도 중요하지 않다. 내면과 외면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음챙김을 하면 자기를 비하하고 제약하는 생각이 일어나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도 관찰할 수 있다. 마음챙김은 생각에 낚이지 않고 분명하게 관찰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자각과 알아차림은 마음이 가진 본래적 능력임에도 우리는 여기 머무르는 일이 잘 없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14호 | A15 | 전면광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세상 또한
맑고 깨끗해진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계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발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안내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술술 풀리는 사주강의

스님들, 불자님들 요즈음 많이 어려우시죠?
절운영과 삶에 큰도움이 될 사주를 2개월 만에 막힘없이 술술 풀도록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010-7307-1727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검 색★

GN 손도사
인간계발과 MBTI연구원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배우자 구함

●남61세 경북
●직업 : 철학교육 · 교수
●전원주택에 거주할 분
●여성은 '거짓이 없는' 여성분
●문자주세요
010-4014-8822

팔공산 천년고찰
운전도 하고 주지스님
수발하실 보살님 구함
(50대~60세)
010-8833-4416

기도 부전스님
행자, 처사
구합니다
010-2078-9595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서울
010-8721-2198

노전 ·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경북 문경 쌍룡사
010-8819-8988

공양주 모십니다.
도심속 사찰
관음사
010-5736-1835

스님이 없어서
어려운 도량 있으면
노스님 경륜 노하우로
도움이 되고저 합니다.
보시금은 적어도 무방
010-7756-5525

기도의 신

특수기도법을 정통으로 스님께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비구·비구니 모집

3년 정진 도량인 무일선원 무문관에서 결원이 생긴 자리에 선착순 비구, 비구니 각 1명 모집합니다.
•휴대폰 일절 사용 못함 •외부 음식물 반입 불가 •일종식, 묵언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무일선원 무문관
문의 : 054-771-835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탱화 배울분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봅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희망소식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우울증, 공황장애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 되는 병
기공, 퇴마, 천도 미륵사 주지 청원
010-3111-9056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732-1520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2009년 보이차 숙차(노동지 병차) "9978"[357g] 식약청 정식 통관제품



전통적인 맹해 차창의 7572 배방방식으로 오랜동안 보관하셔도 좋고, 바로 드셔도 그 맛과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한정수량 특별판매가
▶ 노동지 병차 [숙차(357g)] 1개 ····· 55,000원
▶ 노동지 7자 병차 [숙차(357g) x 7개] ····· 308,000원
■ 식품유형 : 단일침출차 (보이숙차) ■ 중량 : 357g ■ 원산지 : 중국 운남성 ■ 생산일자 : 2009년 1월 6일 ■ 제조원 : 안녕해만차업 유한책임공사
문의:02-732-1520 마하몰 (www.mahamall.co.kr) 계좌번호: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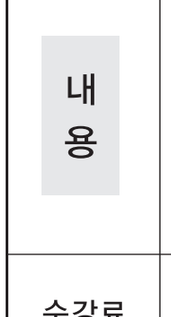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14호 | A16 | 전면광고

제자가 되었으면 점치는 일을 하거나, 옳지 못한 귀신에게 소원을 빌거나, 부적이나 주문 등으로 괴상한 기운을 누르려 해서는 안 되며 좋은 날과 나쁜 날을 가리는 일 따위를 해서도 안 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아난분별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300평
◎ 건평 : 100평,외
◎ 시내중심,공원옆,주차가
◎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도
◎ 대지 : 200평
◎ 건평 : 90평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9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명 당 안 내

- 위치 : 강원도 영월읍
- 누워서 들어왔다가 걸어서 나가는 암치유 명당
- 십승지(해발650미터)
- 전 1만평 / 주택(55평) / 옛집(25평)
- 평당 13만원

010-5758-760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1억

010-5421-1536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465평, 현대식건물2동
- 1층 요사 30평, 14평
- 2층 30평 법당
- 주차장 확보
- 가액 : 3억 9천만원

010-5804-5100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후 결정

010-7584-83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흥천이포IC 5Km (이천 여주 광주 시내 25분거리)
- 대지299평, 건물 2채 주차시설, 목조 한옥집(24평), 법당 사무실 방 주방 화장실, 요사채(18평), 방2개 화장실2 주방
- 가액 5억5천만원

010-6355-64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 5천(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정말 좋은 사찰안내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 가액 : 25억 (대출가능)
- 별채빼고 양도가능
- 신도관리 잘되어있음 •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02-992-003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구영로 신도시 역세지역
- 평수 : 120평, 4층, 전관(4층건물)
- 방3개, 해우소 3개, 공양간 10평, 주차장 완비, 도시가스 설치가능, 엘레베이터(4층), 법당완비, 즉시 법회가능, 칠성, 산신, 법당연등 고급설치, 에어컨 천장사각 6개, 대형(냉난방됨)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05만원, 관리비 11만원
- 꼭 하실분 연락요망

010-2949-3688

토굴(급)안내

- 부산금정구 지하철2분, 버스2분 거리
- 법당, 요사, 주방, 산신각 등 합해서 건물50평
- 대형마트,은행,병원,시장 전부다 있음
- 오르막 없는 평지에 주차 공간 넉넉함
- 전월세 가능 (보3천/월35만, 시설비無)
- 인연 닿는 스님께서 먼저 전월세로 살아 보신 후 양도도 가능 합니다.

010-4270-3397

포 교 당 급 매

- 위치 : 서울 3호선, 6호선, 연신내 역에서5분거리
- 평수 : 38평,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15만원
- 방1, 주방1, 화장실2, 시설비 8백만원, 주차가능, 즉시법회 가능, 몸만오시면됨

010-8809-9979
010-2804-844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 가액 : 3억 5천

010-2720-1580

인천 사찰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 창고형, 1층 공양간(방3개,화장실) 1층 방3개, 화장실, 2층 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 가액 : 3억3천5백(사정상 급양도함, 사찰연력 : 40여년)
- 답사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010-8360-825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55평 • 요사: 75평
- 대지: 500평 • 임야: 4천평
- ※ 지하150m 석수 1일 200톤이상 생산가능
- 가액 : 11억(대출 2억5천 포함)

010-4547-4990

오래된 암자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종교용지 912평, 뒤는 산, 앞은 면사무소, 시장, 학교
- 대웅전, 지장전, 삼성각, 요사채, 목조건물, 단청, 공원같은 암자, 둘레에 60년된 큰소나무 많음, 신도있고 스님이 연로하시어 양도함, 동서울에서 1시간 가량
- 1억5천 안고 3억 합 4억5천

010-3535-7906

◈◈◈
천하 명당자리
환경 최고 전망
버스 마당까지 진입
산청군 단성면
◈◈◈

010-4492-34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3억1천만원(절충가능)

010-5550-9725
010-4001-8476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큰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 2층 법당.삼성각 약 20km. 원주시청.충주시청.문막읍
- 가액 : 6억 5천
- 답사 하실분만 전화요망

011-371-5567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천수천안사, 4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 50만원
- 시설금 2천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천시 중심가
- 대지 약 80평
- 법당 15평 한옥요사채 30평
- 수행과 포교 적합한 곳
- 가액 : 1억 5천만원

010-8478-3234

토굴법당안내

- 위치 : 파주시 문산읍 (인법당)
- 대지 : 100평
- 전세금 4천만원
- 시설금 6천만원 법당 30평, 9층탑, 산신각
- 평생거주조건

010-8567-3667

◈◈◈
쉴수있는 공간을
주실(월세)수 있다면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

010-6402-4997

"살아숨쉬는 생명의 돌"
희담석 방석[고급형] 수량 한정판매~!!!



정가 ~~198,000~~원 ➡ 할인판매가 120,000원
- 색상 : 살구색 • 크기 : 450mm X 450mm

※베개겸용 휴대용케이스 증정
희담 가루방석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여도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평상시 꾸준한 운동과 더불어 희담 가루방석을 함께 사용하시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판매문의 : 1688-9099 (02-732-1520)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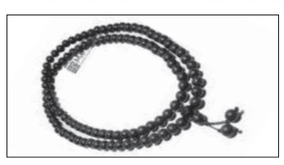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314 호 현대불교
2020년 10월 28일(음 9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64년

죽으나 사나 뛰는 마음 자체가 피안으로 넘어서는 도리입니다



그림 · 최주현

공양 올리는 마음

질문 : 우리가 보통 정성을 들인다고 하면서 부처님 전에 공양미나 초 또는 꽃 등 가지가지 공양물을 올리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올려야 하는지요.

답변 : 이 공양이라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우리 몸뚱이 속에 사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생이면서 공심이고, 공심이면서 공체고, 공체면서 공용이고, 공용이면서 공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올리는 것도 공심으로서 해야 공덕을 받죠. 공심이 아니라면 공덕이 안 됩니다. 달마 대사가 양 무제더러 공덕이 없다고 말한 원인도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시의 물 한 그릇 가지고도 영령들의 큰 목욕탕이 될 수 있고 꽃 한 송이 가지고도 영령들의 집합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양이에요. 꽃공양, 향공양, 모두가 공양! 그래서 이 공양을 정말 알고 내려 먹는 사람은 그건 제 밥 제가 내려 먹는 거고, 알지 못하고 그냥 부처님 밥 먹는 사람들은 그건 자기 밥을 자기가 내려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에서 공양 올린다 하는 것도 이게 전부 도의 길입니다. 그 뜻이 뭔지 모르니 걱정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공해서 공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야, 이게 한마음으로서, 공심으로서 공양을 올려야 공덕이 되지, 공심이 아니고 그냥 갖다가 내 아들 내 남편 잘되게 뭐, 그러니 이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게 공덕으로 적용이 되느냐 말입니다.

이 마음도 그래요. 쌀을 갖다 놓고 초를 켜고 그럴 때 벌써 이 촛불을 켜는 게, 내 마음의 불을 켜고 나면 내 이 몸이 타서 깎아지는 듯한 그 애처로운 그 마음으로, 그 공심으로서 공양을 올려야지, 부처님께서 공심인데 내가 공심이 아니면 어떻게 맞아 들어가겠어요?

이 발우공양도 공양이라고 그러죠? 왜 공양이라고 그랬느냐. 스님네들만 앉아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스님네들은 곤충의 바가지예요. 중생들의, 즉 말하자면 주머니들이란 말입니다. 그 주머니 구멍 뚫린 데로 그거를 넣어요. 주머니 구멍 뚫린 데로 넣는다고요. 거기서들 죄 제가끔들 모두 먹는 겁니다. 그러고 자라죠.

그러면 어떻게 자라느냐? 이 사람 하는 행동 따라서 그 의식도 다 거기에 따라서 가거든요. 먹기 싫어도 주는 대로 먹는단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라는 것도 없고 그냥 살았으니깐 살기 위해서 우리 먹는 거죠. 그런데 그게 주머니라는 걸 몰라요, 모두. 곤충의 주머니라는 걸 하나도 납득을 못해요. 그런데 그 구멍 뚫린 데다가 넣어 주는데 어떻게 내가 먹는 겁니까? 이 주머니가 먹는 겁니까? 이 주머니 속의 곤충들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의 독이 있는 곤충의 주머니냐, 독이 없는 곤충의 주머니냐, 여기에 따라서 또 많은 문제가 생기죠. 저 독이 있는 주머니에서는 독성이 생산이 되는 거고 독이 없는 주머니에서는 독성 있는 데 잡아먹히고 이러더라도 선의가 발생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죠. "정신계에서 정신을 뺏어 먹고 사는 거니깐 정신을 뺏기지 않으려면 정신계의 내 주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거요. 정신을 뺏어먹고 정신을 뺏기고 이렇게, 육이 있는 거는 육을 뺏어먹고 죽이고 살지만 이 사람들은 정신을 뺏기고 그때서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스러지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깐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의 곤충의 주머니를 다 벗어 버리기 위해서 모든 거를 나 자체가, 내 생각 자체가 그대로 놓고 가야 한다. 그대로 남을 섭섭지 않게 해야 한다. 말을 항상 조심해서 그냥 해야 한다. 똑같은 말이라도 말을 성을 내고 하면 저쪽도 감촉이 좋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곤충이 빨리 이게 진화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빨리빨리 되려면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하여튼 여러분을 이 사람으로 치지 마시고 곤충의 주머니로 치시고 항상 그 곤충 주머니나 곤충이나 둘이 아니고, 모두가 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때에 바로 믿어지는 게 있어야만이, 그 믿어지는 거 그 방망이 하나면 이 온 우주를 때려잡고도 남음이 있어요. 이 방망이, 주인공이라는 자기 뿌리인 불성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이 마음공부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습 하나를 녹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질문 :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아오면서 자기가 쌓아 놓은 습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공부를 하면서 나에게 들어있는 습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녹여 가려고 하고 있지만 습 하나를 녹이는 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답변 : 요새 난 "여러분이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부자유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거를 생각할 때 너무나 딱해서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창살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창살 속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면서 구속을 받고 살고 있나.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폭넓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체 천차만별의 사생(四生)들, 그 모두가 어떻게 살고 있나? 천차만별의 사생들이 모두 자기가 살아온 습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연어인가, 은어인가? 하여튼, 왜 그것은 자기가 태어난 자리를 떠나서 세상천지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는, 자기 모습을 형성해 놓고 자기는 없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쉴 사이 없이 하게 될까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모습들로 인해 먹히고 먹고 살아온 그 습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습이 쉴 사이 없이 반복되는 반면에,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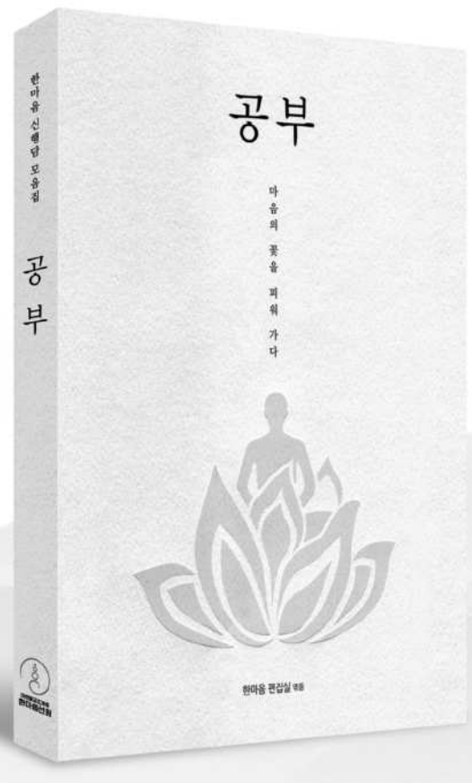
왜 그대로만 따라갈까요? 그대로 따라가더라도 우리 마음은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의 발전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도 발전이 생기고, 또는 발전이 생기는 반면에 창조력이 생기고, 창조력이 생기면 물리가 터지고, 물리가 터지면 지혜로워지죠,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서 우주 천지를 곳곳마다 심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사람이 되죠.

그런데 모두가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형상 아님이 없는데 모든 거를 밟고 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도리를 다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 그래서 삼천 년 전에 부처님께서 그 뜻을 일러 주셨고 지금까지도 일러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리를 깨달았다 해도 각각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도리를 자세히 들으세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많이 마음을 통해서 들어와도 두드러지지 않고, 여러 부처님들의 마음이 여기를 통해서 바닷물 내놓듯이 다 내놔져도 줄지 않아요. 이렇게 광대무변하고 묘한 도리가 우리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관습에, 습에, 인연줄에 매달려서 그냥 꼼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식구, 부부, 자식이다 할지라도 그 자식들의, 부부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자기 뿌리를 자기가 안 믿으면 누굴 믿을 겁니까!

☞ A17면에서 계속

의 몸을 붙들고 매달리지 말고 만약에 그 마음을 둘 아니게 놓고 슬기롭게 굴린다면 몸은 저절로 붙들어지고, 사랑은 저절로 화(化)해서 자비의 정이 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이 이어져 가면서 더불어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묘법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구에 붙어서 사는 사람 벌레는 화해서 한 발을 떼어 놔야만이 이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자유자재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평등봉에 같이 한자리를 할 수 있어서 여래 자리라고 하죠.

우리가 옷을 벗었다고 해서, 이 모습을 벗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옷을 벗으면 자기 차원대로…. 아니, 내가 테레비를 보니까요, 배를 갖다가 놓고, 같은 배인데도 크고 작은 것을 가리려고 기계에 넣고선 굴러 떨어지게 합디다.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굴러 떨어지게 해요. 그렇게 해서 같은 배건만 크고 작은 걸 가려 내더라구요. 그러고는 작은 건 작은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중간 것은 중간 것대로 놓고 팝디다.

그러니 천차만별의 그 모습들을 죄들 각각 놓고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살아온 습, 그 습으로 인해서 오는 인과, 인연에 따라서 인과가 되는 거니까, 그것이 업이 되는 거죠. 이게 악업이 되느냐 선업이 되느냐. 사랑을 하다가도 어떠한 문제 때문에 헤어지면 악업이 되죠. 선업이 그냥 순간에 악업이 돼 버리고 말죠.

그러니 이 악업 선업이라는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짐작도 못 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몸뚱이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가지각색의 모습을 해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하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업식의 굴레에서 그냥 그대로, 컴퓨터에 넣으면 그대로 나오듯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식이 딱, 아주 기정사실로 들어 있거든요. 그렇게 뺄래야 뺄 수 없고, 끼울래야 끼울 수 없이 그대로 입력이 돼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팔자 운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영계성 · 세균성 · 윤회성 · 업보성 · 인과성 이 모두가, 거기에 속해서 나오는 것이 전부 몸 안에 들어 있어요. 부인 못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나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졌고, 나로부터 상대가 생겼고, 나로부터 업식이 있는 거니까 내 탓으로 돌리라고 하는 거죠. 묘한 거는, 과거에도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살았어요. 인과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세균성, 업보성 또는 영계성까지도 모두 종합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 겁니다.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입력이 된 대로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 가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한 치도 벗어날 수 없게 녹음이 돼서, 입력이 돼서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대로 입력이 돼서 나와요.

그렇다면 이 입력된 것을 어떡하면 없앨 수 있을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입력이 된 데다가 되입력을 하면 앞서 입력된 것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인식이 되고 동감이 될 수 있도록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나오는데 거기에 말려서 그것이 습성으로 돼 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모두 살아나가고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믿고 되놔라. 제 나무는 제 나무뿌리를 믿어야 되느니라." 했습니다.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수분과 에너지를 흡수해서 모두 올려보낼 수 있어서 나무가 푸르르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남의 뿌리 남의 나무를 믿고 잘 살게 해 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그건 기복이며, 그건 이익이 하나도 가지 않는 것이며 공덕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시라도 마음을 넓게 가지면서 거기다가 놓으세요. 어떠한 꿈을 꾸었다든가, 상대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잘못돼 돌아갈 기미가 보인다든가, 나를 그냥 꼭두각시로 만든다든가, 또는 적대시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허다할 겁니다. 그렇게 될 기미를 알게 되면, "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 수가 있잖아! 그 마음들과 둘이 아니게 내 마음으로 쓸 수 있게끔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모든 것을, 신호를 거기다 맡겨 놓을 때에…, 이건 의학적이기도 한데, 대뇌를 통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소뇌를 통하고 중뇌에서 결정을 지어요. 결정을 짓게 되면 하달이 돼요. 사대(四大)로 통신이 돼요. 통신이 돼서 제각기 소임을 맡아 가지고 그때는 뛰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안과 밖으로 다 뜁니다. 그래서 내면의 절차가 다 잘되어 있어야 외부의 절차가 다 잘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몸뚱이가 배라면 내 마음의 선장이 그 자생 중생들을 다 태워 가지고 지금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 안에서 의식들이 내 마음 채찍의 다스림에 따라 나가서 마음도 조절하는데, 나쁘게 조절하느냐, 평화스럽고 아주 좋게 해결사로서 조절을 하느냐 하는 것도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살기가 막막합니다

질문 : 요즘은 살기가 참 막막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조그맣게 운영하던 장사도 문 닫을 지경에 이르러서 쪼달리는 살림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주인공에 맡기고는 있지만 믿음이 부족한지 의욕이 안 생기고 마음이 우울해지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도록 한 말씀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여러분이 진짜로 자기를 믿고 절감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내가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아주 급박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심정이 돼야 겨우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믿고 그 자리에 놓게 되는 거죠. 어떨 때는 외국 지원에 계시는 신도들이 절박하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알았어. 절박한 만큼 간절하게 관해 봐!" 그러면 그 이튿날이고 전화가 또 뚜르르 옵니다. "해결되었어요."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면 나는 그럽니다. "네 전깃줄과 내 전깃줄이 둘이 아닌 까닭에 불이 들어왔을 뿐이다. 내 전깃줄은 제일이고 네 전깃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전깃줄과 내 마음의 전깃줄을이 같이 합쳐졌으니까 불이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낫게 한 것도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진정으로 믿고 그렇게 하면…. 자기 뿌리를 자기가 안 믿으면 누굴 믿을 겁니까? 이름을 믿을 겁니까, 형상을 믿을 겁니까? 또 스님들을 믿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를 이끌어 가는 진실한 자기를 믿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생각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생각해서, 일을 할 때나 잠을 잘 때나, 또는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항상 자기 뿌리를 잊지 않을 것을 자기 뿌리에 맹세하는 반면에 자기 싹은 열심히 뛰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죠? 부처님이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할 테니 너는 뛰어라."라구요.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하고 가시는데 여러분은 패기가 없어서 과감히 뛰어넘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더 있다 죽으나 덜 있다 죽으나, 이따 죽으나 또 먼저 죽으나 죽는 것은 똑같아요.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뛰어넘질 못합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인데 말입니다. 죽으나 사나 뛰는 마음 자체가 바로 피안으로 넘어서는 도리입니다. 한 생을 살면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쩌나, 저렇게 하면 어쩌나' 하고 망설이기 때문에 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사적으로 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 결사적으로 이 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왜인가? 여러분이 각각 소임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교직이면 교직, 회사원이면 회사원, 장사면 장사 이렇게 제가끔들 다 가지고 있는 그 소임에 따라서 터득을 하면 그게 개척이고, 그게 계발이고, 그게 바로 나를 내가 승화시키는 길입니다. 억지로 높은 자리를 뺏어서 올라갈 양으로 애쓸 필요 없이 자기가 맡은 소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해 나가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발전이라는 것은 마음의 발전을 말합니다. 마음이 발전이 되면 스스로 행도 발전하게 되므로 그것은 바로 여러 사람들에게 다 좋은 일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또 천차만별의 소임이 발전한다면 그 뒤에 발전을 못 하고 가는 사람들도 덩달아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못 먹고 굶주린다고 해서 나의 자부처를 탁탁 털어내 버리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남을 못살게 해서 지금 못사는 거니까 그 뜻을 아시고 '그렇게 못살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살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으니까 내 탓이다. 수행해서 이걸 다 녹이리라.' 하고선 모든 걸 거기다 놓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 거기다 놓기만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조금도 에누리가 없거니와 조금도 허탕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주인공에 놓고 진짜로 믿는다면은 거기서 보디가드도 돼 줄 수 있고 해결사도 돼 줄 수 있다구요. 해결사가 돼 준다고 해서 잔뜩 잘못해 놓은 거를 금세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또한 다 녹이고 끈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그런 위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대충대충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내가 한 게 없이 부처님께서 하신 거죠.

우리가 살면서 더불어 함께 도반으로서 모든 것을 이렇게 배우고 나간다면 요다음 생에 어떠한 차원으로 나와도 여러분이 낳아 놓은 자식들도 염주알 꿰지듯 따라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잘못해도 같이 따라 들어가고 잘해도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생이 따로 있고 현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얼마 안 가서 내생이 되고 현생이 됩니다. 그러니 거리가 멀지 않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변치 않고 주인공에다 모든 걸 몰아서 한도량에 한마음으로 넣고, 일체제불과 한마음이 돼서 우리가 결산을 본다면 크게 이룰 겁니다, 아마. 허공에 꽃이 피어서 그냥 비 내리듯 말입니다.

부모님 봉양 잘하고 싶은데

질문 : 예전에는 인간이라면 효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시대 사람들은 너무 개인주의에 빠져서 부모님 모시기를 다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절에 못 나가게 하시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 봉양을 지혜롭게 잘할 수 있을까요?

답변 :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예요. 우리가 신도님들이 가끔 이렇게 주지 스님도 만나러 오고 나도 만나러 오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만나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걸림이 없이. 그런데 그걸 진실히 하질 않고 가면적으로 하니까, 가면이 아니라고 하지만 벌써 하시는 거 보면 알거든요. 밑에 앙금이 가려서 그렇게 안 되는 걸요. 그럭할 때는 "아, 진짜로 믿고 하면 된다니까 왜 안 믿고 그래?" 그러죠.

이 공부도 그렇고, 살림살이도 그렇고, 배움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공부 해 나가는 사람들은 다 잘 모시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이거 모셔야 된다. 공양을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도 스스로서 잘 모시게 돼요. 하나에서 다 나오는 건데요, 뭐.

그런데 이렇게 밤낮이 있죠? 이렇게 잘되다가도 안되는 때는 바로 밤낮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낮만 알고 밤을 모른다면 에너지가 부착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밤낮이 둘이 아니게 도는 줄 알아야 되겠기에 그것까지도 마저 가르침을 받아야죠. 그건 스스로서 내면에서 그럭하는 거니깐 '아, 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바로 이 내면에서 주인공이 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정신계의 50%를 진짜 가르치기 위해서구나.' 하고 그럭한다면 그냥 그 동시에 풀리죠. 없어지죠, 그게, 그러니깐 그것도 아셔야 하고 저것도 아셔야 하고 그렇습니다. 가시다가 개천이 있으면 건너뛰어서 갈 줄 알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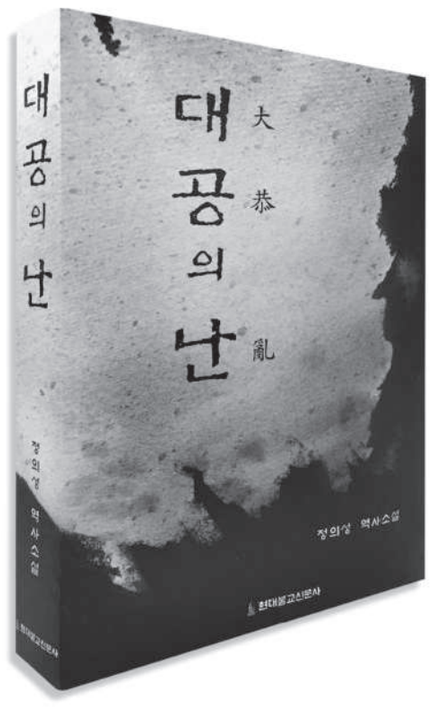
> **일할 때나 잠잘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 **항상 자기 뿌리를 잊지 않을 것을 자기 뿌리에 맹세하는 반면에**
> **자기 싹은 열심히 뛰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마하몰 02)732-1520



용수 스님의 아침편지

참된 행복

행복은 우리의 권리이며 행복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행복을 바르게 정의하고 바르게 따를 때 참된 행복을 갖게 됩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가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아서 행복해집니다. 항상 일이 잘 풀려서 행복해지는 것보다 항상 좋은 태도를 가져서 행복해집니다. 돈이 생겨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감이 생겨서 행복해집니다. 완벽해져서 행복해지는 것보다 받아들여서 행복해집니다. 많은 것을 배워서 행복해지는 것보다 깨어있음을 배워서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행복해지는 것보다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행복해집니다. '어떤 결과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친절하고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꿈을 추구하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꿈은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따르십시오.





진광 스님의 길 위의 풍경들

⑳ 부탄

안녕! 보석 같은 탁상 사원이여!

오늘은 부탄의 상징이자 최고 성지인 탁상곰파 사원을 순례하는 날이다. 부푼 기대를 안고 출발해 사원 입구에서 의식을 치룬 후에 산행을 시작했다. 부탄은 사원을 '종' 이나 '라캉' 혹은 '곰파' 라고 부른다. 종은 요새형 사원을, 라캉은 사찰과 법당의 의미를 가진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사원을 의미한다. 반면 곰파는 은둔의 사원으로 계곡이나 절벽 등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자리한다.

탁상곰파는 부탄 최고의 불교성지이자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은 이곳이 부탄불교의 개조인 파드마 삼바바와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파드마 삼바바가 두 번째 부탄에 올 적에 암호랑이를 타고 날아서 이곳에 왔다고 한다. 그리고 인근의 악마와 도깨비들을 모두 조복시킨 후에 현재의 탁상곰파가 있는 이 바위산의 동굴에서 석달 간 머물며 긴 명상에 들었다고 한다. 이 전설은 부탄에 티베트 불교의 낭마파가 전해지고 부탄 역사의 출발점이 된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탁상은 '호랑이 둥지' 라는 의미이다. 파드마 삼바바가 호랑이를 타고 마치 새처럼 날아왔기 때문에 '둥지' 라는 표현을 한 것이다. 멀리서 바라봐도 높은 산속의 절벽에 위태로이 걸려있는 탁상곰파는 마치 새의 둥지와 같아 보인다. 어찌 저리 험한 곳에 사원을 세웠는지 그 안목과 신심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탁상곰파까지 가는 유일한 방법은 두 발로 걷기이다. 그게 힘들면 조랑말의 네 다리를 빌려서라도 올라야 한다. 거친 산길이니 해발 2600m에서 시작해 탁상곰파가 자리한 3140m까지 가려면 족히 2시간 가량이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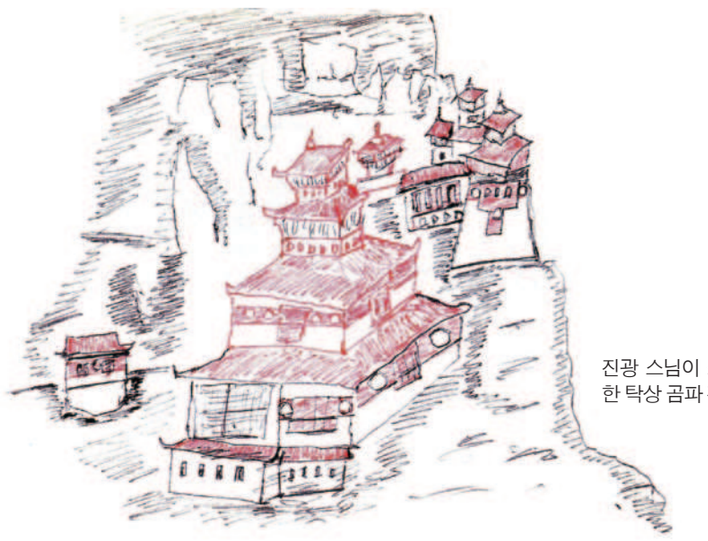
선방에서 수도 정진하는 스님들은 포행으로 단련된 체력이 있겠지만, 서울에서 행정을 하는 수도승(首都僧)인지라 산에 오르기가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연신 '관세음보살' 이라고 탄식이 절로 난다. 칠순이 훨씬 넘은 지도법사 설정 스님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

산행 끝에 만나는 탁상 곰파
파드마 삼바바 수행처 '유명'
낭마파 전해진 부탄의 시발

가고 있다. 그러니 스님께서 "수행자가 매양 본분사를 잊고 딴 짓을 하니 그리 살이 찌고 힘든 것이다"는 준엄한 질책과 호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정말이지 부끄럽고 욕되어 죽을 지경이다.

그런 까닭에 일종의 오기가 생겨 죽을힘으로 안간힘을 쓰며 묵묵히 올랐다. 산을 오르는 이는 정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발밑을 보며 부단히 올라가야 정상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산중턱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한숨 쉬어간다.

여기서 바라보면 탁상곰파가 바로 손에 잡힐 듯이 보이건만,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한 돌계단이 끝도 없이 오르내리는 난관이 남았는지라 한숨이 절로난다. 게다가 설정 스님께서는 어디까지 가셨는지 도통 보이지 않는지라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근처에 해발 2940m에 위치한 카페테리아 겸 전망대가 있어 커피 한잔하고 쉬어가고 싶지만 그냥 쉬지않고 계속 걸어 올라갔다.



진광 스님이 스케치한 탁상 곰파 전경.

깎아진 낭떠러지의 아슬아슬한 돌계단을 조심스레 밟고 내려가니 갑자기 거대한 폭포수가 우렁찬 포효 소리를 내며 장쾌하게 떨어진다. 마치 이백의 '망여산폭포' 라는 시의 "삼천 자 높은 곳의 물이 세차게 떨어지니, 마치 하늘에서 은하수가 쏟아지는 듯 하네(飛流直下三千尺 疑是銀河落九天)"와 같다.

다시 도저히 못 오를 것 같은 돌계단을 기어서 올라 드디어 탁상곰파에 도착했다. 그런데 경비원이 고생했다며 "네가 1등으로 도착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인가. 내 앞에 얼마나 많았는데 그리고 지도법사 스님은 대체 어디 계시단 말인가! 허탈하고 황망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알고보니 일행 모두가 카페테리아에 들려 차를 마신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나만 홀로 기를 쓰고 미친 듯이 올라온 것이다. 이기고도 진 것만 같은 이 기분은 대체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오랜 기다림 끝에 대중이 모두 올라와 대전(大殿)으로 향했다. 순례대중이 한 마음으로 의식을 봉행하고 지도법사 설정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산승이 출가한지 60여 년이 지났건만 뭐 하나 이룬 것 없이 허송세월하며 절밥을 축낸지라 부끄럽고 욕되기만 함이라. 후학들은 산승을 거울삼아 위법망구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지도법사 스님의 말씀에 온 대중이 숙연해지며 울컥해 곳곳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야말로 이번 순례의 '화룡점정(畵龍點睛)' 이라고 할 만한 명법문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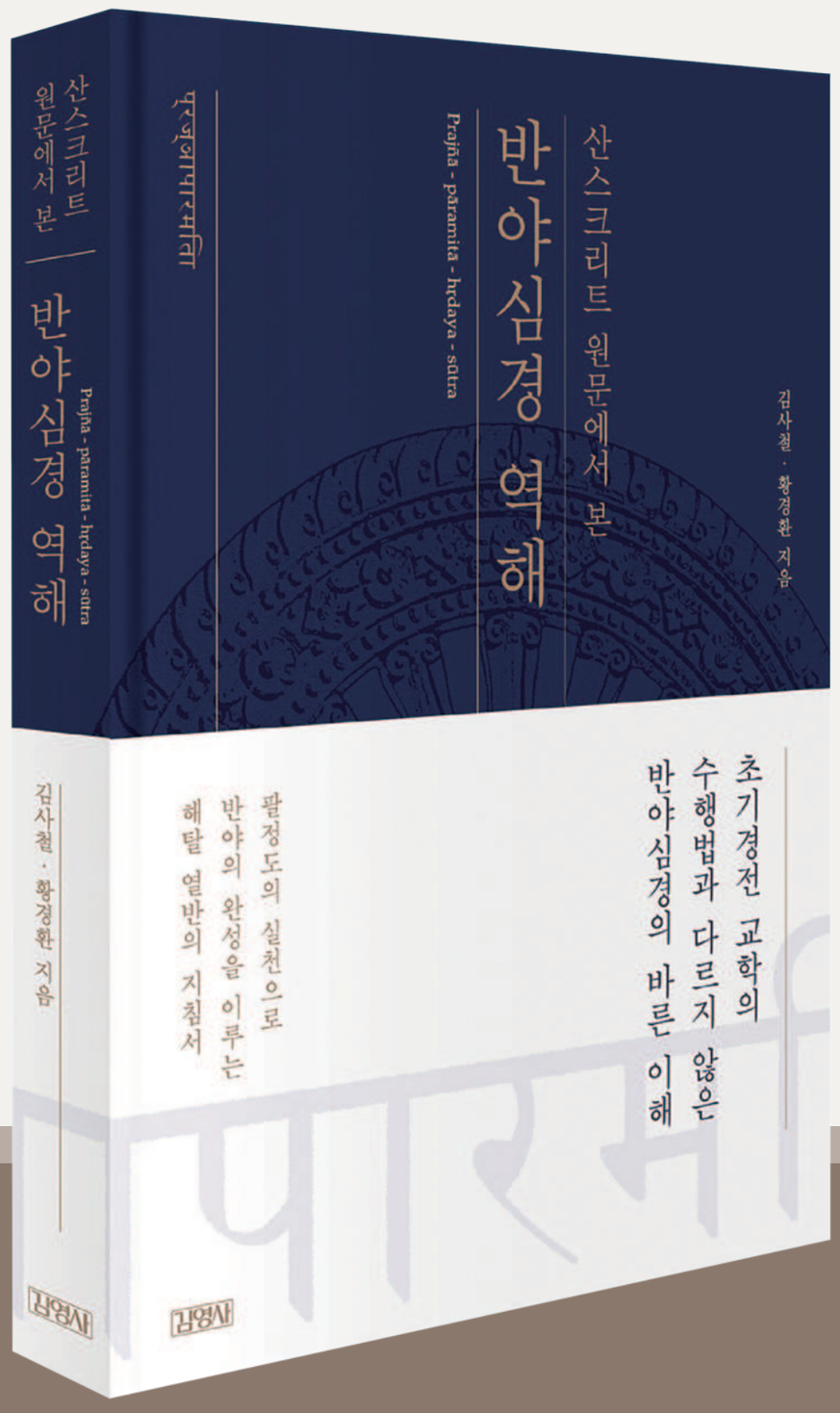
전설적인 수행자인 밀라레빠와 파드마 삼바바가 수행 정진한 유서 깊은 탁상곰파에서의 한나절은 세상의 일평생과 비견할 만 하다. 마치 한 생을 다 살아버린 그런 느낌이었다. 이런 곳이라면 평생을 걸고 수행정진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이젠 돌아서 내려 가야할 시간이다. 하산하는 길에 어디선가 호랑이의 포효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여 자꾸만 고개 돌려 사원을 바라보게 된다.

탁상곰파를 순례한 후에 숙소로 돌아와 휴식하다가 저녁 공양 후 모두 모여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들 자신의 생과 수행에 있어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순간이자 대전환의 시간이 되었노라고 한다. 대중 스님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고 모두들 영원을 본 듯한 행복한 마음들이다. 모두가 제2, 제3의 밀라레빠나 파드마 삼바바처럼 수행정진해 세상의 빛과 목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계종 前 교육부장〉



깨달음에 이르는 21세기의 로드맵
명상으로 증명하고 실천으로 완성하는 반야

저자는 이렇게도 말한다.
대승불교공부를 30여년간 해 왔지만 솔직히 말해 이 반야심경의 大意를 명확하게 이해를 할수가 없었다.
그래서 20여년전 인공지능의 세계적인 선구자 김사철박사와 산스크리트원문에서 본 반야심경을 공저로 출판한후
다시 초기불교의 기초지식을 익히고 점검하고 쌓은후 이번에 개정증보판을 한국불교1600년史에 밝혀지지 않았던
반야심경 말미의 다섯 만트라의 비밀을 풀다라는 각주를 달아 출간하게 되었다.
반야심경의 대의는 심경말미의 다섯 만트라(가테가테, 파아라가테, 파라상가테, 보디, 스바하)로 설명하고 있다.



김사철·황경환 | 272쪽 | 15,800원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
Prajñā - pāramitā - hṛdaya - sūtra

- 추천사 -

"이 책은 초기불교의 공(空) 개념을《반야심경》의 공 해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또한 이제 까지의 해설서에서 간과되어왔던 계(戒)의 중요성을 새롭게 읽어내고,
이것을 정(定)과 혜(慧)의 삼학(三學)으로 엮어 말미의 만트라로 귀결시킨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너무나 친숙하여 오히려 무심하게 낭송해 왔던《반야심경》을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돌이켜보도록 자극하고 있다."
_임승택(경북대 철학과 교수)

"《반야심경》을 초기불교 수행법에 따라 체득하겠다는 도전과 진솔한 체험이 담긴 이 책은
우리 시대의 방식으로《반야심경》의 생명력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_강성용(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김영사 TEL:031)955-31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현대불교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제 1314 호 B1

만행결사 노을 자비순례

우리, 그들과 함께 걸어야 하지 않을까

시절을 운운하는 일처럼 쉬운 일이 있을까
유례없이 힘겨운 오늘도 말(言)은 넘치지만
모두가 기다리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저 멀리 걷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어제도 오늘도 말없이 걷고 있는 저들은 누구인가
따뜻한 눈과 분명한 걸음으로 우리 곁을 지나는
그들은 정녕 누구인가

새벽을 걸어온 그들의 발자국에
아침을 여는 그들의 눈동자에
한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가슴속에
모두가 기다리는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들의 발자국이 오늘의 소식이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모두가 오늘의 소식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그들과 같이 걸어야 하지 않을까

글 · 사진=박재완 기자

INSIDE
B2·3 만행결사 자비순례 21일 대장정
B4 ‘상월결사 의미와 과제’ 대중공사 Ⅰ
B5 ‘한국불교 어디로 갈 것인가’ 대중공사 Ⅱ
B6 자비순례 지원한 외호대중들
B7 만행결사 자비순례 현장 화보

1일차 동화사 입재 ▶ 5일차 신라불교초전지 132km ▶ 6일차 낙단보 마애불 163km ▶ 9일차 문경 대중공사 I 212km ▶ 11일차 문경새재 268km


동화사 자비순례 입재식


순례단 새벽 순례


신라불교초전지 아도화상 헌향재


낙단보 마애불 법회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 증명 법어

걸음 걸음마다 화두 참구를…



當機一句千古輝(당기일구천고휘)
臨危不變是丈夫(임위불변시장부)

기틀에 다다른 일구는 천고에 빛남이요,
위태로움에 당하여 변치 아니함은 이것을 방부라 칭(稱)함이라.

기틀에 합당한 일구(一句)는 종사가(宗師家)의 안목(眼目)을 갖춘 이라야, 석화전광(石火電光)과 같이 염출한다.

종사가들이 상봉(相逢)하여 진리의 세계를 거량할 때, 그 한마디 한마디와 일거일동은 돌불보다도 빠르고 번갯불보다도 빠르다. 이렇게 빠르고 밝은 눈을 갖추신 분이야말로 천고(千古)에 선지식이 됨이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길에서 탄신(誕辰)하시고 길에서 대오견성 하시고 길에서 설법(說法)하시다가 길에서 열반(涅槃)에 드셨습니다.

2600년 전 새벽 별을 보고 깨달으신 그 부처님의 길을 따라 사부대중(四部大衆)이 만행결사 자비순례 정진에 나서니, 부처님의 진리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현전(現前)함이라.

이에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생사를 요달(了達)할 수 있도록 가일층 정진하기 바라노라.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간절한 마음으로 챙기고 의심하기를 하루에도 천 번 만 번해야 할 것이라.

그렇게 걸음걸음마다 호흡 호흡마다 혼신(渾身)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 문득 참의심이 발동하게 됨이라.

이때는 사물을 보아도 본 줄을 모르고, 소리를 들어도 들은 줄을 모르는 상태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일 년 이고,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가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고 자기의 참모습이 환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부처님의 땅에 이르게 되고, 천 칠백 공안이 한 꼬챙이에 다 꿰어버리게 되어, 누가 어떤 법문을 물어와도 척척 바른 답을 내놓게 되는 법이로다.

이것이 호왈(號曰) 대오(大悟)견성(見性)이고, 확철대오(廓撤大悟)이니, 반드시 눈 밝은 선지식을 친견하여 바르게 점검받고 인가를 받아야 함이라.

〈중략〉

금일 3 · 7일 노상에서 씨름하는 모든 대중은 알겠는가?
보고 또 보라!

국난극복 불교중흥의 염원

만행결사 자비순례 21일의 대장정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께서 인류의 정신 새벽을 여시었듯이, 오늘 우리는 국난극복의 새로운 새벽을 열어, 국민이 기쁘고 행복한 보살행원의 길을 가겠나이다. 우리가 내딛는 걸음걸음은 고난과 고행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걸으시며 행하셨던 진리와 자비의 행을 이어받아, 이 땅에 불국정토를 장엄하는 길임을 믿겠나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자비순례의 길을 나서옵니다. 동참 대중 모두가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을 발원하오니 섭수하시어 환하게 밝혀주시 옵소서."

여명이 움트기 전인 새벽이면 만행결사 자비순례 순례단의 하루는 시작됐다. 부처님께 올리는 발원문을 함께 낭독하고 순례단은 길을 나선다.

상월선원 만행결사는 10월 7일 대구 동화사 통일약사대불보전 광장에서 입재를 갖고 21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이날 입재식에는 종정 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가 직접 증명법사로 참여해 법어를 내리고 순례단을 독려했다.

진제 법원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2600년 전 새벽별을 보고 깨달은 부처님의 길을 따라 사부대중이 만행결사 자비순례 정진에 나섰다.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가 나를 낳기 전 나는 무엇이었는가는 화두를 안고 정진해달라"며 "신심을 갖고 용맹정진하는 이만이 화두를 타파할 수 있다. 자비순례에 동참하는 모든 대중이 일거수 일투족에 화두가 가득하길 바란다. 깨달음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라"고 당부했다.

순례의 목적은 개인의 수행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코로나19로 시름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기고, 새로운 불교의 모습을 보여 불교 중흥을 이끄는 대서원의 발로였다.

순례단은 대구 동화사 입재식 후 총 132km를 걸어 10월 11일 구미 신라불교초전지에서 아도화상 전에 헌향하고 고구려에서 신라로 불교를 전래한 아도화상과 같이 불교중흥을 위한 걸음을 계속 할 것임을 다짐했다.

헌향재를 위해 결사대중은 10일 숙영지에서 새벽 4시에 출발했다. 대구에서부터 4일간 100여 km를 걷고 다시 5일차 28km의 구간. 자원봉사자들과 의료팀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수일간의 순례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다. 10일까지 관절염증과 근육통, 물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이들만 43명에 달했다. 하지만 신라불교초전지에 도착한 결사대중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10월 7일, 동화사서 대장정입재
10월 11일, 신라불교초전지 헌향
10월 12일, 낙단보 마애불 법회
10월 15일, 문경서 첫 대중공사

헌향 후 격려사에서 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지난 겨울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수행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중무문관 수행으로 참선수행이 한국불교 수행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켰고, 사부대중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다"며 "부처님이 걸어서 전법을 하셨듯, 올해는 만행의 형태로 결사를 추진함으로써 수행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난극복과 불교중흥을 위한 걷는 수행으로 불교의 새로운 바람이 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순례단은 10월 12일 총 163km를 걸어 불교 성보지킴과 환경운동의 상징이 된 의성 낙단보 마애불에서 법회를 갖기도 했다.

낙단보 마애불로 알려진 의성 생송리 마애보살좌상은 2010년 10월 6일 낙단보 구간 발파 작업 중에 발견됐다. 성보를 잃어버릴 위기에서 조계종은 10월 20일 성명을 내고 26일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이 현장을 방문하게 된다. 이 당시 조계종은 정부당국에는 소중한 성보유산을 보존해줄 것을, 불자들에게는 성보의 존재와 보존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에 불자들의 원력이 모여 12월부터 구미 대둔사 주지 진오 스님이 매일 예불을 올리기 시작했고, 2011년 2월 1000여 사부대중이 생명살림 1080배 정진을 올리며 결국 마애불을 지켜냈다. 공사과정에서 훼손될 뻔한 마애불을 지켜내고 마애사 불사까지 일군 원력이 10년이 지난 2020년 10월 12일 만행결사 자비순례라는 이름의 새로운 원력과 맞닿은 자리였다.

순례단은 이후 매일 수십km를 걷느라 힘든 와중에도 한국불교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도 가졌다. 9일차인 10월 15일에는 문경 STX리조트에서 '상월결사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교계 안팎의 학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대중공사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불교계를 대표하는 출 · 재가 불교학자들이 상월선원 천막결사와 만행결사의 전반을 분석하는 소논문을 발표했으며,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순례단은 이를 경청했다.

11일차인 10월 17일에는 문경새재를 넘어 반살림을 고했다. 문경새재는 입재식 후 총 368km를 걸은 구간으로 순례의 반환점이자 가장 고된 길이기도 했다. 이화령이 보이는 진안리부터 문경새재 관문이 있는 이화령까지는 8km. 예로부터 구법승들이 넘었던 새재길에서 순례단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해발 548m의 고갯길을 넘으며 순례단은 하나가 됐고, 이런 순례단의 길에 수많

환희의 미소 순례단의 얼굴에 꽃피다

국민희망 된 순례, 응원 감사

순례단 1조 조장 우봉 스님



우봉 스님은 선두조인 1조 조장으로서 이번 순례를 진행했다. 우봉 스님은 "코로나19 시기에 정부 당국이 방역을 나서는 상황에서 스님들과 불자들이 순례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의 의지를 알린 뜻깊은 순례였다"며 "의사들이 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했다면 순례에서 정진하고 있는 이들은 신심으로 방역을 했다"고 말했다.

정주 형태로 같은 일정을 소화하는 태화산 예비순례와 달리 이번 국난극복 자비순례는 많은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만 했다. 조별 발열점검부터 건강점검, 상황전달 등 매순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일들이 이어졌다.

스님은 "이번 순례가 개인의 행선을 넘어 하나의 대중 수행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스님은 "모두가 마음을 내 한걸음 한걸음마다 국민들의 행복을 기원하고 걸은 것이 부처님의 가피로 회향돼 국민들 행복이 증진되리라 본다"며 "순례단도 힘들고 지칠때마다 응원하고 한걸음 한걸음에 희망을 거는 국민들을 보며 힘을 냈다"고 말했다.

감동불교 되도록 노력할 것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10월 6일 취임했다. 이번 자비순례가 입재한 날은 10월 7일. 취임 후 첫 행보가 바로 순례였다.

"자비순례가 진행된다는 말에 바로 동참을 결정했습니다. 순례과정에서 앞으로 중앙신도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화두로 정진했습니다."

주 신도회장에게 이번 순례 동참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취임 직후 3주간 자리를 비우기도 하는 것이려니와 개인적으로 매일 2~30여 km를 걷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발에 물집이 잡혔지만 주 회장은 끝까지 순례에 함께 했다. 주 회장은 "사부대중이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정진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한다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불교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생각을 다시 느끼게 한 기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이번 순례는 불교 중흥이라는 목적 말고도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큰 명제가 있는 만큼 순례에 임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순례 이후에도 불자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겠다"고 다짐했다.

한반도 평화의 새 순례 기대

김용현 동국대 교수



"이번 만행결사는 한국불교에 대한 새로운 열망을 담는 자리였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그 누구보다 이번 순례의 가치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이다. 그는 이번 순례를 통해 한국불교가 한차원 높은 곳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추위를 녹일 수 있는 불자들의 마음이 함께 느껴져 더 없이 따뜻한 순례였다"며 "21일간 큰 결심으로 서로 격려하며 만행에서 참 번뇌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삶을 축적해나가는 에너지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김 교수는 학교에 봉직하는 물리적인 어려움에도 순례단과 학교를 오가며 대부분의 순례에 참여했다.

북한학을 전공한 김 교수의 행선 화두는 자연스럽게 '한반도 평화'였다. 김 교수는 이런 화두를 계속 참구했고, 대중공사에서 차기 순례로 평화순례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번 자비순례가 새로운 방식으로 회향됐으면 한다.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큰 명제 속에서 새로운 순례의 장이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평발 아픔, 책임감으로 극복

김정도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



이번 만행결사 자비순례에 참여한 결사 대중 중에는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결연한 의지로 이를 이겨내는 이들이 있어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인 김정도(28)씨는 그 중 한 명이다.

그는 대학 학부 총학생회장인 이제준 씨와 함께 이번 순례 21일 일정에 동참하고 있다. 김 씨는 "불교종립대학인 동국대 일원으로서 이번 순례에 꼭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순례 참석 계기를 밝혔다.

동국대 학생대표로서 어깨가 무겁다는 그에게는 작은 고민이 있다. 바로 평발인 것이다. 첫날부터 물집이 많이 잡혔지만 끝까지 순례단과 함께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많이 아팠지만, 아파도 계속 걷다보니 그대로 통증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김 씨는 "그동안 살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이번 순례를 통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마음이 어떤 힘을 주는지 느끼게 됐다. 순례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국가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곳곳에서 사람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지는 데 함께 나섰으면 좋겠다"고 했다.

원력 세우며 도전정신 다져

윤정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윤정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은 자비순례를 통해 새로운 인생철학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윤 회장은 이번 자비순례에 앞서 봉은사서 매주 목요일 진행된 새벽정진부터 순례에 동참했다. 수없이 걷기를 연습했지만 가냘픈 몸으로 21일의 511km 여정을 소화하는 것은 다소 무리였다. 순례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아 발에 누적된 피로로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윤 회장은 앰뷸런스를 타고 순례를 끝까지 이어갔다.

윤 회장은 발이 나아 순례에 동참했다. 신체의 아픔도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직접 보였다. 윤 회장은 "이번 순례에는 함께 수행하는 이들이 같이 걷기 때문에 더욱 힘이 난다"고 말했다.

순례가 끝나면 학업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학우들을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순례 일과를 공유하고 있는 윤 회장. 윤 회장은 순례 이후에도 청년불자들의 도전 정신을 높이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불교를 중심으로 함께 모인 이 길이 너무 행복합니다. 청년불자들의 원력을 모으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14일차 충주 중앙탑 350km ▶ 17일차 양평 대중공사Ⅱ 411km ▶ 20일차 봉은사 488km ▶ 21일차 상월선원 · 봉은사 회향 511km


문경 대중공사 I


문경새재 종단


야외에서의 취식


불자들 환영받는 순례단

2020년 한반도를 장엄하다

은 불자들이 힘을 보탰다.

"선방에서는 안거수행의 반환을 도는 것을 반살림이라고 합니다. 이제 국난극복 불교중흥,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반살림을 맞았습니다. 부처님, 코로나 회복과 국민 화합을 위한 순례길을 굽어살피소서"

문경새재 관문에서 총도감 호산 스님의 집전으로 순례단은 부처님에게 순례가 반환점을 도는 것을 고하며 국난극복을 기원하는 축원이 진행됐다. 걷느라 지친 상황에도 순례단은 모두 합장하고 함께 합송했다.

호계원장 무상 스님은 "힘든 과정을 이겨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라며 "순례단이 걷는 한걸음 한걸음이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화사 회주 의현 스님을 비롯해 동화사 신도 100여명이 순례단의 무사회향을 기원하며 직접 문경새재를 방문했다.

발걸음을 재촉해 순례 13일차인 10월 19일, 결사대중들은 최장거리인 36km를 걸었다. 긴 거리지만 오히려 속도를 내 이날 순례는 7시간 만에 끝났다. 회향이 다가 올수록 순례단의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14일차인 10월 20일 순례단은 국토의 중앙인 충주 구간을 지났다. 이동거리는 350km로 회향까지는 161km가 남은 지점이었다. 경기도에 진입하자보다 많은 일일 참여자들이 참가했다. 작은새재로 불리는 소조령을 넘는 순례단은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을 만나 참배하기도 했다.

17일 차인 10월 23일에는 양평 소노문리조트에서 2차 대중공사가 열렸다. '한국불교, 어디를 걷고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란 주제 속에 조계종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의 한국불교 현황자료를 놓고 중앙종회의원과 순례단 등 불자들이 모여 불교 중흥을 논하는 자리로 열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행결사 자비순례는 밖으로는 코로나19 상황서 국난 극복의 희망을 전했으며, 안으로는 불교발전의 밑바탕을 다지는 기회를 만들었다.

26일 순례단은 구리토평 가족캠핑장을 출발해 구리한강공원을 지나 서울로 진입했다. 한강을 따라 걷는 순례단의 마음은 더욱 가벼워보였다. 순례 전 매주 목요일 진행된 봉은사 새벽정진에서 보던 풍경이 펼쳐져 걷기는 더욱 수월해 보였다. 서울 봉은사에 들어설 때 순례단을 향한 꽃비가 뿌려졌다.

이어 진행된 자자에서는 순례에 동참한 이들의 사연과 21일 대장정에 임한 소감, 그리고 반성과

10월 17일, 문경새재 일심으로 넘고
10월 20일, 국토의 중앙인 충주거쳐
10월 23일, 양평서 두번째 대중공사
10월 27일, 봉은사에서 새출발 기약

앞으로 결사에 임한 각오가 함께 공유됐다. 각자의 화두를 치열하게 궁구한 21일 순례단에는 도반으로서의 격려와 열정만이 남아있었다.

21일간의 대장정인 만큼 이번 만행결사 자비순례는 82명의 순례단 뿐만 아니라 공양팀, 운영팀, 상황팀, 자원봉사팀, 의료팀 등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됐다. 이뿐만 아니라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 주호영 전 국회 정각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각계 인사들과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등 학계 인사, 불자들과 지역민들의 동참도 이어졌다.

각계 참여 중 가장 고무적인 것은 청년불자들의 동참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원 학생들을 비롯해 동국대 대학원생, 오산 대각사 청년회 등 사찰 청년회에서의 참여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새롭게 엿볼수 있는 기회였다.

또 지역사찰들의 순례단을 향한 봉사는 한국불교가 큰 원력 하에 결집할 수 있는 힘을 느끼는 계기였다.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대구 동화사를 비롯한 지역 교구본사 대사찰 뿐만 아니라 작은 말사에서도 십시일반 할 수 있는대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순례의 앞뒤에서는 교통경찰들이 에스코트에 나섰으며 구간마다 지역 포교사들도 자원봉사자로 나와 안내를 도맡았다. 경북경찰청 보현불자회 회원들을 비롯해 지역 경찰들은 자발적으로 안내를 맡았다. 이해원 동국대 일산병원장을 비롯해 동국대 병원 연우회 등에서 의료봉사에도 나섰다.

장기간의 노숙을 동반한 순례인 만큼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이들도 있었다. 발목을 다친 설암 스님, 전신 타박상을 입은 본오 스님 등 부상자가 나왔지만 결코 포기하는 이는 없었다. 걷지 못하는 이는 차량을 타고, 뛰어야만 하는 진행과 취재팀들은 자전거를 타고 순례에 함께했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상월선원 만행결사는 역동적인 불교, 대중과 함께하는 불교를 새롭게 제시하기 위해 시작된 불사"라며 "부처님이 걸었던 전법길을 따라갈 1080km의 인도만행결사까지 시대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치유하도록 계속 걸을 것"이라고 고 밝혔다.

한국불교는 상월결사의 전과 후로 그 모습이 변화할 것이라 진단하는 이들이 많다. 지난 겨울 좌선 수행의 새로운 모습을 보인 상월선원 천막결사와 함께 행선과 국난극복이란 발원 속에 진행된 만행결사 자비순례는 불교의 새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상월결사정신의 발현을 통해 국민에 희망을, 불교엔 중흥의 기운이 맺어지길 기원한다.

만행결사 자비순례 고불문

모든 걸음을 행원의 과정으로…

시방삼세에 두루하시는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옵니다.

오늘 도량에는 불법 아래 진중한 인연이 조화롭고, 공존과 상생을 실천하겠다는 서원으로 일심을 이루었으니, 거룩한 부처님께 고하여 올리는 마음 또한 청정합니다.

사회의 평온과 화합을 환하게 밝히겠다는 사부대중의 서원이 더없이 선명하기에 불은으로 열어주신 길을 따라 힘차게 걷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딛는 걸음걸음을 섣불리 고행이라 여기지 않고 한 걸음이 행원의 과정이요, 한 걸음마다 의지의 실천으로 삼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열어주는 마음의 길을 따라 함께 걷고 그 길을 걸으며 나에게 묻고 나에게 답을 얻겠습니다.

근래에 수많은 생명은 고통에 쌓이고 세상은 어지럽기에 첫 걸음을 나서는 마음에 걱정이 앞서지만, 걷는 길에는 감사해야 할 대지가 풍요롭고 서로가 의지하는 서로가 바로 곁에 있으니, 불국토를 장엄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묵묵히 걸어가겠나이다.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맑게 걷어내고 불안한 국민의 마음은 깨끗하게 씻어내어 희망과 행복의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매일 축원하겠나이다.

국민들이 편안하여 화합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여 이웃과 함께 화목하며, 한국 불교의 미래가 환하게 밝아지도록 일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



신심과 원력이 하나가 되는 정진이 곧, 너와 나를 이어주는 자비와 지혜의 길이며, 모든 사람의 복덕으로 고르게 나눠주는 회향의 공덕임을 알아가겠나이다.

이미 정토인 곳에서는 예경을 올리고, 이제 정토가 되어야 할 곳에서는 오늘의 정진을 기꺼이 나누어 보답하겠나이다.

지난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열정과 성원은, 감동하고, 감사하고, 회향하는 실천이 얼마나 가슴깊이 진중한 것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천막결사의 정신은 여전히 뜨겁고 생생합니다. 수행의 진작이 불교 중흥의 주추를 세우는 일이며 국민의 화합으로 이어지고 세상의 평화로 화답해 오는 길임을 저희들은 이번 만행결사의 한걸음 한걸음에서도 알아가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옵니다. 종단의 중흥이 사회의 평온으로 나아가기를 동참대중 모두 부처님께 고하오니 섭수하시어 곧고 너른 길을 환하게 밝혀주시옵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상월 만행결사 자비순례 사부대중 일동

붓다의 발을 닮아간 순례단의 발

捨欲苦行의 길, 원력 그대로 511km 걷다

〈사욕고행〉

'절하는 무릎이 얼음같이 시려도
불을 그리는 마음 없고
주린 창자가 끊어질듯 하여도
음식을 구할 생각이 없네'

〈발심수행장〉에서 이르는 사욕고행의 길,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는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을 위한 대원력 하에 이뤄진 치열한 수행의 현장이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에게 한계란 없어 보였다. 최대 36km를 걷는 길, 해발 548m의 고갯길을 넘는 길, 길이 끊어진 바위투성이길은 부처님이 전법구도행을 했던 인도의 만행길과도 같았다.

새벽길을 걷는 고단함도, 화장실이 없는 불편함도, 길 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어려움도 많았다.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 511km를 걷는 21일간의 대장정에는 곁에서 보기보다 훨씬 더 많은 난관이 있었다. 새벽에 나선 순례단은 서너시간을 걸어 아침공양을 했다. 지친 기색이 잠시 보이다가도 순례가 다시 시작됨을 알면 아픔을 딛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평소에 매일 30km씩 걷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순례단이 오랜기간 길을 걸으며 생긴 발의 통증, 발목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걷기가 아닌 불교중흥을 위한 대작불사라는 원력하나 때문이었다.

매일 텐트에서 기거하는 것은 추위도 문제였지만 벌레에 쏘이고, 씻지 못한 가려움 등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간혹 리조트나 호텔에 들릴 때


삼현 스님의 발

박기련 지원단장의 발


부은 발등의 아픔에도 미소를 보이는 회주 자승 스님


비구니 영명 스님의 발


총도감 호산 스님의 발

마다 수일동안 밀린 빨래를 하는 것은 순례단의 일과였다.

상월선원 결사정신을 잇기 위한 만행결사이기에 그 누구의 불평도 없었다. 스스로 신심과 원력을 갖고 나선 고행이기에 순례단의 얼굴에서는 어느 순간에서나 환희로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이러한 고행과도 같은 순례에서 매 구간마다 의료지원실을 찾는 순례단원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많은 순례단원들이 물집 제거를 위해 의료지원실을 찾았다. 물집 뿐만 아니라 장기간 야영으로 인한 피부염 등을 앓는 이들도 많았다.

하지만 고난에도 순례단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함께 걷는 도반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순례단을 이끈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은 발등과 발바닥이 불편했지만 내색 하나 내지 않았다. 평소 편치 않는 무릎에 무릎 보호대를 장시간 착용해 피부염도 발생했지만 순례단을 꿋꿋이 이끌었다. 항상 긍정적인 모습으로 미소짓는 자승 스님을 보며 순례단은 다시 한 번 힘을 냈다.

호계원장 무상 스님도 물집이 많이 생겨 매번 의료지원실에서 물집 제거 치료를 받았지만 아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태화산 예비순례에서 쥐가 났던 중앙종회의장 법해 스님도 문경새재길을 거뜬히 올랐다.

순례단 살림을 책임진 총도감 호산 스님도 새끼발가락에 테이핑을 했고, 갑작스런 순례행으로 물집이 많이 생겼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순례단 앞과 뒤를 계속 오가며 살림을 책임진 박기련 지원단장 등 순례단 모든 이들의 발은 크고 작은 상처로 가득했다. 순례단의 발은 상처투성이였지만 얼굴엔 환희심만이 가득했다.

순례단은 늦여름 출발하여 초가을이 되도록 길 위에 있었다. 가을과 함께 찾아온 새벽의 추위도, 한낮의 뜨거운 햇빛도 순례단의 앞을 막을 순 없었다. 매 순간 힘이 부칠때면 한발 한발 함께 힘을 더해 마침내 매일 순례의 종착지에 도달하곤 했다. 그들이 걷는 길 옆으로는 단풍이 들어가는 산과 강이 힘을 보탰다.

2500여 년 전 고행에 나선 부처님의 전법의 길이 이랬을 것이다. 45년 간 중생들의 삶 속에 걷고 또 걸었던 부처님. 부처님이 한 명의 구도자를 넘어 성인으로 추앙받을 수 있었던 건, 육신을 초월하여 중생구제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정진했던 한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인간의 발을 순례단의 발은 닮아가고 있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 지성, '상월결사'를 논하다

대중공사 세미나
상월결사 의미와 과제

상월선원 만행결사 순례단은 10월 15일 문경STX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상월결사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불교계를 대표하는 출 · 재가 불교학자들이 상월선원 천막결사와 만행결사의 전반을 분석하는 소논문을 발표했으며,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순례단 대중은 이를 경청했다.

문경=신성민 기자



상월선원 만행결사 순례단은 10월 15일 문경STX리조트서 '상월결사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대중공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노덕현 기자

"붓다 정신을 계승한 구법 결사"

자현 스님 '수행과 전법의 길로써 상월결사'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은 '수행과 전법의 길로써 상월결사' 발제를 통해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고려시대 지눌의 수선사 결사 정신이 온축돼 있으며, 만행결사 역시 붓다가 강조한 순례의 정신이 연결돼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불교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은 불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승려의 문제"라고 지적한 자현 스님은 고려불교를 변화시킨 지눌의 수선사 결사와 2년 7개월 동안 고려에 머물며 무생계를 설한 인도 승려 지공선현의 일화를 예로 들고, 변화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자현 스님은 "지눌의 개창 이후 약 170여 년 만에 송광사는 동방제일도량이라는 최고 존칭으로 불리게 된다. 이는 지눌이 추구한 선수행과 청정성의 회복이라는 결사 운동이 고려불교에 강력한 족적을 남겼음을 의미한다"면서 "천막결사라는 최소를 통한 청정과 무문관이라는 치열한 수행은 지눌과 지공을 결합하는 최상의 가치를 도심 속에서 구현한 현대불교의 획을 긋는 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10월 7일 입재법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행결사에 대해서는 〈유행경〉 등 8종의 열반 문헌에서 그 기원이 확인됨을 설명하고 순례의 가치를 오늘날에 되살리고 있다고 자현 스님은 강조했다. 또한, 당나라 현장 스님의 인도 구법행의 특징을 교육과 순례에 있음을 상기시킨 자현 스님은 "현장의 인도 구법은 교학적 공부와 실천적인 성지순례의 두 가지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법의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현장은 유식학의 수학과 천제도수의 성지를 참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며 "만행결사의 대상이 인도이며, 하루 30km의 순례와 더불어 매일 같이 1~2시간의 교육 및 토론이 진행되는 구조는 진정한 구도의 길을 상기시킨다. 이는 21세기의 진정한 구법행"이라고 주장했다.

'중생 찾아가는 불교'로의 선언

혜명 스님 '국난극복의 길로써 상월결사'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혜명 스님은 '국난극복의 길로써 상월결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을 모색하다' 발제를 통해 상월선원이 보여준 일련의 결사들은 "기존의 '중생이 찾아오는 불교'가 아닌 '중생을 찾아가는 불교'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혜명 스님은 상월결사가 태동한 중요한 역사적 배경으로 중생에게 유리(遊離)돼 중생이 찾아오지 않으면 중생에게 다가갈 수 없었던 600년 산중불교 프레임을 꼽았다. 또한 현대 한국불교가 타성에 젖어 산중불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대와 사회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도 배경으로 제시했다.

혜명 스님은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부처님 성도지 부다가야를 상징으로 채택함으로써 부처님 성도가 가진 본래 정신을 구현하고 불성도(佛成道)의 본의를 좇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봤으며, 만행결사는 "부처님의 행화(行化)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혜명 스님은 상월결사를 새로운 불교로의 전환을 선포한 일종의 선언이라고 했다.

스님은 "상월결사는 위례신도시 건설현장 가운데 비닐 천막으로 지어진 선원에서 외호대중이 시끌벅적한 야단법석 가운데서 진행된 동중정(動中靜)의 새로운 결사방식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중생과 유리된 불교가 아니라 중생에게 한걸음이라도 더 다가서는 불교가 되겠다는 서원을 표출한 것이며, '중생을 찾아가는 불교'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월결사의 두 번째 행보인 '불교중흥 · 국난극복 자비순례'는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교 진로를 모색하며, 동시에 국가와 세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시대에 맞는 불교로의 새 변화

황순일 '상월결사의 역사적 의의'



황순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불교대학장)는 '상월결사의 역사적 의의' 발제를 통해 상월선원 일련의 결사들이 현대에 맞게 요구되는 변화의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 '앉은 불교에서 움직이는 불교로, 침체된 불교에서 활기찬 불교로, 소극적 불교에서 적극적 불교로, 미래불교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라는 상월결사의 신념은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불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변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대해 황 교수는 승가와 재가가 상호보완적 구조를 보여준 사례라고 상찬했다. 그동안 출가자는 수행을 위해 안거 기간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재가자는 접근이 안됐으나,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이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결사에 참여한 스님들이 청규에 따라 용맹정진하는 동안 결사를 외호하는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상월선원에 와서 천막결사를 응원하고 보시하여 올바르게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왔다. 한국적 승가와 재가의 상호보완적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행결사 자비순례에 대해 1930년 '사띠야그라하'를 표방하고 24일 동안 390km를 걸었던 간디의 '소금 행진'과 연결된다고 봤다. 간디의 소금 행진은 영국 정부의 소금 독점과 과세에 대한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78명의 지지자로 시작해 행진이 끝날 즈음에는 동참자가 6만 명으로 늘어났다.

황 교수는 "간디의 소금행진은 정치 · 사회적 요구로 출발했지만, 만행결사는 지극히 불교적인 발원과 오랜 순례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이번 만행결사는 한국불교가 스스로 변화하겠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담보하는 장대한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불교 지성들이 말하는 상월선원

주요 발제 이후에는 9명의 불교 지성들이 자유롭게 상월결사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했다. (가나다순)



평화 · 통일순례로 확장을

김용현 동국대 교수

현재의 상월결사는 대중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는 출 · 재가가 함께하는 결사운동이다. 인도만행결사가 원만성취 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라면 자비순례를 통일 · 평화순례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계사와 장안사, 유점사, 표훈사를 순례하는 금강산 만행결사와 고성서 파주까지 250km에 이르는 DMZ평화순례를 제안한다. 평화, 생명 공동체는 미래불교가 나가야 할 길이다.



불교 변화 이끄는 시발점

김성규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앞선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부처님 안거이고 이번 만행결사는 안거를 마치고 수행자들이 유행하며 전법하고 수행하는 모습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시대다. 탈종교현상이 급격히 일어나는 상황에서 상월결사는 이 시대의 불교가 어떻게 콘텐츠를 개발할지를 계속 고민하게 한다. 이 같은 고민들은 한국불교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상월결사, 내게 던지는 화두

석길암 동국대 교수

상월결사 시작 후 주변에서 '그것을 왜 하냐'고 묻는다. 무성의할 수 있지만, 이 질문은 원력과 자성에 대한 첫 발걸음이다. 나 역시 결사가 이뤄지면서 '불자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계속 되묻고 있다. 불교학을 공부하는 학자임에도 그동안 이 같은 질문들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불자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는 이 순례를 보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고민들이다.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하며 세상을 변화시켰으면 한다.



자비순례 좋은 결실 맺길

송일호 동국대 불자교수회장

오늘 발제문 중 자현 스님이 말씀하신 "거대한 종교라도 고착화되고 타성화되면 역사 속에서 사멸하게 된다"는 지적이 깊게 와 닿았다. 현대사회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산중이나 경전 속에 매몰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혜명 스님의 "이번 만행결사는 중생에게 찾아가는 순례불교의 시작"이라는 해석도 깊이 공감한다. 이번 자비순례가 좋은 결실을 맺어 현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



부처님 가르침 體化 현장

안양규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

〈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자신의 입멸 후 어떻게 살라고 했을까. 부처님께서는 "법과 율을 스승으로 삼으라" 고 하셨다. 수천개의 탑을 짓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에 동참한 사부대중 한 명 한 명이 부처님 말씀을 체화(體化)해 이를 다른 도반과 사회에 전달하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을 밝히는 불씨가 되길

이병두 前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를 출발할 때 모두가 똑같은 마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500km 자비순례를 마치면 대다수가 같은 생각으로 모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동참자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도반 · 문중 · 종단을 변화시킬 것이다.

부처님께서 부다가야에서 전법의 길을 떠나실 때에는 혼자였다. 순례 대중들도 부다가야를 떠나는 마음으로 순례의 길에 올랐을 것이다.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세상을 밝힌다.



새 수행 문화 정착의 계기

임승택 불교학연구회장

'국난극복 자비순례'와 '상월결사'를 키워드로 포털사이트에서 뉴스검색을 해봤다. 첫 번째는 의미를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참가의 소회였으며, 세 번째는 우려와 걱정이었다. 네 번째는 결사의 의의를 찾는 것이었고, 다섯째로 비판의 시선이 있었다. 마지막 여섯 번 째 시선은 순례에서 희망을 찾으려 한 것이다. 대부분이 결사의 원만회향을 기원하고 있다. 상월결사가 새로운 수행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법고창신 결사운동 모델

조기룡 동국대 교수

상월결사의 태동은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이 지난 2011년 총무원장 재직 당시 시행했던 '자성과 쇄신결사 운동'에서부터다. 자성과 쇄신결사 운동 이후 상월결사가 당대의 불교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역대 전통결사와 같은 배경이지만 그 방법을 정적인 것에서 동적인 것으로 변화시켰다. 이는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법고창신의 결사운동임을 보여준다.



현대의 사회에 맞는 구법행

최응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이번 만행결사 자비순례를 보며 〈왕오천축국전〉을 쓴 구법승 혜초 스님과 〈삼국유사〉를 집필한 일연 스님이 떠올랐다. 일연 스님이 쓴 〈삼국유사〉 '탑상편'은 전국 사찰을 직접 찾아다니며 쓴 기록이다. '탑상편'에는 당시 경주를 '별을 뿌려 놓은 듯 절이 많았고, 기러기 줄 지어 가듯 탑이 많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현재 자비순례는 일종의 구법행이다. 이에 동참하는 사부대중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잠시 멈추고 '불교 미래' 이야기하다

대중공사 토론회
한국불교 어디로 갈 것인가

조계종 중앙종회와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은 10월 23일 경기 양평 소노문리조트에서 '한국불교, 어디를 걷고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종회의원 연수의 일환으로 열린 대중공사에서는 기획실장 삼혜 스님(사찰재정)과 교육부장 서광 스님(출가자수), 포교부장 정인 스님(불자수)의 현황 발제에 이어, 교육원장 진우 스님 · 백년대계본부장 정념 스님 ·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 스님 · 합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 구례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등 5명이 토론자로 나서 종단 미래를 위한 혁신방안을 밝혔다.

양평=송지희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와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은 10월 23일 경기도 양평 소노문리조트에서 '한국불교, 어디를 걷고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사진=송현석 기자

스님 수행 · 생활보장 위한 '사찰 재정공영화' 검토를

"출가자수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스님들의 완전한 수행환경과 생활보장이 선행돼야 한다.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재정 공영화'를 제안한다. 현실성이 희박할지라도 종단 미래를 위한 하나의 대안임은 분명하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조계종이 그 어떤 사안보다 긴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출가자수 감소문제라고 봤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내 종단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종단의 일부 시스템을 재설계해서라도 사활을 걸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우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출가자수 감소는 오래 전부터 종단 차원에서 걱정해 온 문제지만 아직도 시원하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독려,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희망을 제기했다. 취업 고민 등 삶의 무게로 고통받는 수 많은 젊은이들이 잠재적인 출가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스님은 "이를 위해서는 완전한 수행환경과 입적까지 의식주는 물론 최소한의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기존 자발적인 출가자에 더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불교의 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고 방관할 수만은 없다"며 특단의 대책으로 '종단 재정공영화'를 제안했다.

스님에 따르면 재정공영화는 주요사찰부터 모든 수입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종국에는 전 사찰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대신 사찰의 규모에 따라 운용비를 책정해 이를 재분배하도록 하고 모든 출가자들에게 일정한 보시를 차등지급하게 하는 제도다. 이럴 경우 일선사찰의 소임자들은 어려운 재정운영에서 해방돼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자연히 사찰 발전과 포교의 극대화, 나아가 재정 건전성까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스님은 기대했다.

스님은 특히 "재정이 통합관리되고 재정건전성이 담보된다면 종단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목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기부자와 시주자도 과거와 같이 증가할 것"이라며 "재정 공영화를 통해 종단 재정시스템이 선순환되고 스님들의 복지가 완연하게 개선된다면 젊은 출가자들도 자연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시스템 전환은 쉽지 않은 일이다"며 "그러나 종단적인 원력을 모아 재정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면 종단은 큰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 언택트 문명 전환 중 새로운 수행 · 교화체계 마련을"

백년대계본부장 정념 스님은 코로나19 사태로 급작스레 닥친 문명의 전환 속에서, 종단과 각 사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스님은 "코로나19 사태는 기존 문화의 틀을 바꿨고 기술혁명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며 "우리는 이제 소통의 방법으로 온라인, 언택트 방식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그동안 우리가 대면 속에서 이뤄왔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가 일순간에 새롭게 전환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물론 그동안 불교가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는 노력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급작스레 닥친 비대면 문화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 절박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념 스님
백년대계본부장

이런 상황에서 스님의 결론은 결국 디지털, 온라인 문화를 최대한 활용해 생존의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스님은 "휴대폰 속 세상으로 불교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휴대폰 속 세상에서 대중과 만나고 긴밀하게 연결해 나갈 때 비로소 불교는 확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불교 전통과 경험을 토대로 데이터 관리 및 정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스님은 "시대에 부합하는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이 현재 종단과 교구본사의 여건에서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종단이 그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플랫폼 역할을 한다면 한국불교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스님은 "디지털 시스템 구축이 완벽하게 되지 않더라도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불교와 종단이 축적해 온 경험과 불교가 가진 자산을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데이터에 기반해 미래예측의 확실성을 높이고, 이를 종책 생산에 활용한다면 시대에 맞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세상과 존재를 향한 불교적 관점의 점검 필요성도 피력했다. 과거 기도나 제사 등이 인간에게 희망과 감동을 줬다면, 이제는 서서히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삶의 실천적 방법으로 명상과 수행이 대두되는 시대, 불교는 명상에 대한 이론체계와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명상과 수행을 기반으로 아함과 반야, 한국불교의 정체성인 선종, 시대를 재해석하는 화엄 등을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리체계로서 잘 정리하고 실질적인 교화체계로 흡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려주거노후복지 최우선 과제 사찰 재정, 신행활성화에 달려

"종단의 승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승려주거복지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원마련을 위한 승려복지분담금 제도 시행 및 교구본사별 부분 재정통합 방안을 제안한다."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종단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승려주거복지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스님은 "1만 3000명 승려 가운데 50세 이상이 72%이며 65세 이상 승려는 21.3% 수준으로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조계종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며 "승려노후복지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단은 반드시 승려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미 종단과 교구본사 간 협력을 통해 승려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등 일부 대비를 하고 있지만 주거복지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요원하다는 설명이다.



금곡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이에 스님은 승려주거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교구본사별 부분 재정통합이나 부분적인 재정공유제도 도입을 조심스레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교구 승려복지 분담금을 신설하고 소속 말사의 결산을 기준으로 일정금액 이상 사찰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스님은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반드시 교구 재적승려의 복지문제, 특히 승려노후 주거복지 사업에 한정해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교구승려복지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해 재원 사용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교구 내 지역별 승려 주거복지 거점사찰을 지정하고 거점사찰에 대해서는 교구승려분담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재정을 지원하거나 교구 차원에서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가자수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는 '상설 행자교육원' 설립을 통한 행자교육 체계화를 제시했다.

스님은 "현 상황이라면 2030년에는 출가자 수가 60명대에 머물 것이라는 충격적인 통계는 종단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임을 보여준다"며 "현실적으로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행자 교육체계를 점검해 중도포기하는 비율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출가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승려로서의 위의와 승가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찰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회주로 주석하고 있는 서울 흥천사 사례를 설명하며 "사찰 재정은 어디까지나 신도들의 신행활동을 토대로 형성되는 재화이기에, 신도들의 신심과 원력을 기반으로 신행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고민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적 구조조정 필요… 사회적 대안 제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종단의 질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특히 스님은 대표적으로 중앙 종단과 교구본사의 직제와 위상에 대한 조정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스님은 "교구본사가 주지인사권을 가지고 자주권과 자율성, 독자성이 강화되면서 조계종이라는 단일승가공동체가 아닌 본사공동체에 가까울 정도 인식이 변했다"며 "이제 교구본사의 독자성과 자율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중앙종무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본사로 확장하기 위한 접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스님은 "사찰 운영 역시 유형별로 발전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본사와 말사, 도심사찰과 산중사찰, 문화재사찰과 전통사찰, 부동산 보유사찰과 사설사암 등 각각의 특성에 따라 운영방안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



현응 스님
합천 해인사 주지

특히 "문화재사찰이나 전통사찰, 부동산 보유사찰 등 삼보정재를 관리하는 사찰의 경우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 대응하고 개선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종단 차원에서 국가법령에 대한 연구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재산권의 침해를 막고 부당한 권리규제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이는 사찰이 아니라 종단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불교적 가치 실현을 통한 중생과 세상을 구제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불교교리연구원'을 설립하고 시대적 화두에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스님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사회와 함께해 온 불교는 앞으로도 시대적 문제와 사회적 난제에 대해 불교적으로 고찰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례로 코로나 사태에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종교적 백신을 개발해 대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인 셈이다. 이는 곧 불교 본연의 역할을 시대에 맞게 실현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종무기관 조직 재편… 사부대중 공동체로 전환

"한국불교 스스로 미래의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구례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코로나19 사태라는 문명사적인 급변상황에서 종단과 본사 및 개별사찰의 조직구조 및 운영방안을 새롭게 모색해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현대사회의 사찰은 단순히 수행과 전법의 도량일 뿐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교육과 문화, 복지의 열린 공간으로서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중앙종무기관에서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덕문 스님은 "조계종의 효율적인 종무행정을 위해 중앙종무기관의 전면적인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총무원은



덕문 스님
구례 화엄사 주지

행정원으로, 교육원과 포교원은 전법원으로 통합하고, 수행원(중앙연수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또 비대해진 수도권 현실과 관련, 서울을 강남과 강북교구로 분리하고, 인천지역 교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불교사회연구소와 불학연구소, 포교연구실 등 분산돼 있는 종책 연구기관의 통합운영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스님은 "정부기관도 부처별, 지자체별 연구기관을 설립해 싱크탱크로 활용하고 있다"며 "종단의 싱크탱크도 풍요로운 정보와 다양한 아이디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사부대중 공동체로의 전환 필요성도 피력했다. 신도수 감소의 대안이기도 하지만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 덕문 스님은 '붓다로 살자' 등의 운동을 일례로 들며 사부대중공동체 운동이 교구본사별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한국불교가 처한 위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00년 전 방식을 쓸 수는 없다"며 "현대사회에 맞는 해법과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그 근간은 부처님의 근본사상과 불교의 참 정신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호가 곧 수행…“피로 잊을 만큼 환희심 컸다”

순례 지원한 외호대중들

82명의 순례단이 국난극복과 불교중흥을 위한 21일간의 대장정에 나서는 동안, 순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슬땀을 흘린 외호대중들이 있었다. 순례대중들이 고난의 행군에 나선 21일간 큰 사고나 낙오자 없이 순례가 가능했던 데에는, 바로 이들의 종횡무진 활약이 든든한 토대가 됐다는 평가다. 순례여정에서 외호대중들은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이 활동했을까. 보이지 않는 울타리로 순례의 든든한 의지처가 된 외호대중의 이모저모를 취재했다. 〈편집자주〉

문경=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오후 4시 회의에서 순례단 소속의 각조 조장과 진행팀, 지원단 소속 팀장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운영 · 상황 · 자원봉사 · 의료팀
불편 없는 순례 위해 만반 준비
100여개 텐트 매일 설치 · 철거

순례코스 전날 답사로 변수 대비
모든 공양물 평등한 배분이 원칙

순례 원만회향 이끈 큰 원동력

상월선원 만행결사 외호대중의 정식명칭은 지원단(지원단장 박기련)이다. 지원단은 다시 운영팀(팀장 이상종)과 상황팀(팀장 윤승헌), 자원봉사 · 공양팀(팀장 장영욱), 의료팀(팀장 김명숙) 총 4개 팀으로 나뉜다.

지원단은 총 6개 조로 구성된 순례단의 안전과 순례 관련 전반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실무진이다.

지원단은 각 팀별 맡은 바 업무를 세분화해 유기적으로 공유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최우선의 목표는 오직 하나, 순례에 나선 대중들이 불편함 없이 순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길에서 걷고 길에서 자고, 길에서 먹는 순례이기에, 무엇하나 안정적이고 편한 것이 없는 여정이다. 숙영지에 펼쳐진 100여개 텐트를 설치하고 허무는 일부터, 무거운 캐리어를 차량에 싣고 내리는 일, 대중들이 안전하게 순례할 수 있는 코스를 사전에 답사해 확정하고 경찰과 협조하는 일, 전국 각 사찰 등에서 잇따르는 순례대중 공양 요청과 보시물들을 정리해 차질 없이 일정에 반영하고 순례단에 배분하는 일, 코로나 사태에 대비한 전방위적 방역 조치를 강화 · 유지하는 일까지. 이 모두가 외호대중의 손과 발에 달렸다.

만반의 준비를 다해도 시시각각 당면한 상황에서 변수가 생겼고, 순례대중들이 길 위에서 아침, 점심 공양을 위해 모일만한 장소도 그때그때 달라졌다. 길 위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외호대중의 중요한 책무다. 고령의 순례대중들은 건강을 별도로 체크하는가 하면 짓무르고 피가 나는 대중들의 발과 다리를 치료해 다음날 순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일과 중 하나다.


김명숙 의료팀장이 참가자 대상 발열체크하는 모습.


윤승헌 상황팀장이 경광봉으로 안내하는 모습.


유튜브용 영상을 촬영 중인 홍보 소임 정오 스님.


이상종 운영팀장은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종괄한다.

새벽 2시부터 각자 역할 따라 준비

상월선원 만행결사 순례단의 하루는 새벽 3시에 시작된다. 지원단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은 그보다 조금 더 이른, 새벽 2시경이다. 전날 확인한 도로 사정을 재점검하고 각자 역할에 따라 분주히 움직인다. 순례단이 찬이슬을 맞으며 도로로 나선 이후가, 숙영지에 남은 지원단이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시간이다.

가장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업무는 텐트를 허물어 챙기고 다음 숙영지에 다시 설치하는 일이다. 텐트 하나를 소독하고 철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분. 자원봉사팀 주도로 100여개 텐트를 일일이 정리해 차에 싣고 나면, 다음 숙영지로 이동한 뒤 다시 설치하고 소독하는 일을 반복한다. 녹록치 않은 텐트팀인만큼, 단체로 자원봉사에 나선 동화사 대중과 동국대 대중들이 큰 힘이 됐다.

앞이 잘 보이지도 않는 어두운 새벽 순례에 나서느라 미처 정돈하지 못한 분리수거 및 쓰레기 정리, 분실물 관리도 지원단의 중요한 업무다. 100여개 텐트와 100여명의 인원이 머물다 간 자리이지만, 머물렀던 흔적 없이 말끔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순례단의 짐과 캐리어를 차량에 싣고 다음 숙영지로 옮기는 역할은 자원봉사팀 소속 조계사 대중들의 몫이다. 2명씩 팀을 이뤄 3박 4일간 캐리어팀의 소임을 맡는 방식으로, 100여개의 캐리어를 차량에 싣고 다음 숙영지로 이동해 세팅한다. 이세용 종무실장 뒤를 이어 지원단에 참여한 최종현 조계사 차장은 “캐리어 자체의 무게가 있어 육체적으로 녹록치 않지만, 하루 순례를 끝내고 숙영지로 들어오는 순례단의 모습을 보면 절로 합장하며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윤승헌 팀장이 이끄는 상황팀은 순례단과 함께 이동하며 도로 상황을 체크하는 역할이다. 어두운 새벽 시간 혹은 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걷는 경우가 많아 경광봉은 필수다. 순례코스마다 지역 경찰서에서 순례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졌다.


장영욱 자원봉사팀장과 봉은사팀은 순례대중에게 나눌 공양물을 담당한다.


캐리어 운반 담당 조계사팀. 순례단의 짐과 캐리어를 다음 숙영지로 이동시킨다.

가장 힘든 코스인 문경새재 구간에서 순례단 안전을 지원한 정선관 문경교통관리계장은 “업무의 일환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순례를 곁에서 지원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국난극복을 위해 걷는다는 정보는 미리 알았지만, 실제 현장에서 300m 가량 이어지는 순례단 행렬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다”고 감동을 전했다.

새벽 순례는 보통 10km, 3~4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하루하루 지날수록 순례단의 걷는 속도가 빨라져 도착 예정 시간이 단축되는 일도 다반사다. 아침 공양 시간은 오전 7~8시경. 길 위가 곧 공양장소인 만큼 자원봉사팀 소속 공양팀이 정해진 장소에 미리 도착해 상황을 체크하고, 순례단 식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둔다.

아침 공양으로는 바나나, 귤, 유산균 음료, 계란이 제공된다. 공양물 후원 자제요청에도 순례대중의 원력에 동참하고자 전국 사찰과 불자들이 보시하는 공양물만 하루 평균 10여건에 달하기 때문에, 공양과 함께 체력을 보완할 수 있는 음식이나 간식이 추가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순례대중을 위한 공양물은 지위의 높낮이나 승속, 나이, 성별 등 그 어떤 구분 없이 동등하게 분배된다. 모든 순례대중 한사람 한사람이 저마다의 원력으로 모인 만큼,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것 또한 순례단의 기본 원칙이다. 순례단이 사용하기 어려운 공양물들은 순례지역의 복지관 등과 연계해 소외이웃을 위해 회향한다.

자원봉사 · 공양팀에서는 특히 봉은사 대중의 활약이 돋보였다는 후문이다. 팀의 주축으로 자원봉사자 변동사항 공유는 물론, 역할 분배와 교육, 공양 스케줄 확정 및 배분까지 전천후로 활동했다. 봉은사 종무실장이기도 한 장영욱 자원봉사팀장은 되레 자원봉사자들을 향한 감사인사로 소감을 밝혔다.

장 팀장은 “이번 순례에 외호대중 소임을 맡고 있긴 하지만, 개인 원력으로 혹은 동화사와 동국대 등 단체로 동참해 주신 자원봉사자 분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원활한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길 위에서 만난 인연과 원력들이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공양팀의 가장 큰 고민은 잔반과 쓰레기 처리다. 순례대중들이 잔반을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해도 불가피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쓰레기 또한 숙영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적지 않아 순례 시작 3일 째부터는 아예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문제는 쓰레기 봉투 사용 지역이 행정구역상 분리돼 있다는 점이다. 처음 쓰레기봉투를 넉넉히 구입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뒤 사용하지 못하는 등 생각지 못한 시행착오도 겪었다. 공양팀은 “순례가 진행될수록 노하우도 쌓여 순례코스에 따라 쓰레기봉투 구입 매수를 미리 정해 준비할 정도가 됐다”고 에피소드를 전했다.

아침 공양이 끝나면 순례단은 다시 길에 나선다. 지원단은 분주히 점심공양이 예정된 장소로 이동해 식사를 위한 준비로 순례대중을 맞이한다. 공양 후에는 뒷정리를 재차 마무리하고 숙영지에 도착해 저녁공양 등 상황을 점검한다. 오후 3~4시경 숙영지에 도착한 순례대중 앞에는 이미 100여개의 텐트와 개인별 캐리어, 공지사항 전달 등을 위한 음향기기가 세팅돼 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텐트는 혼용되지 않도록 개인별로 정해져 있다. 순례대중들이 목에 건 명찰 뒷편에 적힌 번호가 곧 텐트 번호다.

실시간 상황 공유 등 체계적 운영

큰 변수가 없는 한 매일 오후 4시, 회주 자승 스님이 주재하는 회의가 열린다. 순례단 6개 조를 이끄는 조장과 순례단장 및 진행팀장, 지원단장과 4개 팀장이 참여하며, 그날 순례에 대한 점검과 평가, 조별 순례대중들의 건강상태, 개선이 필요한 상황과 추가적인 지원 요청 사항 등이 큰 틀에서 공유된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상황팀과 운영팀은 다음날 순례코스를 답사한다. 공양 장소 물색과 화장실 유무, 안전한 순례가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한 체크사항이다.

코스 중 마땅한 화장실이 없는 경우 직접 설치하는 경우도 수차례다. 바닥이 트인 소규모 텐트를 남성용, 여성용 두 개로 설치하고 바닥을 파 임시로 화장실을 만드는 방식이다. 순례단이 떠나고 난 뒤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완료하는 것도 지원단의 역할이다.

이상종 운영팀장은 “순례대중들이 최대한 불편함 없이 안전한 순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매일 새벽 2~3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는 분들이 있다”며 “몸은 좀 힘들지만 국난극복, 불교중흥을 위한 순례대중의 원력을 바로 곁에서 보고 외호하는 소임이기에 마음은 더없이 환희스럽다”고 말했다.

오후 6시에는 실무회의가 진행된다. 다음날 순례코스를 미리 답사하고 온 윤승헌 상황팀장과 이상종 운영팀장을 비롯해 지원단 팀장 전원과 실무진이 모이는 시간이다. 이때 확정한 코스와 계획이 다음날 순례대중을 이끄는 길잡이가 되기에, 작은 변수도 그냥 넘기지 않고 철저한 준비에 임한다.

순례단 말미에는 동국대 의료원 응급차량이 뒤따른다. 순례 중 발톱이 빠지거나 근육경련, 급격한 체력저하 등으로 치료 및 회복이 필요한 순례대중이 생길 경우, 조장을 통해 즉시 상황팀에 전달돼 조치가 취해진다. 김명숙 의료팀장의 진료를 거쳐 걸을 수 있게 되면 다시 순례에 합류하지만,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면 응급차량에 탑승하는 경우도 있다.

김명숙 팀장은 “순례대중 가운데 폐암 수술 이력이 있는 분도 계신다. 호계원장 무상 스님을 비롯해 고령인 대중에 대해서도 더욱 신경써서 건강상태를 체크한다”고 설명했다.

순례대중들의 치료빈도가 가장 높은 부위는 단연 ‘발’이다. 온전히 도보로 순례를 하다 보니 짓무르고 물집이 잡히거나 상처나기 일쑤다.

순례대중들은 고통을 참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정진의지, 그리고 ‘함께하는 대중’에게서 나온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항상 순례단 곁에서 살뜰히 건강을 살피는 의료팀 역시 전 대중이 낙오 없이 원만회향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는 평가다.

순례대중들이 저녁 공양을 마치고 각기 텐트에서 재정비하는 시간, 지원단에서 가장 바쁜 사람 역시 김명숙 의료팀장이다.

종일 이어진 강행군에 발에 물집이 잡히고 발톱이 빠지거나 근육통을 호소하는 순례대중들을 찾아다니며 치료에 매진한다. 걷지 않아야 상처가 아물겠지만, 순례에 동참하는 대중들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 까닭에 대부분의 경우 다음날 순례가 고통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치료한다. 지병이 있거나 고령의 순례대중들을 별도로 확인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매일 3회씩 전체 대중의 발열여부를 체크하고 마스크 교체 등을 총괄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소임인 만큼 책임감과 부담감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 팀장은 “지난 30년간 동국대 의료원 소속으로 일해 왔는데, 이번 순례가 그간의 내 삶을 돌아보는 전환점이 되고 있음을 느낀다”며 “순례대중들의 상처투성이 발을 치료하면서 그 발에 우리 한국불교의 미래가 있음을 확신하게 됐고 한 사람의 불자로서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다. 다시 없을 귀한 경험”이라고 미소지었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이번 순례는 매일 짧으면 22km, 길면 35km 가량을 길 위에서 걷고 먹고 잠드는 행선정진이었다. 이를 통해 움직이는 불교, 행동하고 실천하는 불교로 나아가기 위한 원력을 모아내는 여정 그 자체”라며 “차질없는 순례를 위해 지원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다. 전날 모든 코스를 답사하고 매일 회의를 통해 점검했지만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탈한 회향과 국난극복, 불교중흥의 원력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한 모든 대중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 현장화보



인도 만행결사를 앞두고 천막결사와 태화산예비순례를 마친 상월선원 만행결사 사부대중은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불교중흥과 국난극복 자비순례를 진행했다.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시작해 구미와 상주, 문경, 충주, 여주, 양평을 거쳐 서울 봉은사에 이르는 총 500km의 순례다. 82명의 순례자와 1일 참가자들은 하루에 30km 이상 묵언하며 걷고, 길에서 공양하고, 텐트에서 잠을 잤다. 결사의 새로운 길이다. 결사의 이유와 실천 모두 새로운 생각과 결집으로 회향했다. 한국불교의 중흥이라는 쉴 수 없는 화두와 코로나19로 인한 오늘의 숙제를 함께하자는 대작불사다. 21일 동안의 대장정을 사진으로 돌아본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萬行結社의 새 지평을 열다



순례 입재 법회의 증명법사로 참여한 조계종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가 순례 대중에게 정진을 독려하는 법어를 내리고 있다.



10월 7일 대구 동화사 통일약사대불보전 앞 광장에 모인 82명의 결사 대중과 불자들은 이번 순례의 성공을 발원하며 입재 법회를 봉행했다.



입재법회에는 나경원 前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선재 BBS불교방송 사장 등 내외빈도 동참했다. 특히 나경원 前 의원은 일일 동참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10월 7일 순례를 마친 참가자들이 대구 강변리틀야구장서 각자의 텐트를 찾아 공양과 취침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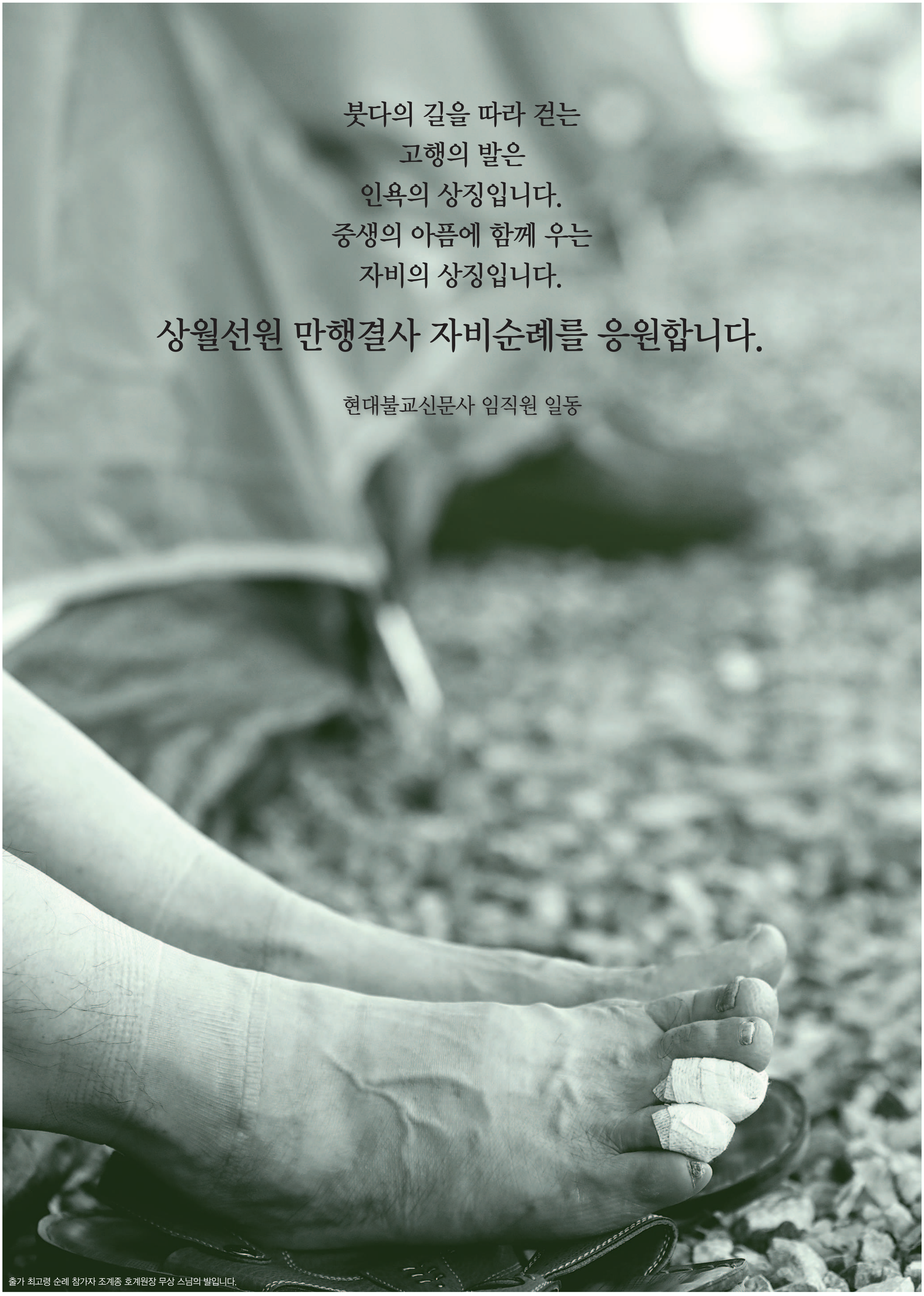
10월 17일 충북 괴산 나무야나무야 캠핑장서 하루의 순례를 무사히 마친 모든 참가자들이 합장으로 서로 격려하며 인사하고 있다.



조계사는 순례단을 위해 문경새재 정상서 커피트럭을 대절해 커피와 차 등을 보시했다.



동국대 일산병원 교직원 모임인 연우회가 순례를 마친 참가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출가 최고령 순례 참가자 조계종 호계원장 무상 스님의 발입니다.